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
(2008년 ~ 2010년)

“ 문화가 이제 우리 곁에 흐르고 ”

추위가 한창이던 2009년 1월 15일. 예술인 신년하례식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옛 기무사 부지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뀌어진다’ 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미술관이 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부터 문화의 상징인 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예술의 물줄기가 온 천하에 흐르게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변화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체육강사제가 도입되어 몸으로 체득하는 문화를 바꾸었고, 주말리그제가 지역의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예술꽃 씨앗학교와 문화 예술강사가 확대되어 전국에서 문화를 심도록 하였고 도서관에서는 작가들이 주민들과 문화로 소통하고 잔치를 벌였으며, 지역의 공연장에서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흥정하고 장보는 모습 속에 문화가 흐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멋과 소리를 알리는 국악방송의 청취가능한 곳을 크게 늘리고 곧 전국화를 내다봅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까지 우리 곁에 문화가 어디서나 흐르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엄동설한 얼음장 밑에 졸졸 넘어가던 물줄기가 봄을 움트게 하고 촉촉이 모두를 적시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에 쏟은 정성의 결과는 금방 장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문화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율과, 농어촌 군단위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율과 문화시설 이용율이 2008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반갑게도 가장 어렵고 가장 먼 곳에서부터 문화의 봄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디서나 문화가 흐르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마을을 만들고 국방부와는 군관현악단을 창단하고 노동부와 문화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부와 생태관광활성화 협력을 하였습니다. 또 법무부,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와 MOU 및 실질적 협력을 통해 모든 부처의 모든 분야에 문화가 흐르도록 열심히 용두레도 퍼올리고 무자위도 돌렸습니다.

예술분야에서는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곳을 바꾸었습니다. 예술지원 4대원칙을 정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매년 감소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제는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예술단체는 오디션 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술기관들은

분리하여 특성화를 시키고 조기공모, 조기대관을 정착시키도록 했습니다. 국립 공연시설의 초대권 관행도 폐지했습니다.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예술가의 집 조성, 국립극단 서계동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의 물줄기가 바르고 풍성하게 흐르도록 정비하였고 기금의 지역 이관을 대폭 늘여 지역에서 예술이 살아 숨쉬게 하였습니다.

전국의 문화와 역사가 관광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688km의 해파랑길과 410km의 삼남대로에서 우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 등 전략시장 관광객을 집중유치하여 우리의 멋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 880만명의 외래관광객이 유치되었습니다. 숙박시설도 확충하고 중국비자 간소화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콘텐츠에서는 산업화의 길을 막고 있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가장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콘텐츠 산업체 및 해외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와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오랜 고질적인 병폐인 학교체육의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공부하며 운동하고 그것이 지역의 잔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최초로 초등학교 체육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종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국가의 위상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부터 '문밖을 나서면 누구나 15분 만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3년간의 노력은 겉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숨쉬는 공기같이 이제 문화가 우리 옆에 주변에 항상 흐르고 움틀거리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의 아름다운 물줄기로 싹이 트고 오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문화로 생동하는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누리는 시대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201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춘

문화정책 3년

(2008년 ~ 2010년)

01 문화예술분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문화 · 체육 · 관광 바우처 대폭 확대 등
문화 향유 사업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문화예술교육 확대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

국립박물관 · 미술관 무료관람 시행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

문화로 지붕 씌우기(각 부처와 MOU사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젊은예술인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
(군 오케스트라 창단 지원, 신진 예술가 발굴 · 지원)

세종학당 설립 및 브랜드화 확산

예술지원 4대 원칙 정립 및 문예기금 지원방식 개선

우리 문화유산 11건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문화예술위원회 이전 및 예술가의 집 조성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

서계동 군사시설의 열린문화 공간 조성

생활속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예술지원 재원 확충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문화일자리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고품격 국립예술기관 육성

02 콘텐츠분야

킬러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문화기술(CT) R&D 지원 확대

콘텐츠·저작권 관련 기관 통합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발전전략 수립

범정부 정책추진체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마련

콘텐츠 분야 스토리텔링 활성화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시행

영화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모태펀드 등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대중문화예술인 자금심 고취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본격 육성

게임수출 활성화 지원

글로벌 CG 프로젝트 제작지원

융합형콘텐츠의
핵심분야인「가상현실」과제 발굴·지원

문화정책 3년

(2008년 ~ 2010년)

03 저작권분야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저작권제도 정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년 연속 제외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 강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강화

저작권 합법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등 교육·홍보활동 강화

04 미디어분야

신문법 등 개정, 신문의 방송 진입규제 완화

신문지원 3개 기관 통합

뉴스콘텐츠 생산·유통의 디지털화 추진

정부 뉴스 유료화 추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방송영상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출판물의 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05 관광분야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소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숙박시설 확충 종합대책 마련

세계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

국내관광 활성화

공연 및 한류관광 활성화

템플스테이의 세계화 및 확산 지원

관광레저 산업 육성방안 발표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추진

의료관광 유치 · 지원기관 기금 지원 등 의료관광 활성화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그랜드코리아레저 지분 매각

06 체육분야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학원스포츠 주말 리그제 실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경기단체 평가제도 도입

장애인문화 · 관광 · 체육 활성화
(장애인문화체육과 설치)

장애인문화 · 관광 · 체육 활성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

장애인문화 · 관광 · 체육 활성화
(장애인 관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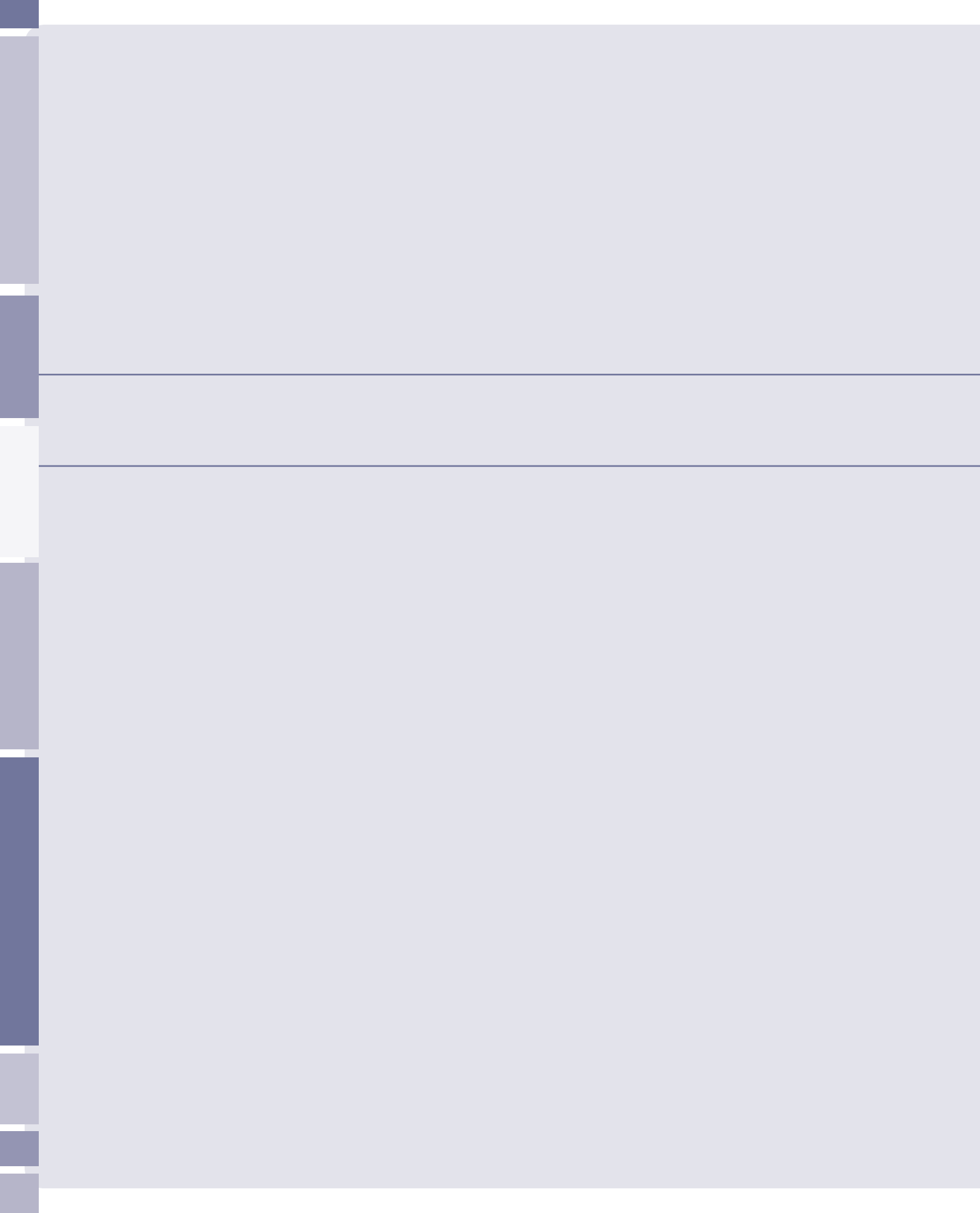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체육시설 규제 완화

국제체육대회로 스포츠강국 위상확대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유치 · 개최 추진

비인기 종목 활성화 / 태권도 세계화



목 차

● I. 과제별 성과

01 _ 문화예술분야	13
-------------	----

02 _ 콘텐츠분야	37
------------	----

03 _ 저작권분야	53
------------	----

04 _ 미디어분야	61
------------	----

05 _ 관광분야	69
-----------	----

06 _ 체육분야	83
-----------	----

● II. 별첨 자료

01 _ 연설문	99
----------	----

02 _ 주요 보도기사	107
--------------	-----



I . 과제별 성과

과제별 성과

01

문화예술분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배 경

-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공표(08.8.15)

추진내용

▷ 건립사업 추진기반 구축

- ‘국립대한민국관건립위원회 규정’ 제정(09.2.11)
- ‘국립대한민국관건립위원회’ 출범(09.4.16 / 총 29명)
- 건립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및 발표(10.3.1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추진

- 건축개념설계안 공모(10.2 ~ 4월) 및 우수작(5개사) 선정(10.4.23)
- 건립공사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10.10.29 / 대림산업 컨소시엄)

▷ 전시설계 및 자료수집 추진

- 전시주제 설정(10.5월 / 4개 대주제, 13개 중주제, 43개 키워드)
- 자료 기증 캠페인(10.6월 ~) 및 공개구입(10.9 ~ 12월) 추진
※ 자료 2,367점 기증, 7,095점 구입(10.12월말 현재)
-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10.12.1 / 시공테크 컨소시엄)

▷ 건립사업 홍보 실시

- 온라인 홍보(10.10.26 ~ 11.15 / 5천여명), 역사투어(SBS 소개) 등 행사 추진
- 착공식 개최(10.11.25 / 주요 인사 및 일반시민 등 400여명 참석)

추진성과

- 건립공사(10.10.29) 및 전시설계 착수(10.12.1)로 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 성공적 착공식(10.11.25) 개최로 관심 제고

배 경

- 미술계를 중심으로 옛 기무사 터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미술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대통령께서 문화예술인 신년하례식('09. 1.15)에서 '옛 기무사 부지 국립미술관으로 조성' 발표

추진내용

- ▷ 건립규모 : 부지 27,402㎡, 건축연면적 39,516㎡(지하주차장 포함52,386㎡)
- 주요시설 :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건물높이 12m)
- ▷ 총 사업비 : 2,565억원('09~'12년)
- 건축공사비 1,379억원, 부지매입비 1,038억원, 기타 148억원
- ▷ 완공시기 : 2012. 11월

주요 진행경과

- 대통령, '기무사 부지 국립미술관으로 조성' 발표('09.1.15)
- 미술관 조성부지 발굴조사(한강문화재연구소) 시작('10.3.22 ~)
※종친부 유구 발굴 및 복원 원칙 발표('10.6.9)
- 설계공모 당선작(mp_Art Architect 민현준+시아플랜) 발표('10.8.5)
※설계용역 착수('10.9.3)
- 서울지구병원 이전 완료('10.12.10)

기대효과

-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 해결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해외 현대미술의 소개 및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세계진출의 교두보 역할
- 경복궁 등 주변 문화시설과 시너지 효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허브역할 수행
- 인근 미술갤러리와 연계한 도심속 미술문화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예술과 휴식을 향유하는 개방형 공간 제공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

배 경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09.6월)
☞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한글박물관 건립 등)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주요업무계획 보고('09.12월) : 국가상징물로서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내용

▷ 건립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 규 모 : 건축연면적 11,322㎡(지하1층, 지상3층)
※ 전시 4,200㎡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 총사업비 : 352억원

▷ 주제별 전시 구성(안)

전시 주제	상설전시관			교육체험관	정보검색 공간
	주제1	주제2	주제3		
	우리 글을 만든다	우리 글을 꽃 피우다	우리 글을 생각하다		
내용	한글 이전의 문자생활	교육/보급 생활	한글의 오늘 → 한글 디자인, 남북한 한글, 세계 속의 한글 등	한글과 세계문자 → 세계문자와 비교	한글 관련 자료 검색 및 정보공유
	훈민정음 및 관련 자료 전시	예술 인쇄/정보화	한글의 미래와 과제	한글로 익히다 → 한글원리 교육	
	훈민정음 원리 소개	일제강점기의 한글	세상의 소리를 담은 한글	한글로 펼치다 → 한글원리 응용	

추진성과

- 한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09.7 ~ '10.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10.3월)
- 한글박물관 설계공모 공고('10.4 ~ 6월)
- 한글박물관 건축설계 용역('10.7월)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 한글박물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10.9월) : (주)미래세움
- 한글박물관 건축 및 전시설계 완료('11.1월)

배 경

- KTX 신역사 개통 이후 기차역의 기능이 소멸된 구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우리나라 대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내용

▷ 시설개요 : 건축연면적(9,202㎡, 지상2층, 지하 1층), 광장 7,557㎡

▷ 공간 활용 계획(안)

층별	시 설 명		면적(㎡)	주요용도
지상2층 (1,346.89㎡)	다목적홀	전시실 1~5	347.48㎡	예술·문화 관련 전시 및 회의공간으로 대관 (내부복도 포함)
	전시 및 회의	그릴, 회의실 1~2	379.97㎡	음식문화체험, 전시·회의 공간으로 대관
	기타 공간		619.44㎡	로비, 복도 등 공용공간
지상1층 (3,796.37㎡)	상설전시관	역사문화관, 역장실 등	435.23㎡	서울역 상설 전시공간
	다목적홀	중앙홀, 다목적홀	890.46㎡	세미나, 전시 등 다목적 대관 공간
	민간 임대	노천카페/기념품점	424.41㎡	간단한 음식, 음료가 가능한 카페 구서울역사 및 한국 관련 기념품 판매공간
		상설공연장	323.22㎡	대중음악 등 공연장(미정)
		기타 공간	1,723.05㎡	로비, 복도 등 공용 공간
	사무실 / 기타 공간		4,059.11㎡	기계실, 사무실, 복도 등 기타공간

▷ 복합문화공간 개관 준비 : '11.1 ~ '11.7월('10.12월말 현재 공정율 70.3%)

- 상설전시관 설치('11.1 ~ '11.6월), 중앙홀 천창 설치('11.1 ~ '11.6월)
- 구서울역사 운영주체 선정('11.1월)

기대효과

- 구 서울역사 복원의 건축사적 가치와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성 공유
- 전시장, 공연장, 역사관, 컨퍼런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

배 경

- 도서정보 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이의 망라적 수집·가공·보급 및 보존을 위한 국가의 핵심 지식정보 문화인프라 확충
- 디지털 정보자료 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국민의 정보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반 강화

추진내용

- 규모 : 연면적 38,014㎡(지상3층, 지하5층), 열람석:550석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 34,773㎡(지상7층, 지하1층), 열람석:1,782석
- 사업기간 : '02년~'08.12월(7년) / ※ 공사기간 : '05.12~'08.12월(개관 : '09.5월)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국립중앙도서관 부지 내)
- 총사업비 : 1,237억원
- 주요시설
 - 디지털지식정보 이용 공간 (B3~B1/ 디지털열람실, 미디어센터, 스튜디오 등)
 - 보존 서고 (B3~B5/1,200만권 수장), 업무 시설(사무동 1~3층)
 - 지하 주차장(217대/지상 포함 총 384대 주차), 기계실, 전기실 등

추진성과

- '통합'과 '개방'을 주도하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실현 기반 구축
-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하는 이용자 통합서비스 모델 구현
-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 센터 및 세계디지털 도서관 허브 역할 수행
- 디지털 문화 창출과 향유를 선도하는 미래형 도서관 모델 제시

배 경

-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 핵심인 창의적 인재 육성과 문화다양성 존중 및 실천방안으로 문화 예술교육의 중요성 부각
- '06년 제1회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리스본)에서 각국 예술교육의 바람직한 모델과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 공동모색의 장 마련 필요성 제기
-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규모의 대회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우수 정책 및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 문화 선진국 위상 제고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 공유 및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는 범사회적 파트너십 구축계기 마련

추진내용

- 행사명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 기간·장소 : 2010.5.25 ~ 2010.5.28 (4일간) / 코엑스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공동
- 주관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 소요예산 : 2,742백만원(국고 및 기업협찬금 포함)
- 참가규모 : 107개국 / 2,963명

추진성과

- ▷ 세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한국의 역할을 공고화
 - 제185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10.10.16)에서 한국이 제안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3차 세계대회 개최 관련 안건 정식 채택
- ▷ 문화예술교육 정책 고위급 원탁회의 개최로, 국제정책 협력망 구축

세종학당 설립 및 브랜드화 확산

배 경

- 한류 열풍, 한국기업 해외진출 증가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 폭발적 증가 및 동남아 지역 · 현지 외국인 등으로 다변화
- 부처별 한국어 보급기관들이 산재해 있으나 표준 교육과정 부재 등 체계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 부재

추진내용 및 성과

▷ 세종학당 설립 및 공동 브랜드화 확대

- 2010년까지 12개국에 세종학당 23개소 설립 · 운영('07년 5개국 18개소)
- 국외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과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좌를 '인증 세종학당'으로 지정('10년 59개소)

▷ 한국어 교육 표준화 및 교원 자질 향상 지원

- 한국어 교재 초급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중급 1 · 2 개발 및 출판('08 ~ '10년, 7개 국어)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09년부터 매년 1회, 매년 교육자 300여 명 초청), 세종학당 교원양성을 위한 국내 초청 연수('10년 63명),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08년 8지역 13명, '09년 8지역 12명, '10년 10지역 20명)

▷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구축 · 운영

- 한국어 교육기관 · 교원 · 학습자에게 통합 정보 및 원격 강의 제공('09년 ~)
- 온라인 한국어 강좌 및 다국어 사이트 개발('10년 6개 국어), 전화 한국어 서비스 시범 운영('10.11 ~ '11.2월, 국내 거주 외국인 90명)

배 경

- 우리 문화 및 자연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1995년 이래 등재사업 지속

추진내용

▷ 세계유산 2건 등재

- 조선왕릉('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10년)

▷ 인류무형유산 8건 등재

-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09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10년)

▷ 세계기록유산 1건 등재 : 동의보감('08년)

추진성과

-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통한 국격제고 및 국민들의 자부심 고취
- 세계유산을 활용한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활성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

배 경

- 소외지역 · 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과 문화를 나누고,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추진내용

-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하여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축축한 문화그물망’을 형성(’09년 총 157개 사업, 1,349억원)

추진성과

- 소외계층 · 지역 대상 문화복지 지원 강화로 소득계층간 · 지역간 문화격차 감소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 ‘연간 예술행사 관람 횟수’ 전체 평균 대비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의 격차 감소
(’08년 조사, 약 9배 차이 → ’10년 조사, 약 4.5배 차이)
※ 郡지역 예술행사 관람률 대도시와의 격차 완화
(’08년 조사 21.7% 포인트 차이 → ’10년 조사 12% 포인트 차이)

구분	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관람회수(회)			문화시설 연간 이용률(%)		
	’08년	’10년	증감	’08년	’10년	증감	’08년	’10년	증감
월소득 100만원 이하	19.3	24.6	5.3 ↑	0.55	0.89	0.34 ↑	31.2	42.2	11.0 ↑
군지역 거주 주민	48.9	56.8	7.9 ↑	2.63	3.10	0.47 ↑	41.6	58.5	16.9 ↑

-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지역민 등 소외계층과 서민 약 1천 6백만명이 공연관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혜택
- 정부부처 특정평가의 우리부 정책핵심과제로 선정, ’09년 “우수” 평가(’09.11월, 국무총리실)
- 2008 복권기금 사업평가 결과 희망프로젝트 주요사업인 “문화순회사업”이 세부사업 평가결과 1위를 차지(’09.7월, 기획재정부)

배 경

- 주민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조성,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추진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및 민간단체
- 세부사업내용 : 유휴공간 및 기존노후 문고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지원

〈연도별 예산·조성내역〉

(단위 : 백만원/개소,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5,000 / 69	3,500 / 61	3,500 / 68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	1,000 / 77명, 344개소	토토적립금
○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기업후원사업)	1,330 / 14	800 / 6	850 / 6	후원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배 경

-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야간시간 운영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22시까지 운영(22시 이후 자율 운영)
※ 도서대출반납서비스, 문헌정보서비스,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성과지표	구분	'08	'09	'10
도서관 수	목표	80	90	253
	실적	117	253	257
일자리 수	목표	418	820	705
	실적	400	879	706
예산(백만원)		4,229	6,795	6,441

- 도서관 조성과 함께 전문인력 순환 배치를 통한 콘텐츠 제공

배 경

- 지원기관으로서의 문화예술위원회 정체성 정립과 공연장 운영 및 예술자료 수집·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분리 필요
- 단원기량 제고 및 국립예술기관의 품격 유지를 통한 국·공립 예술기관 및 예술단체의 공공성 강화 필요

추진내용 및 성과

▷ 국립극단 법인화

- 재단법인 국립극단 설립('10.6.18) 및 예술감독(손진책) 임명('10.11.9)
- 배우 교육훈련 과정생 선발 및 교육훈련(3차) 실시('10.8 ~ '11.1월)

▷ 국립현대무용단 신설

- 재단법인 국립현대무용단 설립 및 예술감독(홍승엽) 임명('10.7.28)
- 국립현대무용단 무용수 선발('10.9월 / 10월), 안무가 베이스캠프 추진('10.10월 ~)

▷ 한국공연예술센터 신설

- 대학로공연예술센터와 서울공연예술축제조직위 합병('10.6.12)
- 대학로지역 관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학로예술극장 리모델링('10.12월 ~)

▷ 국립예술자료원 신설

- 재단법인 국립예술자료원 설립허가('10.3.23)
- 연극, 무용 중심의 분원 개원('10.12.9)

▷ 국·공립예술기관의 공공성 제고

- 국·공립예술기관 및 단체 초대권 폐지 확대('11.1.1)
- 국립예술단체 연1회 기량평가 실시 및 연봉제 도입('09.10 ~ '10.12월)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8개 기관 공연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인하('09.1.1부터, 기관별 동결 및 10%이내 인하)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대폭 확대 등 문화향유 사업추진

배 경

- 우리 국민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예술향유에 있어 지역별·직업별·소득별 격차가 매우 큼

추진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문화·관광·체육바우처 지원으로 전국적 규모의 문화·관광·체육활동 기회 확대
- 국립 예술단체 및 우수 민간공연단체의 지방문예회관 및 농산어촌·중소기업 등 문화소외지역 순회 공연 지원
- 청소년·노인·지역민의 공연 등 관람료를 지원하는 사랑티켓과 국공립 공연장 미판매 티켓을 학생·교사·예술인 등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프트티켓 제도 운영

추진성과

- ▷ 문화바우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인별 50,000원)
 - '08년, 22만명(27억원) → '09년, 30만명(40억원) → '10년, 47만명(50억원)
- ▷ 복지관광 및 여행 바우처(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근로자 등)
 - '08년 4,554명(8억원) → '09년, 4,746명(8억원) → '10년, 11,300명(16억원)
- ▷ 스포츠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내 6~18세 청소년, 강좌 및 용품지원)
 - '09년, 9,402명(40억원) → '10년, 13,678명(60억원)
- ▷ '10년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97개 지역 691회, 국립예술단체 방방곡곡 순회 공연 51개 지역 123회, 소외계층 문화순회 1,615회, 소외지역학교 방문 공연 463개교 265회 지원
- ▷ '10년 사랑티켓 590,284명 수혜

배 경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현장예술인 일자리 창출
-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추진내용

-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 소외계층 및 특수계층(교정시설, 소년원 등)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 사업예산(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액	32,452	49,493	47,805	52,446

추진성과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향유기회 확대

- 초·중등학교 예술강사 지원 : 학교·강사수·분야 대폭 확대

구분	참여학교수	참여 학생수	예술강사	예술분야
2008년	3,689개교	58 만명	2,243명	5개 분야
2009년	4,799개교	155만명	3,483명	5개 분야
2010년	5,436개교	174만명	4,156명	8개 분야

※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비 참여 비율 : 33%('08년) → 43%('09년) → 48%('10년)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8개 분야)

-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10개교)이 정착되면서 국내언론 집중조명, 인근학교·지역에 우수사례 확산
- 저명예술가를 명예교사로 위촉('09년 17명 → '10년 100명), 문화예술 체험교육 실시로 '문화나눔'의 사회적 확산

▷ 소외계층(저소득 아동, 노인 등) 및 특수계층(군장병, 재소자 등) 대상 문화예술 '교육' 실시로 능동적·생산적인 문화복지 도모

구분	복지시설	예술강사	수혜자
2008년	426개소	428명	11,908명
2009년	437개소	439명	11,559명
2010년	488개소	517명	11,839명

국립박물관 · 미술관 무료관람 시행

배 경

- 건국 60주년,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08.5월부터 국립박물관 ·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 서민가계 부담경감 및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10년에도 무료관람 지속 실시 발표 ('09.12월)

추진내용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08.5월 ~ 현재)
※ 중앙박물관(지방 포함), 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
- 야간 개장 및 '박물관 가는 날'(매월 넷째주 토요일) 운영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추진성과

- 관람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
※ 무료관람 실시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관람객 증가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이 대표적인 문화예술 서비스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기여
※ 관람객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각각 83.3%, 52.6%가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응답 (N=1,143명 / 460명)

〈무료관람에 따른 관람객 증가 효과〉

(단위 : 명)

기관별	전년 동기	무료관람기간	관람객 증감(B-A)	
			인원	%
중앙박물관	5,601,284	6,997,521	1,396,237	24.9
민속박물관	1,720,013	2,031,315	311,302	18.1
현대미술관	754,002	1,062,827	308,825	41.0
합 계	8,075,299	10,091,663	2,016,364	25.0

주1) 전년 동기 : '07.5.1 ~ '08.4.30 / 무료관람기간 : '08.5.1 ~ '09.4.30

주2) 중앙박물관은 지방박물관, 현대미술관은 덕수궁미술관 관람객 포함 수치

주3) 고궁박물관은 '07.5.15 ~ 12.31까지 휴관 및 무료관람으로 대상에서 제외

배 경

- 문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제고
 - ※ 시장상인 참여, 공연, 전시, 공공미술, 스토리텔링 등 문화마케팅 지원
- 대통령 말씀('08.3.4 국무회의) : “재래시장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미해 관광명소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함”
 - ※ '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및 시범사업 추진 발표('08.3.14)
 - ※ 국정과제 5-20-98-2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시한 : '12년 하반기)

연도별 추진 현황

- ▷ [2008.10] 2개소 첫 착수(수원 못골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 10억)
 - ※ 1차년도('08.10 ~ '09.6월) 및 2차년도('09.7 ~ '10.6월) 사업 완료
- ▷ [2009년] 4개소 추가 추진(서울 수유마을시장 등 / 12억)
 - ※ 1차년도 사업완료('09.5 ~ '10.6월), 2차년도 사업 완료('10.7 ~ '11.3월)
- ▷ [2010년] 10개소 대폭 확대(광주 무등시장 등 / 38억)
 - ※ 1차년도 사업완료('10.5 ~ '10.12월), 2차년도 실행계획 준비 중('11. 1 ~ 2월)
 - ※ 중기청과 업무협력 MOU 체결('09.12.17) : 2010년 2개시장 공동추진
- ▷ [2011년] 3개소 추가 및 정책대상 다양화(전주 남문시장 등 / 36억)
 - ※ 신규시장(3개소 선정, '10.12월) · 정기시장(5일장) · 문화장터 등으로 시범모델 다양화 및 확산 유도

추진성과

- ▷ 시범사업 추진 후 방문객 및 월 매출액 상승의 가시적 효과
 - 수원 못골시장: 방문객 8.6% 증가, 월 매출액 22.8% 증가
 - 경제성 효과 분석 결과('10.12월, 경희대 산학협력단), 총매출액 평균 12.8% 증가, 순생산파급효과 184억원, 취업파급효과 약 346명의 효과

문화로 지붕 씌우기(각 부처와 MOU사업)

배 경

-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적 삶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추진내용 및 성과

- 문화예술 · 체육 교육 활성화(교과부 대상- '08.10월 ~)
-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복지부 대상- '09.3월 ~)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중기청 대상- '09.12월 ~)
-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농식품부 대상- '09.3월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노동부 대상- '09.6월 ~)
- 국군 오케스트라 창단 지원(국방부 대상- '09.9월 ~)
- 사이버 공간 불법행위 근절 공동 캠페인(법무부, 행안부, 교과부, 방통위 대상- '09.5월 ~)
- 한 · 중 상호 무비자 입국 시범 실시(법무부, 외교부 대상- '09.11월 ~)
- 생태관광 활성화(환경부 대상- '09.2월 ~)
-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전라북도 대상- '09.3월 ~)
-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방통위 대상- '10.2월 ~)
-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서(농식품부 대상- '10.5월 ~)
-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법무부 대상- '10.6월 ~)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중기청 대상- '10.12월 ~)

배 경

- 젊고 유능한 예술인 양성을 위해 국방부에 국군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의
- 우수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신진예술가(작곡가 등)를 발굴 · 지원하여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세계화 실현

추진내용

- ▷ 군 오케스트라 창단(편제 승인, 45명, '09.10.1), 증원(98명, '10.9.8)
- ▷ 국악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10.8.13)
 - “Aux” 등 예선통과 9단체 경연 및 시상
- ▷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천차만별콘서트”(‘10.9.2 ~ 11.7)
 - “줄노리” 등 18개 단체 총 36회 공연 개최
 - ※ 신진예술가 발굴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
 - (’08년 20개 단체 40회 공연 / ’09년 24개 단체 48회 공연 / ’10년 21개 단체 40회 공연)

추진성과

- ▷ 창단 기념 연주회(‘10.2.10, 예술의전당), 6.25기념 연주회, 공군사관학교 등 총 10회 연주회 개최로 군 오케스트라 운영 활성화
- ▷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 해외 공연 참가(2회, 2팀) 및 국내 활동을 통한 대중화 · 세계화 실현
 - ※ 아나야 : 워낭소리 OST 제작 / 프로젝트 시나위 · 불세출 · 국악아카펠라 토리's : 뉴욕공연 등
- ▷ 천차만별 콘서트
 - 신진예술가 활동 지원을 통한 전통예술 창작 활성화
 - 국내 · 외 공연 및 해외 레지던시 선발시 기회 부여
 - ※ 슝, 프로젝트 수, 거문고팩토리 : 2010 해외레지던시 선정 및 파견

예술지원 4대 원칙 정립 및 문예기금 지원방식 개선

배 경

- 문예기금 지원의 현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0년도 문예기금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09.6.17)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추진

추진내용

- 예술지원 4대 원칙에 따른 지원방식 개선 추진
 - ※ 4대원칙 :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 예술향유환경 조성
- 지원심의제도 전면 개선
 - ※ 책임심의관계 도입·운영
 - ※ 조기·상시 심의체제로의 전환

추진성과

- ▷ **지원사업 운영체계 선진화**
 - 책임심의의원 제도 정착 : 지원심의회와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임심의 위원제 도입 시행('10.2월)
- ▷ **상시공모 제도 시행('10.2월)**
 - 연 1회 일괄 신청-심의 → 상시 신청-심의 제도 전환
 - ※ 2010년도 지원심의실적 : 연간 상시 지원심의(총 12회) 추진
- ▷ **조기공모 및 다년간 공모 시행('10.8월)**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공모일정 보다 앞당겨 조기공모 시행
- ▷ **성과중심의 사후지원 프로그램 강화(예술창작 핵심역량사업 강화)**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성과 : '10년 18억1천만원, 54건 지원
 - ☞ 사후지원제도 도입으로 사업의 품질과 경쟁력이 제고되어 주요 예술상 수상 및 해외교류 성과 창출
- ▷ **지역협력관계도 운영('10.4월)**
 - 전국 3개 권역별(중부·영남·호남권 등 3명) 지역협력관 파견 시범추진

배 경

- 「대화로예술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예술위원회 청사 이전
- 예술위원회 구 청사를 활용한 예술가의 집 조성

추진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사 구로 이전('10.5.4)
- 예술가의 집 조성 및 개관
 - ※ 예술가의 집 조성계획 수립 및 의결 ('10.4월)
 - ※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문화재청 / '10.8월)
 - ※ 예술가의 집 설계 및 완공('10.10월)
 - ※ 예술가의 집 개관식('10.12.9)

추진성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사 구로 이전

- 서울 서남권의 경제중심지인 구로에 각종 도시재생프로젝트 및 각종 예술행사를 통해 다양한 예술 향유 기회 제공
 - ※ 예술네트워킹 '아르코에서 만나다'('10.5.10 ~ 11) : 예술정책 대토론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전통나눔음악회, 전시회 등 / 제28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10.10.25)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10.8.25)
-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 자긍심 고취

▷ 예술가의 집 조성 및 개관('10.12.9)

-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및 예술인(단체)의 활동을 돕는 교육·정보·행정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 활용도 제고

구분	공 간 구 성
1층	창작지원센터, A&B(Art & Business)센터, 예술인 카페, 커뮤니티룸, 열린공간 通(국립예술자료원), 지원(서버)실
2층	국립예술자료원 분관 (자료검색 및 열람실, 영상음악감상실) 명예의 전당
3층	세미나실(1·2·3), 다목적홀, 비품실
야외 뒤뜰	예술인 쉼터, 소규모 야외공연장

서계동 군사시설의 열린문화 공간 조성

배 경

- 도시 내 유휴공간인 옛 군사시설을 활용하여 예술인 창작 공간 및 일반관객 대상 문화공간 조성 필요

추진내용

- 국방부와 기무사 서계동 수송대 부지 사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10.7.14)
- 리모델링 착수 및 완공(10.7 ~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및 (재)국립극단 이전(10.11월)
-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개관식 개최(10.12.27)

추진성과

-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조성
 - ※ 국내 최초로 생존 원로예술인의 이름을 딴 극장을 건립하여 예술계 원로인사를 존경하는 문화 확산
- 사업의 특성화 전략을 통해 열린문화공간의 인지도 제고
- 국립극단 연중 공연 및 대관공연 활성화로 공연장 이용률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사무동, (재)국립극단의 상주공간 조성

공간소개

- 백성희장민호극장(16m×11m) : 200~400명까지 수용가능한 무대와 객석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연출자 의도에 따라 자유로운 공간 활용 가능
- 소극장 판(13m×10m) : 200명 수용 규모의 소극장으로 바닥을 황토로 조성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 가능
- 스튜디오 하나(17m×15m) : 백성희장민호극장 실제 크기로 세트를 설치하여 연극, 뮤지컬, 무용 등 연습 가능
- 스튜디오 둘(11m×11m) : 강의실(50명 수용), 대본연습, 소규모 연극 연습공간으로 활용 가능

배 경

- 국민 문화향유 욕구 증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 증대
- 모금 폐지('03.12.31) 이후 문예진흥기금 재원 부족으로 연 300억원 이상 기금적립금 감소 지속 ('04년말 5,272억원 → '10년말 3,362억원)
-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액 중 지역예술 지원액 확충 필요

추진내용

-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경륜·경정수익 전입금 배분 추진 및 관련법 개정 ('09.4.1 「경륜·경정법」개정, '09.7.1 시행)
- 「경륜·경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24.5%) 확정 ('10.9.16)
- 서울대비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액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 지속

추진성과

- ▷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륜·경정 수입금(2009년도) 배분 실현
 - 2010년 전입액('10.10.8) : 243억원
 - ※ 경륜·경정 수익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제도화를 통해 매년 약 250억원의 수익금 전입 예정
- ▷ 서울지역 문예진흥기금 지원액(비율) 지속 축소로 지역에 대한 배분액 점차 확대
 - 서울 지원액 축소 추이 : '08년(302억원, 35.4%) → '09년(251억원, 33.9%) → '10년(246억원, 26.9%)

문화일자리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재정지원 문화일자리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11년 1,231억 확보)

▷ 전공과 경험을 살리는 문화일자리 취업기회 제공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예술강사, 박물관 유물정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 6,953명

▷ 생활밀착형 문화일자리 제공으로 국민 문화향유 확대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야간개장, 전국 230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5,298명

▷ 취약계층, 지역 유희인력을 활용하는 문화재 관리 일자리 제공

- 목조 문화재 상시감시체계 구축,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등 1,031명

(억원, 명)

구 분	사업명	예산('11년)	인원
	합 계	1,231	13,282
	소 계	703	6,953
사회서비스 일자리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6	243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00	4,920
	• 박물관 미정리 유물정리	22	90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132	1,500
	•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저작권 청년강사	5	100
	• 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18	100
	소 계	383	5,298
생활밀착형 일자리	• 문화예술기관 야간개장 운영인력	103	823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07	1,950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59	2,400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	7	55
	• 공공도서관·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7	70
	소 계	145	1,031
문화재 관리 일자리	• 문화재 종합관리체계구축(문화재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인력 지원)	55	828
	•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90	203
	소 계	145	1,031

과제별 성과

02

콘텐츠분야

킬리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배 경

- 기획이 우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정,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 성공사례 창출

추진내용

- 미국, 중국 등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 지원
 - ※ 1차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파생콘텐츠의 제작과 마케팅 등 콘텐츠 전 과정에 걸쳐 제작, 마케팅, 투자유치, 현지화 등 일괄 지원
 - ※ 프로젝트 당 최대 12억원 이내의 제작비 지원

추진성과

- 3년간('08 ~ '10년) 총 8개 프로젝트 총 68억원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2편, 영화 3편, 방송 1편, 게임 1편, 공연 1편)
-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흥행실적
 - ※ '무적자' 추석박스오피스 1위(총 165만명),
'더 라스트갯파더' 개봉주 박스오피스 1위(300만 이상 집객 중),
'성균관스캔들' 시청률(13.2%) 및 OST 10만장판매,
'브루미즈' EBS 시청률 1위(3.2%)
- 1차 사업 제작완료에 따른 성공적인 글로벌시장 진출
 - ※ '성균관스캔들' 400만달러(일본), '무적자' 25만달러(동남아 8개국), 일본 개봉('11.2월),
'텔레시네마' 5.8억엔(일본) 105만달러(동남아)
 - ※ '테라' 글로벌 시장 진출(북미, 유럽, 일본, 중국) / '11.1월 오픈

배 경

- 콘텐츠 관련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 저작권산업 도약을 이끄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추진내용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C사업단 + 문화콘텐츠재단 → 한국콘텐츠진흥원출범('09.5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09.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초대 원장 임명('09.4월)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09.7.23)

추진성과

- 장르별로 분리되어 있던 콘텐츠진흥기관을 통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선진화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
- 콘텐츠산업 성장단계, 융합 환경 및 세계시장 진출확대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제로 개선
- 글로벌 콘텐츠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융합콘텐츠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 저작권 이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법정부 정책추진체계 조성을 위한「콘텐츠산업 진흥법」마련

배 경

- 콘텐츠 일원화 후속조치 및 콘텐츠 산업을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 필요
 - ※ 舊 정통부에서 이관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콘텐츠산업기본법으로 확대

주요 내용

- ▷ 법률 명칭 변경 :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
-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제5조)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조성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 콘텐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기본계획 수립
-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제6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 위원 : 7개 부처 차관)를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11개 부처 장관)로 변경, 법정부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9조~제36조)
 -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 설치

추진성과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
 - ※ 법 제정(6.10), 시행령(12.10) · 시행규칙(12.13) 공포

배 경

- 콘텐츠 업체의 99%가 영세기업으로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 금융 제도에서 콘텐츠업체의 금융권 대출 어려움
 - 금융권에서 콘텐츠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조업 중심의 평가 모형으로 콘텐츠업체 평가
 - ※ 소기업 93.8%, 중기업 6.1%, 대기업은 0.1%
- 콘텐츠의 완성을 완성보증사가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모형 개발을 통해 콘텐츠업체에 자금 유입 도모

추진내용

- 완성보증제도 시행 및 콘텐츠 가치평가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09.9.7, 문화부, 콘진원,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및 완성보증제도 본격 시행('09.10월 ~)
- 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5개 분야에 대한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개발 ('09.10 ~ '10.6월)
 - ※ 기존 기업평가 중심에서 콘텐츠경쟁력, 가치창출 등 콘텐츠 성공가능성을 주요 지표로 선정 하여 프로젝트 기반 평가 가능성 확보

추진성과

- 24개 프로젝트에 207.23억원 완성보증('10.12월 현재)
- 완성보증 지원 시 콘텐츠가치평가 모델 연계 활용('10.11월 ~)

모태펀드 등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배 경

- 한류열풍, 3D·스마트기술 발달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 및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 증대
- 콘텐츠산업의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특성으로 콘텐츠에 대한 민간투자 미흡, 모태펀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융자 확대 기반 마련

추진내용

- ▷ 모태펀드에 총 2,700억원 출자('06년 500억, '07년 1,000억, '09년 1,200억원)
 -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문화산업 투자를 위한 자조합에 출자
- ▷ 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10.1월)
 - ※ 중점지원분야 추가(CG·3D추가) 및 출자상한 확대(중점 40% → 50%, 일반 30% → 40%), 의무투자비율 강화(최소 60% → 80%, 결성일로부터 2년내 50%이상 투자)
- ▷ 총 944.5억원 규모의 중형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09.2 / 5 / 11월, 총 3개)
- ▷ 모태펀드 영화계정 설치로 영상전문투자조합 투자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추진성과

- '10.11월 기준으로 총 5,813억원의 자조합이 결성(모태출자 : 1,954억원, 투자승수 : 2.97배)되어 4,130억원이 투자됨
 - ※ 분야별로는 영화(48.0%), 게임(16.6%), 공연(13.4%) 등
- 적극적인 투자로 '10년 상반기 문화계정 당기순익 흑자전환(12억원), 타계정(중진계정 등)대비 투자실적 증가
 - ※ 해운대(수익률 40%), 국가대표(100%), 과속스캔들(270%), 아저씨(90~100%), 의형제(65~70%) 등에서 높은 수익률 달성
- 영화발전기금 출자 투자조합 최근 5년 내 최고 투자실적 달성
 - ※ 투자 금액 / 편수 증가 : ('09년) 394.5억 / 53편 → ('10년) 639.9억 / 69편
 - ※ 촬영개시 전 단계 작품(High Risk)에 193.2억원(총 30편) 투자

배 경

- 새로운 융합형 콘텐츠의 수요 증가와 누구나 쉽게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창의성 있는 개인 창업의 본격화
-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활용,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이 콘텐츠산업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부상

추진내용

▷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발굴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정착 지원

- 아이디어 발굴부터 콘텐츠제작, 컨설팅, 지식재산권확보, 홍보마케팅 등의 통합지원(One-stop service) 및 콘텐츠 특화창업교육
- '콘텐츠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 인큐베이팅 및 입주공간 지원

추진성과

- 통합지원확대('09년 37개 → '10년 56개 과제) 및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성공사례전 개최('10.12월)를 통해 콘텐츠분야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확산

게임수출 활성화 지원

배 경

- 온라인게임 및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급변하는 세계게임시장에 대응한 지속 성장에 한계
- 다중플랫폼 게임개발과 글로벌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적극적인 게임산업 지원정책 필요

추진내용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관련 MS코리아와 업무협력 MOU 체결(’08.5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설립·운영’관련 경기도, 성남시와 업무협력 MOU 체결(’09.4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개소식 개최(’09.6월)
- 게임수출진흥사업 추진(’08 ~ ’10년)

추진성과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국내 게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MS와 협력하여 게임개발 SW 현물 제공(’12년까지 230억원 상당지원)
- 차세대게임 개발 중소기업 인큐베이션(109개사)
- 차세대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지원(24건)
- 차세대게임 전문인력 양성(1,801명)
- 온라인게임 해외서비스 및 테스트 인프라 지원(52개사)
※ 수혜기업의 해외수출실적 : 2억 8,841만달러(’08 ~ ’10년)

▷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전문적 수출마케팅지원(414개사)으로 국내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 증대

-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수출상담회 개최(18회)
- 수출상담 매칭(3,540건), 수출상담액(7억 1,177만달러)

배 경

- 컴퓨터그래픽(CG) 분야는 영상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등 경쟁국은 제작비 환급 등 CG산업을 전폭 지원
- 국내 CG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 기반 조성

추진내용

- ▷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내외 CG 프로젝트 전략 지원
- 해외 프로젝트 : CG제작비의 20%, 최대 12억원('10년 기준)
- 국내 프로젝트 : CG제작비의 20%, 최대 4억원('10년 기준)

추진성과

- ▷ '10년 CG 콘텐츠 해외수주 300억(추정), 전년(약 190억) 대비 약 57% 증가
- 국가대표, 전우치, 미래경찰, 적인걸 등 13건, 48.9억원 지원('09년)
- 울프 2060, 천녀유혼, 가비 등 13건, 47.4억원 지원('10년)

융합형콘텐츠의 핵심분야인 '가상현실' 과제 발굴·지원

배 경

- 새로운 기기 환경에 맞는 콘텐츠 발굴 지원으로 제조업 및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추진내용

-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총사업비의 50~75% 이내 최대 12억원('10년 기준)

추진성과

- ▷ 가상 도시골프, 가상 의상 콘텐츠 등 6개 과제 총 39억원 지원('09년)
- ▷ 디지털 태권 등 5개 과제, 총 30.1억원 지원('10년)
- 스크린 골프 제작업체인 '골프존'은 '10년 매출액 2천억원을 달성,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관련 분야 1만5천명 고용창출을 선도

배 경

- 디지털 융합의 진전에 따른 문화기술 R&D 수요 급증, 기술수준이 콘텐츠의 완성도와 흥행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차세대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T R&D 대폭 투자확대 필요
(국가 R&D 총 투자액 중 CT 분야 0.5%(10년)에 불과)

추진내용

- 차세대 게임, CG · 3D 영상, 가상현실 등 융합형 콘텐츠 기술개발 /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 지원 / '대학 내 문화기술연구소' 육성지원,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지정 운영

추진성과

- ▷ **문화기술 R&D 예산 대폭 확대('11년 예산 '07년 대비 447% 증가)**
 - '07년 139억원 → '08년 404억원 → '09년 630억원 → '10년 726억원 → '11년 761억원
- ▷ **문화기술 R&D의 주요 국가정책에 반영 등 중요성 확산**
 - 국가 17대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
- ▷ **CT R&D 적극 추진으로 CG, U러닝 등 일부 기술 세계적 수준에 근접**
 - CG기술, 게임 인공지능 기술 등 국산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 ※ 영화괴물제작사('07년)외국기술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자체 제작가능수준, 온라인캐주얼게임 엔진을 적용한 '판타테니스' 7개국 배급계약(47개국 서비스), 실감형 u-러닝 기술 적용 콘텐츠 '현대영어사' 전국 지점에 서비스 등
- ▷ **R&D기획 및 문화기술PD를 문화부 직속으로 전환하여 R&D 기획기능을 강화하고('10.3월), 문화기술 R&D 성과제고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 R&D 혁신방안' 마련**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발전전략 수립

배 경

▷ '09년 정부 17대 신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 지정

- 세계 8위 수준의 산업 규모에 비해, 자본 · 기술 · 인프라가 미흡하고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범국가 아젠더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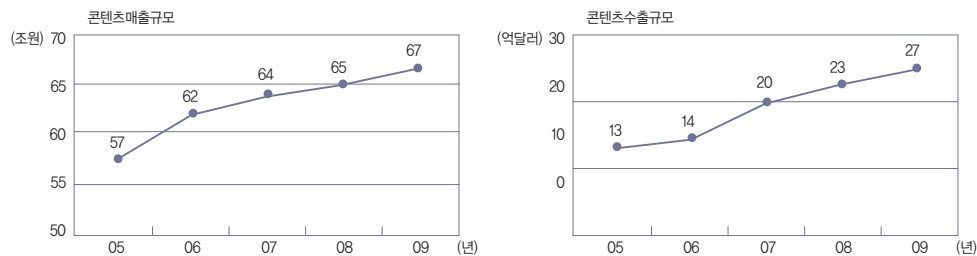
추진내용

-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아시아 CG 생산 기지화, 1인 창조기업 육성, 이야기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확대,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성과

- 콘텐츠 시장(매출)규모는 '07년 64조 → '09년 67조로 4.7% 성장
 - 특히 수출 분야는 게임을 중심으로 '07 대비 '09년 35% 증가
- ※ 사회 전반의 실업률 증가 속에서도 '08 ~ '09년간 1.6만명 고용창출

〈최근 5년간 콘텐츠 매출규모, 수출규모 증가추이〉



- 콘텐츠산업 자금조달 해소를 위한 글로벌 펀드(2,000억원 규모)조성
- 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발족('10.11월) 및 생태계 프로젝트 착수
- 스토리 창작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원스톱 가치사슬별 지원('10.7월)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립('09.11월) → 창업교육, 지원사업 실시
-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 확대('08년 404억원 → '11년 776억원, 92% ↑)

배 경

- 하나의 스토리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만드는 OSMU의 확산으로 원천 스토리 자체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됨
- 신성장동력으로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작기반 지원은 미약함

추진내용

- 스토리 창작저변 확대를 위한 창작센터 개소('10.7.1 / 방송회관 13층)
 - ※ 프로젝트룸(8실 31석) · 세미나실, · 자료실 등 공동 창작 공간 마련
 - ※ 콘텐츠 창의 워크숍(스토리텔링 2015) 등 창작교육 운영
- 최대 규모의 스토리 공모전 개최를 통한 글로벌 스토리 발굴 및 완성화 지원
- 5개지역 스토리텔링 클럽 발굴(10개), 지역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100명), 희망과 긍정의 스토리 발굴(10편)

추진성과

- 공모전을 통한 글로벌 스토리 발굴 및 체계적인 제작지원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창출

- 불꽃 : 중국 제작사와 드라마 공동 제작 계약 체결 및 CJ엔터테인먼트와 영화로 개발 중
- 한국의 정신, 꽃담 : 인디컴미디어와 제작 계약, TV다큐멘터리 제작 착수
- 금녀의 집 : 이영재 감독이 시나리오 각색에 참여, 영화 제작 추진
- '귀신 고래', '조선 최초의 코끼리, 코리', '리얼 주주' 등 3D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개발 예정

영화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배 경

-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추진

추진내용

- 부가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영화단체 간담회('08.3.24)
- 영화계 현안(수출급락, 부가시장 붕괴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 주최('08.3.27)
-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쇼케이스, 공동제작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진출 관련 프로듀서 및 제작자 간담회('08.4.14)
- 한국영화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영화인 자문간담회('08.9.30)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간담회('08.12.30)
- 영화진흥정책 수립 위한 대토론회 개최('09.1.20 / 21, 2회)
- 영화인총연합회 등 영화단체 방문 간담회('09.9월, 6개 단체)
- 3D 산업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09.11.12)
- 한국예술영화관협회 간담회('09.11.19)
-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간담회('09.12.2)
- 상영관련 현안 해결 방안 위한 대표자급 자문회의('10.1.29)
- 한국영화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 포럼('10.8.18 ~ 19)
-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영화인 대토론회('10.9.1 / 9.14, 2회)
- 한국영화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위한 영화계 간담회('10.11.4)
-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방식 관련 영화계 의견수렴('10.12.17)

추진성과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수립 및 예산 반영
 - ※ 기획개발 에이전시(30억) 등 기획개발 부문 신규사업 추진
 - ※ 온라인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사업 추진
- 부가시장 합리화 정책안 마련 및 활용
 - ※ 판권계약방식, 상생비즈니스 모델 등 제시
- 영화스태프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영화산업협력위원회내 임금 체불 중재기구 설립 추진 및 제작지원금의 인건비 쿠퍼제(25%) 도입
-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 재추진을 통한 다양성영화 유통 활성화 도모

- 3D 입체영화에 대한 사업예산 확대: ('09년) 8.5억 → ('10년) 16억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방식 개편(90% 선지급 후 10% 인센티브 차등지원)으로 예술영화 상영기회 확대 유도
- 투자부문의 원활한 자금 흐름 지원 및 자본조달 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출지급보증제도 기획
- 표준 투자 · 상영 · 근로 계약서 완료
- 제작자본 조달 다변화 위한 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40억)
- 기획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 육성 필요성 확인으로 시나리오마켓 및 기획개발 지원사업 재반영 검토
- 3D 분야 등 해외선진기술 습득 위한 기술교육 지원 추진
- 국제공동제작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공동제작지원단 구성
 - ※ 해외 로케이션 유치 위한 관광기금(30억) 유치 및 세부계획 수립
(지원대상 결정,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 출자법인 제외 등)

대중문화예술인 자긍심 고취

배 경

-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산업적으로는 불합리한 거래 환경 등 미성숙한 실정
- 청소년연예인의 성보호,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정부 포상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추진내용

▷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포상 개선

-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미흡했던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별도 독립 시상 및 공공기관 주관으로 추진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대중음악 분야의 실연 환경 개선 및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

추진성과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위상 제고

- 대중문화예술인의 날 선포(11월 4째주 월요일) 및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제정, 정부 포상 확대(문화훈장 등 32명 포상)

▷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확충(11년 상반기 개관 예정)

- 올림픽홀 리모델링 연계, 대공연장 및 인디뮤지션 공연장 등

▷ 연예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기획업 등록제,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설립, 기획사 수익분배율 조사, 청소년연예인 인권보호 강화 등 검토

과제별 성과 03

저작권분야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저작권제도 정비

배 경

-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반·영상물 등의 시장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 ※ 이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

추진내용

-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해비업로더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및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정 정지 및 게시판 정지 등을 명령
 -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심의시 불법복제물의 양 및 성격, 이용자 수, 불법복제물 게시로 인한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삭제·전송 중단 권고 등 시정권고권 부여

추진성과

-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됴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
 - ※ 해비업로더 11개 '계정정지' 명령('10.11월)
 - ※ 시정권고 109,479건, 삭제 등 명령 750건, 과태료 부과 257개 업체

배 경

- '08년까지 매년 美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통상압력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추진내용

-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강력한 단속 추진('08.9.16)
 - 전국 4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특사경 지역사무소 설치(29명)
 - 저작권 침해사범 검찰송치('09년 312명, '10년 539명)
-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을 도입 · 시행('09.4.22 저작권법 개정)
 - 프랑스의 소위 '삼진 아웃제'와 더불어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 해외의 관심 집중
 - 저작권법 개정 이후 '10.3.11 최초로 경고명령 등 집행, '10.11.8 세계 최초로 불법복제물 업로더에 대한 계정정지명령 집행(계정정지명령 11건 포함 총 750건)

추진성과

- ▷ 우리나라의 저작권보호 의지를 높이 평가하여 '08년 및 '09년 2년 연속으로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탈피
- ▷ 국내 SW 불법복제율의 지속적인 감소
 -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05년 46% → '07년 43% → '09년 41%)
 - '09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복제율(41%)이 세계 평균(43%) 이하로 낮아지는 성과 창출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

배 경

- 온라인의 빠른 발달, 다양한 매체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등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간의 갈등 발생 소지 증가

추진내용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예방과 공동의 이익 도모
-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해 상생(Win-Win) 해법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거시적 협력방안 도출

추진성과

-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대표로 상생협의체를 구성 · 운영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상생의 바탕을 마련
-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10.12월)
 - ※ 인터넷과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
 - ※ 일반국민들이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저작권 이용, 새로운 저작물 창작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한 갈등 예방
- ‘기술 조치 등 가이드라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 중

배 경

- 저작권 주무부처 주관 불법복제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100대 국정과제인「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의 성공적 추진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정부의 불법복제물 근절의지 대외적 표명

추진내용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운영('08.9.16)

- 전국 4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특사경 지역사무소 설치(29명)

▷ 저작권 침해사범 사법처리 강화

- 저작권 침해 방조 웹하드 32개('09년 14개, '10년 18개) 검찰송치
- 불법복제물 상습적 해비업로더 409명('09년 200명, '10년 209명) 검찰송치
※ 웹하드 대표자 및 해비업로더의 범죄수익금 몰수 · 추징 추진(26명, 61억 원)
- 오프라인상 저작권 침해자 442명('09년 112명, '10년 330명) 검찰송치

▷ 시기별 · 계기별 균형있는 불법복제물 단속

- 서울클린 100일프로젝트, 대학가 불법복사 집중단속, 불법게임물 특별단속, 불법SW 상시단속 실시
- '09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영화 '해운대' 유출사건에 대한 조기대응으로 피해확산 사전 차단

추진성과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및 단속강화는 2년 연속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탈피에 많은 기여
- 합법콘텐츠 유통 웹하드 증가 및 합법시장 침해규모 감소
('08년 2조 4,235억원 → '09년 2조 2,497억원)
- 국내 SW 불법복제율 지속적 감소('05년 46% → '07년 43% → '09년 41%)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강화

배 경

- '06년 불법복제에 따른 시장침해 규모 중 95%가 온라인상에서 발생
- 美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키면서 웹하드 등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의 심각성 적시

추진내용

▷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

- 음악('09년) 및 영상('10년)분야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구축 및 본격 가동('09년 664만점, '10년 473만점 적발)
- ※ 게임·어문분야는 '10.12월 구축완료, '11년 본격 가동 중

▷ 모니터링 요원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여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 모니터링 강화('09년 35명 → '10년(2월) 26명 → '10년(11월) 66명)

- 특히, '10.11월 증원한 모니터링 요원 40명 전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

▷ 저작권 포렌식시스템 구축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포렌식기법을 특사경 수사에 도입('10.10월)
- 특사경의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지원(91건)

추진성과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로 적발 수량 증가('09년 2,709만 점 → '10년 3,440만 점)
-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한 미국 등에서 많은 관심 표명 및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

배 경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합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 활성화가 필요한 바, 창작에 활용할 저작물 공급 확대 필요

추진내용

-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및 활성화
- ▷ 저작권 거래안전을 위한 저작권인증제도 운영기반 마련
-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추진성과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개시('08.5월) 및 저작권통합관리정보 159만건 구축
- 저작권인증제도 운영지침 마련('10.11월)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 발표('10.7월)
- 정부·공공기관 보유 저작물(공공저작물)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관리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10.12월 고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등 교육·홍보활동 강화

배 경

-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해 예방차원의 저작권 교육 및 홍보는 미미한 수준임
- 분야별 온라인 저작권 교육 과정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저작권 의식 제고 필요

추진내용

- ▷ **저작권 침해사범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확대 운영(150회, 11,417명)**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초범에 대한 고소장 각하제도 운영('09.3.1 ~ '11.2.28)
- ▷ **교육수요 급증에 따른 온·오프라인 저작권 인프라 구축**
 - 저작권 교육원 구축 및 개원('09.4월),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09.12월)
 -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운영('10년 20회 운영, 총 1,036명)
- ▷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2,622회 / 353,505명)**
- ▷ **청소년 대상 저작권 홍보 강화 및 대중 친화적 홍보사업 추진**
 - 퀴즈대회 및 지하철 모니터방송(1개월) 등을 통한 개정저작권법('09.4.22) 홍보 및 청소년 대상 교육드라마 방영
 - ※ 청소년 저작권 드라마(3종), 애니메이션(4종)개발 및 DVD 제작 보급 등
 - 공중파 TV 및 뉴미디어(스마트폰 등)를 통한 저작권 콘텐츠 보급
 - ※ 저작권 소재를 반영한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등 공중파 TV방송 송출

추진성과

-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하에 기소를 유예 하는 제도 도입('08.7월) : '묻지마 고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완화
-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저작권 침해사범 감소
 - ※ 저작권교육 수혜자 확대 : '08년 47,192명 → '10년 353,505명
 - ※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사범 대폭 감소 : '08년 21,934명 → '10.11월 3,287명

과제별 성과 04

미디어분야

신문법 등 개정, 신문의 방송 진입규제 완화

배 경

-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규정을 정비
 - ※ 위헌 :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넓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배제(신문법 제34조제2항제2호)
 - ※ 헌법 불합치 :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신문법 제15조제3항)
-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추진내용 : 신문법 개정(09.7.22 국회 통과)

-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사업자간 상호 겸영금지 삭제
 - 뉴스콘텐츠의 다각적 활용,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칸막이식 규제 완화
 - ※ 신문의 방송진입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에 규정할 사항
- ▷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동일 업종 주식 및 지분의 2분의 1이상 취득 금지 삭제(헌법불합치)
- ▷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하여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특수일간신문과 객관적 사실중심으로 뉴스보급을 하는 뉴스통신에 대기업 참여 제한 폐지

추진성과

- 4개 일간신문사(조선 / 중앙 / 동아 / 매경)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 연합뉴스(뉴스통신신사)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배 경

- 언론지원기구의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통폐합 및 기능 조정 등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필요
-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체계적인 지원전략 마련을 위해 신문지원기구 통합 필요

추진내용

- 신문법 개정('09.7.22)으로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 출범('09.8.31)
- 기존 3개 단체(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발위) 해체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등기('09.12.28) 등을 통해 언론진흥재단 공식 출범('10.2.1)

추진성과

- ▷ 언론지원 3개 기관 통합을 통한 유사·중복기능 조정
 - 舊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3개기관 컨설팅을 통한 업무 및 역할 재조정
 - NIE 지원 사업, 신문사 정보화 지원 사업 등 유사업무 통폐합
- ▷ 미디어환경 변화 분석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진흥기구 역할 정립
 - 뉴스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읽기문화 진흥 등 핵심사업 집중 지원
- ▷ 조직 및 인력의 슬림화·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선진화 도모
 - 부서축소(29개 부서 → 24개 부서), 정원축소(159명 → 139명)

뉴스콘텐츠 생산·유통의 디지털화 추진

배 경

- IT기술 발달에 따른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 출현에 대응한 신문사의 첨단편집제작시스템 필요
- 다양한 뉴미디어 뉴스 유통을 위한 뉴스ML 제작·유통 시스템 구축 미흡

추진내용

- ▷ 뉴스유통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뉴스ML 기반 시스템 구축 지원
 - 총 11개사 시스템 구축 지원(762백만원, 1사당 최대 1억원 / 매칭펀드)
- ▷ 뉴스 제작환경 선진화를 위한 통합뉴스룸 공용 S/W 개발
 - 온·오프라인 통합 기사 제작, 멀티미디어 편집, 웹 데스크 등이 가능한 신문사 공용 첨단편집 제작시스템 개발(682백만원)
 - 총 9개사 통합뉴스룸 S/W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지원(450백만원, 1사당 최대 50백만원)
- ▷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가공, 유통 공용 인프라 구축·운영(610백만원)

추진성과

- 뉴스콘텐츠 표준화를 통해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뉴스 유통 인프라 구축 및 뉴스콘텐츠 상품성 향상
-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신문제작 S/W의 공용 개발을 통해 투자비용 절약 등 언론사의 신문제작환경 지원

배 경

- 공공부문에서의 뉴스 콘텐츠 유료 이용활성화를 통해 향후 기업, 개인 등 민간영역까지 저작권 보호 인식 확산 도모 필요
-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뉴스 콘텐츠의 유통 질서 정상화

추진내용

- 2010년 국정추진주요과제로 “뉴스 콘텐츠 유료화 환경 조성” 설정
- 2010년 3월 “국가기관용 뉴스 이용 시스템” 개발 완료
- 정부부처 뉴스 이용 수요 조사 실시('09.6.23)
- 2011년 국가기관 뉴스 이용 예산 편성(24억원)
- 48개 국가기관별 뉴스 이용 계약 협의

추진성과

-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중인 각종 뉴스 콘텐츠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뉴스정보 이용에 기여
- 뉴스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민간부문으로의 뉴스 저작물 이용 활성화 토대 마련

〈참고 - 뉴스 유료화 이용 확대 시 시장규모〉

구매처	44개 정부부처	입법/사법/지자체/ 공공기관 50%	입법/사법/지자체/ 공공기관 100%
매출액	48.4억	196.1억	392.2억
저작권료 (매출액대비)	33.9억(70%)	166.7억(85%)	353.0억(90%)

※ 입법부(1개) / 사법부(25개), 지자체(16개), 교육지자체(16개) / 공기업 및 공공기관(297개)

※ 기관당 연간 약 1억1천만원 기준(매체당 월 42만원, 20개 매체 기준)

※ 언론재단의 공동 상품 구성 및 운영에 의해 판매액 대비 저작권료 비율 확대 가능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배 경

- 인프라, 인력 등이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되어 있고, 독립제작사는 영세하여 대부분 자체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방송사 의존도 심함

추진내용

▷ HD드라마타운 조성(대전)

- 장기간 드라마 촬영이 가능한 전천후 대규모 스튜디오(1,500 ~ 500평)가 구비된 드라마 전용 제작단지('11 ~ '14년, 885억원)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일산)

-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송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제작시설('10 ~ '12년, 2,281억원)
※ 문화부·방통위 공동사업 : 문화부 1,172억원, 방통위 1,109억원 부담

▷ 기존 제작시설의 디지털화, 3D화

- 방송회관(목동) 제작인프라를 HD급으로 전환('09 ~ '12년, 80억원)
- DMS(상암동)에 3D 제작스튜디오 시스템 구축('11년, 40억원)

기대효과

-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2012년 구축완료시 2013년부터 콘텐츠 제작, 송출, 유통 관련 집적 시설을 통한 HD 콘텐츠 제작비용 절감 및 HD 방송콘텐츠 연간 7,364 시간 제작 증가 기대
※ 비용절감 비율(%) : 제작(12.7%), 송출(14.9%), 유통(16.0%)
- (HD드라마타운)집적화된 HD 드라마타운 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콘텐츠 제작비용 연간 21.47억원 절감이 예상되며, 시설이용에 따른 편익,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 관광객 유치에 따른 편익 등 2015 ~ 2044년 까지 발생하는 편익 5,463억원 추정

배 경

- 국제 견본시 참가 지원 및 국내 개최를 통해 방송영상 수출 지원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수출용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및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교류 강화

추진내용

-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 및 프랑스 칸느 MIP-TV, 중국 상해 STVF 등 주요 국제견본시 참가 지원으로 한국의 우수 방송영상물의 해외비즈니스 기회 제공 및 수출기반 확대
 - 상·하반기 아시아 최대의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서울, 부산)로 한국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입지 확대 기여
 - ※ 매년 약 45개국, 196개사 참석 및 25백만불의 판매실적 달성(서울, 3개년 평균)
- ▷ (신시장 판로개척 등 한류확산 기반 조성) 중남미 시장 등 전략 시장 진출을 위한 방송콘텐츠 현지화 사업 추진
 - 수출 가능한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지원(더빙, 자막, 음향분리 등)을 통해 해외 마케팅 지원
 - ※ '08~'10년, 총 93개사, 154개 작품 재제작 지원
- ▷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국가 간 쌍방향 교류 차원의 공동제작을 통해 해당국에 대한 이해 증진, 한국 이미지 고양 및 한류의 지속 확산 도모
 - '07년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총 50편의 방송콘텐츠 공동 제작

추진성과

- 대표적 녹색산업인 콘텐츠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큰 방송콘텐츠의 수출 증대에 기여
 - ※ 방송콘텐츠 수출액 : '07년 163백만달러, '08년 180백만달러, '09년 183백만달러
- 방송영상은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켜, 타 산업 전반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출판물의 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배 경

- 출판 내수시장 한계 극복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출판콘텐츠의 수출지원 필요
 - ※ 출판산업은 국내문화산업 시장의 36%를 차지하나, 해외진출 실적은 미미
 - ※ '09년 외국번역서의 비중이 전체 출판종수의 27.6%를 차지

추진내용

- 출판 전 분야에 대한 초록 및 샘플번역 지원, 해외 번역출판 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출판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정보지 발행, 출판정보 웹사이트 운영 등)

추진성과

- 저작권수출 활성화 도모 및 국내출판계의 저작권수출 인식 전환
- 한국도서 위상 제고 및 해외 주요출판사 한국도서 번역출간 사례 증가
- 온·오프라인 한국출판 정보제공으로 한국문학 해외 인지도 제고

〈사업추진 실적('08~'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초록·샘플번역 지원	800건	518건	1,074건
저작권수출 인센티브 지원	565건	1,187건	-
해외출판 지원	67종 133권	11개국 40개사	11개국 29개 출판사 67건
홍보·마케팅 지원	2건	13건 8개국 12개사	해외도서전(4회), 마케팅지원(5건)
정보 제공(외국어 정보지 발간, 웹사이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간지(연간 4회 발행), 격주간 온라인 뉴스레터(연간 26회 발행) 웹사이트 운영(출판관련 정보, 저작권수출현황, 도서전 정보, 웹진 운영 등) 		



과제별 성과

05

관광분야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배 경

-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각 국의 지원과 경쟁 강화
- 적극적 외래관광객 유치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 전략적 관광시장 선점 및 관광수지 개선 필요

추진내용

▷ 관광진흥기능 민간주도로 개편

- 관광공사 기능개편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의 민간 참여 확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관광산업 세제 · 부담금 완화, 규제완화 관련 법령 개정

▷ 해외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용 심사대 설치 운영, 외래관광객 출입국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체계 개선
- 외래관광객 편의제고를 위한 관광통역안내소 및 관광안내체계 운영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인 회의전시(MICE)산업, 의료관광 및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추진성과

- 관광산업에 대한 수출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
- 외국인 관광객 유치 1천만명 시대 실현
 - ※ 홍보마케팅, 외래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08년 650만 → '10년 879만)
- 관광산업을 고수익 구조로 전환
 - ※ 신성장동력산업인 회의전시(MICE)산업,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

배 경

- ▷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대폭적 성장세 지속
 - UNWTO는 202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을 1억 명(세계 4위)으로 추정
- ▷ 세계 제일의 관광소비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 2008년 중국인의 국외여행 지출은 362억 달러(잠정)로 세계 5위
※ 152억불('03년) → 218억불('05년) → 298억불('07년) → 420억불('09년)
- ▷ 일본 등 주변 경쟁국의 적극적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
 - 중국 비자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대폭 늘어날 예정인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방한 유치 확대 시급

추진내용

- ▷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확대 및 입국절차 개선 등('08.4.21)
 -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한국 취향 정기노선 임직원, 국제적 통용 신용카드 소지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
 - 의료관광 목적 입국자 대상 G-1비자(90일~1년) 발급 허용
 -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입국절차 개선(영사확인절차: 15일 → 3일로 단축)
- ▷ 중국 개별관광객 비자발급서류 대폭(7종 → 2종) 간소화('09.7.15)
- ▷ 중국중산층 유치 확대를 위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등('10.8.1)
 - 복수비자 발급대상(교수, 은퇴 후 연금수령자, 500대 기업 임·직원 등 추가) 및 가족 인정 범위(배우자·자녀 → 부모·배우자 부모로 확대)
 - 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추진성과

- 중국관광객 대폭 증대로 외래관광객 유치 800만 시대 개막
※ '08년 117만명 → '09년 134만명 → '10년 190만명(예상)

숙박시설 확충 종합대책 마련

배 경

- 국내 관광호텔은 약 690개 74,900실로 서울지역은 약 14,000여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외래관광객 1천만명 방한시 약 16,500여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호텔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서울지역의 높은 토지 매입비 등 관광호텔 건립 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민간투자가 저조함

추진내용

-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10.7 ~ 9월)
-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수립 및 발표('10.1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등 5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1년 ~)
- 서울지역 내 원활한 관광숙박 토지공급 여건 조성('11년 ~)

추진성과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토지공급 여건 조성 및 인센티브 강화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대책 강구

배 경

- MICE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 미래 한국을 이끌 17대 신성장동력 엔진으로 MICE산업 선정(09.1월), 중점 육성 추진

추진내용

- G20 정상회의 계기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 등을 마련, 2015년 국제회의 참관객 100만명 목표로 추진방향 설정('10.6월)
- 인센티브 관광·국제회의 등 유치 및 개최 지원, MICE 정보통계 등 산업기반 강화 및 전략적 마케팅 활성화

추진성과

▷ 대형 인센티브 관광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

- '11년 중국바오젠인센티브관광(1만~1만5천명), 동아시아허벌라이프유니버시티(8천~1만여명), 독일 여행업협회 총회(1천명) 등 유치
- T.20 관광장관회의('10.10월) 개최 및 UNWTO 총회('11.10월) 유치

▷ MICE 관련 법·제도 개선

▷ MICE 관련 협력 체계 구축 및 마케팅 활성화

- 회의·전시, 호텔·항공·쇼핑 등 관련 업계로 구성된 'MICE 육성협의회' 발족('09.12월) 및 운영
- 한국 MICE 산업전 개최('10.11.23 ~ 25, 코엑스 / '대한민국 전시산업전' 연계)

▷ MICE 정보·통계·인력 등 산업 기반 강화

- 통계·시장 현황, 연구자료 및 지원 사업 정보 등 일괄 제공(MICE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10.7월)
- MICE 인력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실시(고위관리자, 종사자, 신규자)

국내관광 활성화

배 경

- 대한민국 각 지역의 관광매력을 광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내국인 해외여행수요 국내전환 유도 및 국내 관광 활성화 도모
- 다양한 국내관광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국민의 여행욕구 충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내용

- 국내관광 활성화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 시즌별 집중 홍보 실시
-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 연계 공식 여행사 5곳 지정(’08.10월) 및 우수 여행상품(’09년 58개, ’10년 29개) 중점 발굴·육성
- 국내여행사의 우수여행상품 선정(’09년 89개, ’10년 40개) 및 정보 제공
- 지자체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지자체 수용태세 시범평가(’08년, 50개 지역 평가), 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표준모델 및 지표 개발(’09~’10년)·적용(15개 지역 평가), 실제 개선 유도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실시(’10~’11년초, 5개 지역 우선 실시)
- 교과부, 지역 교육청과 공동으로 국내수학여행 우수사례 공모, 전파
- 관광소외계층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기준안(Barrier Free) 마련 및 장애인 관광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10년)

추진성과

- 국내관광 활성화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 시즌별 집중 홍보 전개를 통한 내나라 관광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및 방문동기 부여, 실제 국내여행에 대한 행동 유발(’09~’10년 국내관광 의향도, 관심도 지속 증가)
 - ※ 광고접촉 후 국내관광에 대한 태도변화(%): ’08년 실적 65.9%(14%↑)→’09년 실적 73.4%(11%↑)
→ ’10년 목표 77.8%(’09년 실적치 대비 6%↑)

배 경

- 한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 UNWTO는 미래의 10대 관광행태 중 공연관광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관광 제시
- 공연 관람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

추진내용

- 한류스타를 활용한 스타마케팅으로 한류관광객 유치
- 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
- 공연관광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해외로드쇼 등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 공연 관련 국제 이벤트를 활용한 공연관광 활성화 확대 추진

추진성과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상품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
(’08년 2만 → ’09년 2만5천 → ’10년 3만5천)
- ’08년 외래 공연관광객 52만명 → ’10년 100만명 돌파
- 개별여행객(FIT) 대상 ‘공연 해외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세종벨트사업(서울시 공동)을 통한 예약 · 공연정보 제공
- 공연 해외 로드쇼 8개국 15진 실시 등 해외홍보마케팅 강화
- 매년 ‘R-16 비보이세계대회’ 및 ‘공연관광축제’ 개최 등

템플스테이의 세계화 및 확산 지원

배 경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부족한 숙박 문제 해결 및 국가이미지 홍보

추진내용 : 템플스테이 109개 사찰 지원

▷ 예산 지원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지원액	150	185	185	억원
지원사찰수	87	100	109	개소
참가자 수	113	141	165	천명

※ 2002년부터 시작, 2004년부터 정부지원 시작

▷ 템플스테이 시설 확충 지원

- 권역별 거점사찰('07년 1개소 → '10년 10개소)
- 전용시설 구축지원('07년 14개소 → '10년 75개소)
- 국제템플스테이센터(서울 신정동 소재, '07 ~ '09년, 총 190억원)

▷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발 · 보급

▷ 언론, 인쇄매체, 온라인 등 홍보 전략의 다각화

- 해외 언론 보도(CNN 등), 세계 주요박람회, 아리랑TV, 홍보 브로슈어 등

추진성과

-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 참가자 : '07년 대비 51% 증가('07년 82천명 → '10년 165천명)
 - ※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2009년, OECD보고서)

배 경

-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고용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레저산업의 적극 육성

추진내용

- 문화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마련
 - ※ 문화부 : 지역관광 으뜸명소 육성,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 쇼핑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품질 제고 등
 - ※ 법무부 : 중국시장에 대한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등

추진성과

-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국가고용전략회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정책여건 개선 및 도약의 밑거름 마련
 - 1~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08.3월, '08.12월, '09.11월), 국가고용전략회의('10.7월) 등
- ▷ 사상 최초로 외래 관광객 8백만명 시대 달성
 - '09년 외래관광객 782만명, '10년 879만명 달성
- ▷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 비자 절차 개선('10.8.1)
 - 중산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 ※교사, 은퇴 후 연금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등 복수비자 발급범위 확대
 - '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으뜸명소' 선정 사업 추진 중
 - 추천위원회 추천, 일반인 온라인평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으뜸명소 후보지 10개소 선정 ('10.12월)
 -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4개소 내외 선정('11년 1월말 예정)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추진

배 경

- 관광수지 적자 대응 및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한 민간주도 범국가적 관광 마케팅 필요

추진내용

- 차별화된 주제의 특별이벤트 개최 및 고품격 상품 개발
-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전개
- 외래관광객 유치 · 촉진 특별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 환대서비스 개선

- 일반국민, 청소년, 관광접점(출입국, 교통, 음식, 숙박, 쇼핑, 관광안내서비스) 등 대상별 글로벌 에티켓, 응대메뉴얼, 서비스메뉴얼 교육 및 인식 개선
- 환대캠페인 홍보단 ‘미소국가대표’ 운영(대학생, 일반인)

▷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 전개

- 입국 → 교통 → 숙박 → 쇼핑 → 출국 등 동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입국 유도
- (입국)공항 환대행사 (해외관광객 대상 웰컴Kit제공 및 홍보활동)
- (교통)개별여행자(FIT) 대상 셔틀버스 운영, 지방분산 유도 (전주, 경주, 강원 등)
- (숙박)One More Night (3박, 4박 + 추가 1박 인센티브 제공)
- (쇼핑)코리아그랜드세일 (11.1.10 ~ 2.28 / 쇼핑, 숙박, 식음료, 레저 등 14,000여 업체)

▷ 홍보 · 해외마케팅

- 한국방문의해 특별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 프로모션
- 해외 언론인, 여행업자 대상 FAM 투어
- 인바운드 박람회 개최(Korea International Travel Mart) 개최
- 개별여행객(FIT) 유치를 위한 해외 대표 온라인여행사와 공동 마케팅(일본, 중국, 미국 등)

배 경

-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의료관광 육성 추진
- 고부가가치 사업인 의료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추진내용

- 의료관광 홍보안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천공항, 관광공사 2개소 운영 / '11.2월 부산 개소 예정)
- 의료관광 해외 홍보마케팅 및 상품판촉 활동(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개최(9월, 부산) / 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11월, 서울) / '나눔의 의료관광'을 통한 해외 주요 언론 매체 홍보)
- 의료관광 수용여건 및 기반 구축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우수교육기관 시범평가 실시(3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론 책자 발간)
-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한방의료관광 용어집 및 교육교재 제작 /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개최('10.10월, 남산한옥마을 1,200명))

추진성과

-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 용어 정의, 관광기금 지원/'09.9월)
-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증가로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
('08년 2만7천 → '09년 6만 → '10년 8만5천)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배 경

- ▷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세계 주요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
 -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국제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08년)
- ▷ 관광산업은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녹색성장산업
 - 전 세계 관광산업의 CO₂ 배출량은 1,302백만톤(전세계 배출량의 5%)

추진내용

- ▷ 녹색관광 활성화 제도정비 및 기반 구축
- ▷ 녹색관광 매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상품개발
 -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10대 시범 모델 사업지 지정 및 컨설팅)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12년까지 1,200km 조성)
 - 한국 고유의 슬로시티 모델 개발 및 특화 관광상품 개발
 - 폐광 및 폐선로 등 유휴자원 관광 상품화
- ▷ 수변 관광자원 활성화
 - 4대강 수변 연계 관광문화권 개발 계획 수립
 - 명품 강변 관광코스 개발
- ▷ 기후변화 대응 명품 관광(단)지 및 관광도시 조성
 - 영암·해남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광레저도시 모델 조성
 - 새만금 녹색수변관광도시 개발
- ▷ 녹색관광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추진성과

▷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

-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선정(환경부 공동, '10.2월)
 - ※ 경남 창녕군 우포늪, 전남 순천시 순천만 등 10개 지역
- 시범지역별 특성화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및 생태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 강변 문화관광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10.3 ~ '11.1월)

- 지역발전 촉매역할 5개 선도 사업지 선정('10.7월, '11년도 시행)
 - ※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남한강), 녹색바이오 관광벨트 조성(금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벚길 조성(영산강), 신 나루문화지구 조성 · 대구 대니산 레포츠 밸리 조성(낙동강)
 - '12년부터 2차 선도사업(4개소) 추진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12년까지 1,200km 조성)

- 옛길, 4대강, DMZ, 동해안, 남해안권 등 우리 국토의 선형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테마가 흐르는 도보 중심의 여행길 구축
 - ※ '09년도 소백산자락길 등 8개소, '10년도 남해바래길 등 10개소

▷ 지역특화 녹색관광 상품 개발

- 슬로시티를 슬로라이프, 슬로푸드 지역으로 특화추진
 - ※ 신안(염전), 장흥(친환경농업), 담양(전통식품), 완도(섬), 하동(야생차) 등 지역 특성 및 전통 문화와 연계
- 유희자원(폐광, 폐선로 등)을 활용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녹색관광 상품 개발
 - ※ 폐광지역(영월 탄광문화촌, '09.10월, 삼척 산양촌 체험마을'10.12월), 폐선철로(춘천시 등 3개지역), 간이역(군산시 등 2개지역)

그랜드코리아레저 지분 매각

배 경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3차 발표('08.10.10), 민영화
- '08년부터 상장을 추진하여 '10년까지 49% 우선 매각

추진내용

- ▷ 대표 주관사(미래에셋증권)와 계약 체결('09.6.10)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공사지분 30%
- ▷ 잔여지분 19% 매각입찰 공고('10.11.19, 한국경제신문)

추진성과

- ▷ 1차 매각
 - 지분 30%, 공모가 12,000원 ('09.11.19)
 - ※ 매각대금 : 2,004억원
- ▷ 2차 매각
 - 지분 19%, 공모가 18,700원 ('10.12.10)
 - ※ 매각대금 : 2,190억원

과제별 성과 06

체육분야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배 경

- 일반학생들의 학교 내외에서의 체육활동 축소로 기초체력 저하, 전인적 성장 저해, 학교체육과 평생체육의 연계 약화 등 문제 발생
- 학교체육 진흥 등을 위한 문화부-교과부 MOU 체결('08.10.15)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확대 및 정례화, 학교체육 관련 대책의 공동 발표 등 양 부처간 협력 체계 강화

추진내용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08년 825명, '09년 887명, '10년 1,224명)
-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09년 146개교, '10년 102개교)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09년 25개교, '10년 27개교)
-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바우처 지원('09년 9,402명, '10년 13,900명)
- 문화부-교과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10.9.30)
※ 정규 체육교과 수업시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 활동 인프라 구축 등

추진성과

-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체육 수업시수 확보 및 교육과정 개선 등 체육수업 지원을 통해 균형 있고 재미있는 체육교육을 실시
-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계층과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야간 조명등, 스프링쿨러 설치 등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육활동 여건 마련

배 경

- 대회출전과 훈련으로 인한 정규수업 결손, 운동선수는 운동만 하면 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학생 선수의 학업성적 저하를 심화
- 운동 중도 포기 시 사회적응에 곤란을 겪게 되므로 학생선수들이 운동에만 매진하게 되어 성과 지상주의, 각종 운동계 비리로 연결

추진내용

- 초중고 및 대학 축구에 주말리그제를 도입하여 기존 토너먼트 방식을 리그제로 전환, 경기 시간을 주말 또는 방과 후에 개최하도록 조정('09년 ~)
 - ※ 지도자의 82.4%, 학부모의 81.9%가 리그제 도입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
 - ※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주요 효과로 인식
- 대학 농구, 고교아이스하키에 주말리그제 도입 확산, 대학배구, 고교야구의 주말리그제 도입 협의('10년)
- 최저학력기준 미달 선수에 대하여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도입하여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10년, 초·중·고 60개교)
 - ※ 제도의 정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선수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추진성과

-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동선수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의 계기 마련
- 연중 리그제 운영을 통하여 경기 경험 증대와 경기력 향상을 가능케 하여 엘리트 학생운동 선수 양성에 기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배 경

- 대학스포츠의 고질적 병폐인 수업 결손, 임의적 성적 부여 등의 문제와 체육특기자 입학 관련 각 중 비리 해결 등 합의('09.11.4, 대학농구리그 참여 11개 대학)
- 대학 간 운동 경기를 대학교육의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중인 미국대학체육협회(NCAA)에 비견 되는 한국형 대학스포츠 업무총괄 기구 필요성 대두

추진내용

- 학생선수 학사관리, 대학리그 경기운영 등 대학스포츠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학 총장간 협의체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창설('10.7.26, 법인 등기)
- 법인 설립 후 정착 시까지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 및 적극적 사업개발 유도

추진성과

- 대학선수 입시 개선, 체계적인 학사 관리와 경기 운영으로 공부와 학업을 병행하는 진정한 스포츠 인재 양성과 선진형 대학스포츠 발전의 토대 마련
- 우리나라 학제의 정점에 있는 대학스포츠의 관리·감독 기구를 설립하여 초중고 학교운동부를 선진화하고 입시비리 척결 등 공정사회 형성에 기여
- 대학스포츠를 브랜드화하고 수익사업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침체된 대학스포츠 부활 및 재정 자립의 구심점 형성

배 경

- 경기단체는 국가로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회계부정 및 조직운영의 문제점 상존
- 정례화된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를 통해 회계부정, 선거비리 및 분쟁, 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 부정 등 고질적 문제들을 척결하고 경기단체 선진화 필요성 제기

추진내용

- 평가대상 : 대한체육회 55개 가맹경기단체
- 평가 주관 : 체육과학연구원, 회계법인
- 평가단 구성 : 학계 8명, 체육과학연구원 3명, 체육회 2명, 회계법인
- 평가 지표 : 조직운영(단체장 리더십, 핵심사업의 윤리성), 재무관리
※ '10년 평가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6개 단체)

추진성과

- 경기단체의 조직운영 및 재무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 공감대 확산 및 제도 정비 노력 추진
※ 경기단체의 각종 비리로 파급된 체육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선진적 경기단체로의 체질 개선 도모
- '11년부터 경기단체에 대한 평가의 정례화로 체육분야 공정사회 실현 기반 마련

장애인문화 · 관광 · 체육 활성화 (장애인문화체육과 설치)

배 경

- 장애인 복지 중 체육분야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전담 조직 마련
- 문화부의 문화와 관광업무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내용

- '05.12.15 _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 신설
- '09.01.01 _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하여 장애인 문화업무 강화(장애인체육 + 장애인문화 업무)
- '09.05.04 _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 변경(정원 9명)
- '10.06.30 _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정원 10명)

추진성과

- 문화부 소관 장애인 정책 총괄 기능 수행
- 장애인 문화와 체육행정의 통합으로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
- 장애인 문화예술 신규사업 확대('07년 12억 → '11년 35억)
 - ※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국제미술교류전, 전국장애인합창제
 - ※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마련하여 장애인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체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제대회 상위 입상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에 기여
 - ※ '07년 5.4% → '10년 8.3%

배 경

- 장애인 대표선수 및 후보선수 훈련시설 마련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구축
-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시설로 활용

추진내용

▷ 설립 경과

- '07.6월 _ 시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 착공
- '09.8월 _ 시설진립 공사 완료
- '09.10.15 _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

▷ 시설 현황 : 부지 184.070㎡(55,680평), 건축면적 21,667㎡(6,554평)

시 설		규격(규모)
훈련장	• 제1체육관(삼성관)	• 농구코트 3면 크기
	• 제2체육관(실내수영장)	• 50m x 8레인
	• 제3체육관(테니스장)	• 테니스 코트 2면 크기
	• 제4체육관(개별종목실)	• 역도 · 펜싱 · 탁구 · 유도 · 골볼장
생활관		• 2인용 72실, 식당, 주방, 관리사무실
대운동장		• 육상장: 트랙, 투척 · 도약장
		• 축구장: 훈련용 잔디

▷ 건축비용 : 49,995백만원

추진성과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 장애인 체육지도자 교육, 각종 행사에 활용

구 분	합 계	훈련 · 행사	교육 · 강습	견학	지역행사	비 고
이용 건수	93	53	20	14	6	개원 이후 '10.12월까지
이용 인원	22,831	15,859	2,987	445	3,540	

장애인문화 · 관광 · 체육 활성화 (장애인 관광 지원)

배 경

- 장애인 관광을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
-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과 장애인관광코스 개발로 사회통합 지향
- 장애인관광버스 개조 사업지원으로 문화향수 기회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추진내용

▷ '09년 추진실적

- 1,009여명의 장애인에게 국내 단체여행 비용을 지원
 - ※ 복지관 등을 통해 단체 여행 신청,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 장애인 관광코스(20개코스) 발굴 및 책자(따뜻한 희망여행)발간('09.12월 발간), 장애인특장차(저상관광버스 지원: 60백원)

▷ '10년 추진실적

- 1,000여명의 장애인에게 국내 단체여행 비용 지원
 - ※ 복지관 등을 통해 단체 여행 신청,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Barrier-free 기준 마련 전파
- 장애인특장차(저상관광버스) 개조 지원(3대), 대당 60백만원 지원

추진성과

- 수혜 장애인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관광에서 가장 큰 제약요소 중 하나가 이동문제로, 저상버스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음 ('09년 1대 → '11년 3대)

배 경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공간 및 시설 조성
-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지도와 동호인 생활체육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녹색 성장 국가비전에 부합하는 범국민 스포츠로서의 자전거 생활 문화 정착

추진내용

-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 시설, 국민체육센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등)
- 지역생활체육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00년부터 시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녹색관광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에게 자전거축전 개최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성과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도모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연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인원 : 1,197명 • 활동실적 : 443,075회 / 11,138,943명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인원 : 345명 • 활동실적 : 165,585회 / 2,967,669명 지도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인원 : 1,453명 • 활동실적 : 781,488회 / 12,540,946명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인원 : 477명 • 활동실적 : 198,751회 / 3,701,092명 지도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인원 : 1,409명 • 활동실적 : 594,750회 / 11,911,965명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인원 : 491명 • 활동실적 : 233,235회 / 4,565,819명 지도

민간체육시설 규제 완화

배 경

-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내수진작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업의 규제 완화 필요
-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대 필요

추진내용

- 수질기준 1a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규정 폐지('08.2.29)
- 골프장 부지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 의무(40%이상) 폐지, 시·도 기준 총임야면적 대비 총골프장면적 비율 5%이내 제한폐지('08.6.20)
- 체육시설업소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 완화 또는 폐지('09.7.1)
- 고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체력단련당업·당구장업) 시설기준 2년간('09.7 ~ '11.6월) 한시적 유예('09.7.1)
-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관련 규제 완화('10.4.13)
 - ※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 등 신고체육시설업 전환 업종에 대하여 총투자비 범위 내 회원 모집 제한 규정 폐지
- 골프장(대중·회원제) 입지기준 완화('10.7.5)
 - ※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 입지 허용
 - ※ 특별대책지역 Ⅱ 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입지 허용

추진성과

- 골프장 입지기준 및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완화 등 체육시설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 민간 체육시설업 증감현황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업소수(개소)	45,800	50,612	53,851

배 경

- 2012런던올림픽 등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의 우수 성적 거양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 집중 훈련 필요
- 주요 국제체육대회 우수성적 달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세계적인 스포츠선진국으로의 입지 강화 도모

추진내용

- 훈련여건 개선, 국제대회 참가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우수 지도인력 투입 등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엘리트체육 지원프로그램 추진
 - ※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 : '08년 180일 → '09년 190일 → '10년 200일
 - ※ 국외전지훈련 : '08년 33개 종목 1,344명, '09년 29개 종목 1,063명
 - ※ 외국인코치 초청('10년 7종목 10명), 지도자 해외 연수 및 정보수집('10년 28종목 109명)
 - ※ 벤쿠버올림픽시 유망종목(18개), 대표선수 훈련(기술, 체력, 심리) 과학화 지원
 - ※ '10년 5개 국제종합경기대회, 19개 세계선수권, 28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지원

추진성과

-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 달성으로 글로벌 스포츠 위상 강화와 국민 자긍심 향상에 기여
 - ※ '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09년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10년 동계올림픽 5위, '10년 FIFA 월드컵 16강, '10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위 등
- 비인기·동계 종목 등 메달획득 종목 확대로 질적 측면에서도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과 도출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유치 · 개최 추진

배 경

-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역량 강화 및 국가브랜드 제고

추진내용

▷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

- 대회기간 : 2010.10.22 ~ 24(3일간)
- 대회규모 : 12개 팀 4,000여명 참가 / 전세계 6억명 이상 시청
- 세부내용 : 예선전(23일), 결승전 · 시상식(24일), F1 식전 문화행사 등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활동 지원('08.11 ~ '09.5월)

- 유치위원회 유치활동비 18억 지원('09.1월, 기금)
- 2015광주U대회 유치위원회 법인설립허가('09.1.6)
- 재외공관 유치지원활동('09.1월 ~, 집행위원 동향 파악 등)
- 2009하얼빈동계U대회 개최 계기 유치활동 지원('09.2.17 ~ 21, 제2차관)
- 유치신청서제출관련 정부보증 지원(3.14, 정부보증서 및 지지서한 총리 서명 등)
※ 경쟁도시 : 대만(타이페이), 캐나다(에드먼톤)
- FISU실사단 후보도시 실사지원('09.4.6 ~ 4.9)
※ VIP 실사단 접견 및 총리 주재 환영 오찬(4.6)
- FISU총회 정부대표단 파견 및 유치활동 지원(5.21 ~ 25, 제2차관 참석)
- 광주, 2015 개최지로 결정(5.23, FISU집행위원회)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활동 지원('09.1 ~ '09.8월)

- 유치신청서 제출('09.3.31) ※ 경쟁도시 : 독일(브란덴부르크),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FISA실사단 충주 실사('09.4.23 ~ 26) ※ 문화부 장관 FISA실사단 접견('09.4.23)
- 충주, 2013 개최지로 결정('09.8.31, FISA총회, 폴란드 포드난)

추진성과

- 첫 F1대회를 통해 모터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스포츠 여가 문화를 창출(관람객 165천명)
- 국가간 치열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을 성공으로 이끌며 국제체육무대에서 국가 역량 및 브랜드 홍보 강화

배 경

-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훈련 및 경기 여건은 열악
- 실업팀 창단 등 비인기종목 육성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우수 선수 발굴 · 육성 및 사기진작 필요

추진내용

- ▷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훈련비 및 운영지원('10년, 16개 종목)
 - 대표팀 훈련비(626명분), 전담지도자(11명), 물리치료사(12명) 지원
- ▷ 비인기종목의 인터넷 중계 및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10년, 31종목, 44대회, 100경기)
- ▷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 법인의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12.8)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실업팀 운영” 기관에 대한 감점 요인 제거
- ▷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 발표('10.11.29, 총 185억원)
 - '11 ~ '13년까지 초 · 중 · 고 · 대 여자 축구팀 45개팀 창단 지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 축구팀 창단 ※ (주)스포츠토토도 창단 예정
 - K리그 및 WK리그팀 산하 유소년클럽팀 창단 및 운영지원
 - 기존 팀 훈련 및 운영비 지원, FIFA U-17 우승선수단 장학금 지원 등

추진성과

- 비인기종목 청소년 선수 훈련 지원으로 경기력향상 및 엘리트급 선수 육성
- 비인기종목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실업팀 창단 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비인기종목에 대한 대중적 관심 유도
- 2010 FIFA 여자월드컵 U17대회 우승, U20대회 3위 등 국제대회 선전

태권도 세계화

배 경

- 2009.3.17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태권도를 국가브랜드 10대 과제로 선정, 태권도 세계화 사업 추진
- 전 세계 192개국 7천만여 명이 수련하는 한국의 고유문화 유산인 태권도를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추진내용

- 태권도공원 조성('05 ~ '13년)
 - ※ 기본·실시설계('08년), 기본·실시계획 승인('09년), 공사착공('10.3월 / 10% 공정)
- 태권도 상설공연장 건립('09 ~ '12년)
- 태권도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글로벌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10년)
- 태권도 해외보급을 통한 이미지 제고(태권도글로벌 인재 양성)
 - ※ 태권도 사범('09 ~ '10년, 12개국) / 시범단('08 ~ '10년, 43개국) / 평화봉사단('09 ~ '10년, 60개국, 387명) / 해외 태권도장에 대학생 인턴('08 ~ '10년, 미국, 160명) 파견
-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08 ~ '10년, 115개국 4,959명) / 세계태권도한마당('10년, 42개국 2,300명) /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09 ~ '10년, 56개국 545명) 개최
- 세계태권도 본산인 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공공성 제고('10년)
-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경기력 개선(WTF 규칙 개정) 및 대책 지원('08년 ~)

추진성과

-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태권도 공원의 본격 조성 및 태권도상설공연장 건립 추진을 통한 태권도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 태권도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태권도 사범 / 시범단 / 평화봉사단 / 인턴파견 등을 통한 태권도 해외보급 확대(192개국 7천 만여 명)
-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종목에 선정('09.10.9, 덴마크 코펜하겐 IOC 총회)

II. 별첨자료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 축문

유세차.

2008년 6월 10일, 무자(戊子)년 무오(戊午)월 신사(辛巳)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이 고하옵니다.

하늘 땅의 신령님들과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님들께 고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사랑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함께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고하옵니다.

지금 ‘빛 고을’ 광주에 문화의 겨자씨를 뿌리옵니다.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상록수처럼 늘 푸르며, 포도처럼 달디단 열매를 알알이 주저리주저리
열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들이시여, 영령들이시여.

세월은 흐르고 절기는 넘어가 산과 들이 온통 푸릅니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산 사람들이 인정을 나누고 얼굴 부비며 사는 세상이 가장 푸르지 않습니까.

그대들이 베푸신 음덕이 바로 이 나라 이 땅의 푸르름입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만, 천하의 무엇도 부족하여 그저 연초록 풀잎처럼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이제 광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세우고자 합니다.

첫 삽을 뜨는 저희들의 마음을 너그러이 거둬주십시오.

그보다 더한 기쁨 없겠사옵니다.

또한 이번 정성을 바치는 데 많은 분들이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분들께 소나무와 같은 푸르름을 나눠 주시옵소서.

광주시민 여러분, 박광태 광주시장님, 문순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계자들께 축복을 주시옵소서.

신령이시여, 영령이시여.

소생(小生)은 지난해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 자격으로 광주에 왔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땅 밑에 세워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달빛은 수면에 파동을 내지 않은 채 호수 깊이 비춰줍니다.

문화는 아무에게도 상처주지 않으면서 인류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비춰줍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건물은 나 홀로 우뚝 선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빛고을의 밝음이 땅 속 깊이 스며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기를 머금은 땅 속의 훈훈함이 세상의 윗목까지 뱉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는 가장 밀도 있는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과거와 미래가 몸과 마음을 부비고 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라만상을 키우는 대지의 마음이 바로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마음입니다.

민주와 인권과 평화를 제 몸보다 아끼시는 신령이시여, 영령이시여.

이 곳에서 당신들의 뜻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문화와 문화산업의 청정발전소에서 광주와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세계의 아름다운 에너지가 뿜어 나오도록 도와주소서.

이 곳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곳은 인권과 평화의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민주와 인권과 평화의 정신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푸른 세상의 환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공손한 마음으로 기원하나이다.

이 곳이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문화예술이 파도치는 푸른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곳 예술인들이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곳이 문화예술의 창조적 실험과 시도들이 메아리치는 푸른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곳 예술인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곳이 전 세계인이 평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꼭 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은 예술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곳 예술인들이 붉은 심장과 동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이시여, 영령이시여.

소생은 이 곳의 빛이 누리에 퍼지도록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가 발산하는 문화의 빛이 후세의 등대가 되어 영광스럽고 영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나이다.

부디 이 곳을 채우는 문화예술인들의 열린 마음과 열정,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이 인류의 삶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빌고 또 비나이다.

상향(尙饗)

2008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춘

한국예술종합학교 2009년도 학위수여식 축사

먼저 결코 쉽지 않은 예술가의 길을 가기 위한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학교를 나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졸업생들을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에 오기까지 넘치는 애정과 격려로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개교 이래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에 주력해 왔고, 개교 16년이 되는 현재 순수 국내파로서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당당히 1등을 거머쥐고 있는 음악가들이나 각종 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휩쓸고 있는 젊은 감독들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놀라운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매스컴에서 주목받는 예술가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한예종 출신이 아닌가 하고 눈여겨 볼 정도로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이름의 브랜드 파워는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결실의 밑바탕에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학교 밖의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경제 한파, 최악의 실업난이라는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와 내 집 마련을 위해 쫓기듯 삶을 영위하는데 급급해 감성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졸업을 하자마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그동안 같고 닳아온 예술적 기량을 펼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연극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후, 술한 방향에 절망하고 고난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나오는 구절을 마음속에 되새기곤 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죽음에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웠으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도전만이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술인의 삶에는 본질적으로 술한 시련의 과정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탁월한 예술적

성취들은 시련과 고통을 양분삼아 빚어낸 것들입니다. 시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모질게 견뎌낸 시련은,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자양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재학생 여러분!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이겨 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부단히 갈고 닦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명문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졸업생 여러분들도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이 개척해나갈 미래는 결코 개인의 미래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미래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졸업생 여러분!

세상을 더 나은 곳,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 가슴 속의 열정을 불태워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 여러분의 창조적인 능력을 펼쳐 보이십시오. 더 열심히, 더 고되게 여러분 자신을 담금질 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졸업생 여러분들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착공식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입니다.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님,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을 모시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해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후세에 전승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통합된 국민들의 저력으로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에서 우리가 이룩한 기적의 역사는 피와 땀, 눈물의 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착공식이 거행되는 오늘은 매우 뜻 깊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2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게 될 이 박물관은 수도 서울 광화문 일대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의 핵심 문화시설 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였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2013년 정식 개관을 목표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단순한 또 하나의 전시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관련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망라하여 실물로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의 아이티(IT) 기술을 활용 하여 대한민국 발전사의 다양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지(G)20 의장국으로서의 품격에 맞는 훌륭한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3년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춘



번호	제목	언론사	날짜
1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바로 잡을것”	조선일보	2008-02-19
2	“문화 콘텐츠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	중앙일보	2008-03-15
3	“문화콘텐츠 산업 침병은 게임”	전자신문	2008-04-16
4	“불법 복제 안됩니다”	전자신문	2008-04-16
5	“모든 초교에 체육보조교사”	서울신문	2008-04-23
6	유인촌 장관, 드라마제작사 간담회	전자신문	2008-05-01
7	“1조5000억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전자신문	2008-06-19
8	文振기금 일부 지방협력형 사업 추진	문화일보	2008-09-03
9	“문화예술 지원에도 경쟁원리 도입”	경향신문	2008-09-04
10	柳문화 ‘행복한 문학’ 첫 방송 진행	한국경제	2008-09-24
11	구호는 요란 정책은 재탕	동아일보	2008-10-02
12	교과부 - 문화부 ‘문화교육 활성화’ 협약	전자신문	2008-10-16
13	유럽의 수도 브뤼셀 ‘부처의 미소’에 빠졌다	서울신문	2008-10-11
14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	전자신문	2008-11-25
15	“세계 3대 게임강국 도약”	디지털타임스	2008-12-04
16	韓·中·日 제주선언문 발표	전자신문	2008-12-26
17	“온 국민이 함께 책 읽는 즐거움 누릴 수 있게”	조선일보	2009-01-01
18	柳문화, 자전거로 새해 첫 출근 “문화로 생동하는 나라 만들자”	한국경제	2009-01-03
19	국립미술관 ‘3원 시대’ 연다	동아일보	2009-01-16
20	수원 못골시장 ‘장터 방송’ 개시	조선일보	2009-01-20
21	문화 소외계층, 울거울은 따뜻했네	문화일보	2009-02-12
22	“스키를 배우다니 꿈만 같아요”	한국일보	2009-02-19
23	대전 ‘한국의유니버설스튜디오’ 꿈꾼다	서울신문	2009-02-27
24	“CT R&D 투자 확대…세계적 수준으로”	디지털타임스	2009-03-05
25	예술가는 일자리 얻고 소외계층은 문화 혜택	문화일보	2009-03-05
26	老배우 “어머니 품 같은 곳 다시 서다니…” 감격	조선일보	2009-04-08
27	2030은 소통의 장을 원한다	매일경제	2009-04-16
28	DMZ 인접지역 관광벨트로	매일경제	2009-04-27
29	“댕댕댕”… 명동극장 ‘34년 만의 집들이’	조선일보	2009-05-12
30	“기능성게임 5000억 시장으로 키운다”	전자신문	2009-05-15
31	“콘텐츠산업 동반 성장 호기로”	전자신문	2009-06-17
32	노동부-문화부 사회적일자리 제휴	내일신문	2009-06-17
33	예술계 ‘현금’대신 ‘시설’ 지원	문화일보	2009-06-17
34	“연극인 시국선언 땀 딱 관두고 싶더라” (《뉴스쑈》한겨레가 만난 사람 유인촌 문화부 장관)	한겨레신문	2009-07-03
35	장애이용 관광버스 타보세요	헤럴드 경제	2009-07-09
36	“문화콘텐츠 강국 만들자”	디지털타임스	2009-07-29

	제목	언론사	날짜
37	유인촌 장관, 공옥진 여사 병문안	세계일보	2009-10-12
38	"국립문화예술단체 법인화 추진"	서울경제	2009-10-17
39	'홍물' 폐석산이 문화공간 변신	세계일보	2009-10-21
40	우리금융 아트홀 개관행사	헤럴드경제	2009-11-11
41	'한국 방문의 해' 개막	한국경제	2009-11-12
42	"대형 극장 교차상영 해도 너무해"	한겨레신문	2009-11-13
43	"한국패션, 글로벌 무대로"… 뉴욕 상륙작전	동아일보	2009-11-17
44	산동네가 예술마을 됐네	동아일보	2009-11-27
45	읍·면·리·동까지 문화를 심겠다	매일경제	2009-12-08
46	"韓·中·日 같이 쓰는 교통·관광카드 만든다"	조선일보	2009-12-30
47	"가고싶은 섬 사업 반드시 뒤엎겠다"	서울신문	2010-01-11
48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 복제는 NO … 100% 정품만 쓰지요"	중앙일보	2010-01-12
49	국립극단 '죽느냐 사느냐' 고뇌는 끝났다	조선일보	2010-01-14
50	중앙박물관 앞 '한글박물관'	서울신문	2010-01-20
51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한국일보	2010-02-02
52	"작가회의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경향신문	2010-02-13
53	"제주 올레길 같은 '스토리관광' 상품 대폭 늘리겠다"	한국경제	2010-02-23
54	문화부, 유치원에도 예술강사 지원	내일신문	2010-04-07
55	문화예술위, 구로동 시대 개막	동아일보	2010-05-05
56	농어촌에 문화향기 전한다	매일경제	2010-05-07
57	"'나홀로기업'은 차세대 산업엔진… 5만개로 늘리겠다"	한국경제	2010-05-31
58	문화부-법무부 손잡고 법교육 기능성 게임 개발	디지털타임스	2010-06-09
59	국·공립 공연장 초대권 사라진다	조선일보	2010-06-10
60	공옥진 14년만에 서울무대 오른다	서울신문	2010-06-26
61	중단된 '예술인센터' 12년만에 다시 착공	문화일보	2010-07-19
62	국립현대무용단 설립기념식	동아일보	2010-08-18
63	NIE 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 확대	매일경제	2010-10-02
64	T20관광장관회의 개막	헤럴드 경제	2010-10-11
65	2012년까지 수도권 호텔 3만실 확충	문화일보	2010-11-02
66	2010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문화일보	2010-11-23
67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착공	서울신문	2010-11-26
68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열어	조선일보	2010-12-10
69	'백성희·장민호 극장' 문열다	중앙일보	2010-12-28
70	유인촌 장관, 아테나 촬영장엔 왜?	헤럴드 경제	2010-12-29
71	코리아패스 카드 들어 보이는 유인촌 문화부장관	뉴시스	2011-01-10
72	2011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 개막 행사	뉴시스	2011-01-12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바로 잡을 것”

朝鮮日報

2008년 02월 19일 화요일 A04면 종합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바로 잡을 것”

● 유인촌 문화관광

36년간 방송·연극·영화 등에서 활약한 현역 배우다. 그는 18일 “문화로 소통하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나라가 되도록 바르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정책에 대해선 “예술뿐 아니라 관광과 체육을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정책을 펴겠다. 이념과 계파로 나뉜 대한민국의 문



화정체성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명박 당선자와는 1980년대 말 TV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회장을 모델로 한 배역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이던 2005년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를 맡았다. 스타이지만 소탈하고 업무 추진력도 있다

는 평이다. 대선 때 지원유세를 했고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문

제적 인간 연산’ ‘햄릿’ 등 연극에 출연한 그는 카리스마가 강한 연기를 하는 배우였다.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의 ‘용식’ 역할로도 잘 알려졌다.

마라톤·오토바이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고 성악가 아내를 두고 있다.

▶56세 ▶서울 출생 ▶중앙대 연극영화 석사 ▶서울문화재단 대표, 중앙대 교수

▶56세 ▶서울 출생 ▶중앙대 연극영화 석사 ▶서울문화재단 대표, 중앙대 교수

▶56세 ▶서울 출생 ▶중앙대 연극영화 석사 ▶서울문화재단 대표, 중앙대 교수

“문화 콘텐츠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

02

중앙일보

“문화 콘텐츠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기무사 부지 문화공간 조성

목표, 2012년 세계 5대 문화콘텐츠 산업 강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문화콘텐츠를 본격적인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본격 육성**=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58조원(2006년 기준), 매년 18.4%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4%로 미국(40.7%), 일본(7.9%), 영국(6.7%) 등에 이어 9위에 그치고 있다. 이를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문화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가칭)콘텐츠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콘텐츠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높은 리스크와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 정보통신기금과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진흥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기업의 연구소 조식을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창작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콘텐츠 개발의 원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 퍼블리싱 전문업체’ 육성 등 산업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창작의욕 보호**=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은 약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장의 유통구조가 붕괴되고 창작 의욕과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암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화부는 검찰·경찰과 함께 ‘법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불법 P2P,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개, 불법 DVD 상습 유통지역 집중단속 등 ‘불법복제외의 진정’을 선포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문제가 있는 사이트의 영업정지 및 폐쇄, 불법물 상습 게시자의 개인계정 정지·삭제 방안 등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즐기는 문화**=근대화의 유산을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사업도 구체화됐다. 2010년 인천공항철도와 연결되는 옛 서울역사는 내년말까지 15억원을 들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당 인리화발전소의 경우 발전설비를 지하화한 뒤 730여억원을 들여 근대산업박물관과 디자인 아카이브 등을 조성하고 흥대-신촌-한강을 연계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든다.

올 10월 과천으로 이전하는 경복궁 근처 기무사 부지는 2010년까지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가능한 가변형 복합공간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 송정역, 경기도 포천 채석장, 강원도 태백 철안 석탄광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산업유산 16곳도 2012년까지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한다. 또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부터는 국립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 31곳의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야간 운영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충천=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지난해 7월 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디자이너 홍승원씨의 패션쇼. 부는 옛 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중앙]

“문화콘텐츠 산업 침병은 게임”

전자신문

2008년 04월 16일 수요일 001면 종합 해설

“문화콘텐츠 산업 침병은 게임”

유인촌 문화, 3대 강국 진입 적극 지원

정부가 세계 3대 게임 강국을 목표로 게임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우수 게임 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펼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서울 상암동 DMC에서 열린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 경제적 효과를 가

장 잘 낼 수 있는 침병은 바로 게임”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게임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지만 산업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온라인게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규남 한국게임산업진흥원장은 “게임 산업은 국내 문화콘

텐츠 수출 비중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수지 흑자만 5억달러에 이른다”며 “반면에 최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은 성장이나 되보나의 기로에 섰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구체적으로 우수 게임 업체에 대한 상설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우수 게임 업체는 매월 1회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진흥원은 또 국내 게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2010년까지 프리마켓 시스템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북미·중국·일본·북유럽·중동 등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신시장에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장동준기자 djang@

“불법 복제 안 됩니다”

04

전자신문

2008년 04월 16일 수요일 001면 종합 해설



“불법 복제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불법복제근절을 위한 단체연합회 주최로 15일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범콘텐츠산업 연대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에서 유인촌 장관(왼쪽 네 번째)과 가수 장윤정씨(※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정동수기자 dschung@

“모든 초교에 체육보조교사”

서울신문

2008년 04월 23일 수요일 024면 스포츠

“모든 초교에 체육보조교사”

유인촌 장관 스포츠의교포럼서 밝혀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한국스포츠의교포럼(회장 김범식 성균관대 교수)이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정기포럼에 참석, “현행 임시제도 등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에 우선 체육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과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내 체육관 300곳 신설 지원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하반기에 1000명을 배치하고 매년 두 차례 같은 규모의 교사를 배치해 임기가 끝날 때쯤 모든 초등학교에 보조교사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만 74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내년 이후 매년 150억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초등학교는 지난해 말 현재 5756개 교이다.

문화부는 또 전용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교의 8%에 지나지 않고 100m 달리기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갖춘 학교도 절반이 안 되는 실정을 감안, 5년 안에 체육관을



초·중·고 체육시설 현황

(단위: 곳)

합계	체육관		수영장	우레탄	헬스시설	골프연습장
	전용	강당겸용				
8683	884	3620	142	2341	1239	457

● 일본의 학교체육시설 14만 9063곳 (2002년)

※ 2007년 12월 기준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곳)

합계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동네체육시설	기타
9949	176	476	315	335	8016	621

● 일본의 공공체육시설 5만 6475곳 (2002년)

※ 2006년 12월 기준

300곳 신설하도록 한국당 평균 10억원을 지원, 설치율을 1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체육인·국민 뜻대로 단체 통폐합”

한편 유 장관은 전날 신재민 제2차관이 한국스포츠클럽 포럼에서 체육단체의 통합과 분리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한 데 대해 “체육계의 구조조정은 체육인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신 차관이 “대상 기관과는 일절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과 분명 달라 향후 체육계와의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주목된다.

포럼 고문 자격으로 이날 참석한 이연택 체육회 전 회장은 1970년대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분리됐을 때 알력이 심했

던 점, 선진국이 통합하는 추세인 점, ‘작은 정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체육회와 KOC의 분리 방침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김정길 “사무총장 재임명 추진”

22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만장일치로 추대할 구안속 사무총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 승인을 거부한 것은 체육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25일 이사회에서 구 총장의 재임명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를 전후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퇴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배수진의 각오도 밝혔다.

유인촌 장관, 드라마제작사 간담회

06

전자신문

2008년 05월 01일 목요일
017면 인물



유인촌 장관, 드라마제작사 간담회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30일 PD 출신 드라마제작사 대표 7인과 간담회를 갖고, 드라마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학프로덕션의 김종학 사장과 삼화프로덕션 김현준 사장 등 PD 출신 드라마제작사 대표 7명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최영호 부원장, 이만제 정책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1조5000억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전자신문

2008년 06월 19일 목요일
025면 인물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유인촌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정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대사(왼쪽부터)가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文振기금 일부 지방협력형 사업 추진

08

문화일보

2008년 09월 03일 수요일 002면 종합

文振기금 일부 지방협력형 사업 추진

<문화예술진흥기금>

유인촌 문화, 새정부 문화·예술정책 발표

■ 내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문진기금) 총사업예산의 32%(24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진기금 지원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낮 12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문진기금 지원방식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운

영 개선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창작 팩토리) 도입 등 4가지를 골자로 한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문화예술위와 분리 운용토록 했다.

지난 2005년 민간 자율 합의기구



로 출범한 문화예술위는 기금 지원의 편파성 논란과 지원사업 혁신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문진기금은 국제 교류와 신진예술가 집중육성(연간 70명) 등의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며 편파지원 논란을 없애기 위해 문화예술위 위원·소위원회가 금지원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문화예술위는 향후 지원정책 개발, 예술계 주요 어젠다 형성 활동에 주력하며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최영창기자 ycchoi@

“문화예술 지원에도 경쟁원리 도입”

경향신문

2008년 09월 04일 목요일 02:00 문화

“문화예술 지원에도 경쟁원리 도입”

유인촌 문화부장관 ‘새정부 예술정책’ 발표

“유인촌표 예술정책’이 나왔다. 현장예술인 출신답게 창작의 활기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국립 공연장 및 예술 단체의 성격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예산지원을 늘리는 한편, 인센티브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창작지원에서도 소수의 참된 작품을 중점기에 걸쳐 집중 지원하게 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가치를 확 대하고 작품의 질을 높여서 세계에 인정받는 예술역량을 가꾸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원칙 소수 작품 중점지원

국립공연장은 장르별로 ‘제 색깔 찾기’

핵심 내용은 ▲문제제점극기금 지원방식의 획기적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이다. 또 최근 미술계의 막수공 석조전 등판 및 기부사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활용과 관련, “석조전 등 판이든, 기부사 부지이든 현대미술관이 서울 도심으로 들어와야 하며 서초구와 함께 정보사 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발제를 보려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으로 가라

국립 공연장 및 예술단체의 ‘제 색깔 찾기’를 추진한다. 국립중앙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현대공연예술, 예술의전 당은 오페라·발레·교향악 등 서양 장르, 정동극장은 관 광객 대상 전통예술, 아르코예술극장은 무용, 대하로복합 공연장은 연극 극장으로 운영한다. 또 내년 초 개관하는 명동예술극장은 직접제작 방식의 연극연예 극장이 된다.

유 장관은 “국립 예술기관이 국가브랜드 수준의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을 늘리고 수익창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향후 3년간의 공연·전 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국립 예술기관에 지시하고 올해 3억 원인 작품개발비를 내년에는 35억원, 2011년에는 45억원 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단원 채용시 상근·비상근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평가오디션을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를 보 수나 제계약에 반영하는 내용의 단원운영개선 지침을 내

렸다.

■ 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지원방식이 크게 바뀐 다. 11명 예술위원회는 정책방향 제시에 집중하고 장르대표 위원들이 위원장을 겸임해 소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와 분리시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한다. 또 예술위원, 소위원 장이 지원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없앤다. 특히 중앙의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대거 이관해 올해 8 대 2인 서울과 지방의 지원비율을 내년에는 7 대 3, 궁극적으로는 5 대 5 수준으로 확대한다. 단 지역 이관시 매칭펀드 시스템을 도입, 자치단체의 문화예산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예술 지원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연간 70여 명 의 신진예술가를 2년간 집중 지원하고, 문화의 경우 장편 소설의 지원액을 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 는 등 소진다액으로 바뀐다. 창작 및 지원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 문학창작집필실·비영리전시 공간·소공연장 운영 등 간접지원도 확대한다.

■ 기획부터 공연까지 일괄 지원한다

올해 연극·뮤지컬 분야를 시작으로 공연예술 인큐베이 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가능성 있는 작품을 처음 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본 공모, 워크숍 및 쇼케이스, 작품제작 지원, 재연 공연 지원 등 4단계에 걸쳐 이전 단계에서 실패했던 작품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 택을 준다. 이 제도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내 레스토랑에서 이 명박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탈락되는 작품이나 예술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 됐다.

한편 문화부는 유인촌 장관의 예술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후변화 관련 문화분야 대책(9월), 문화부 신하 공공기관 효율화방안(10월), 문화비전 2012(11월), 저작권 진흥 중장기대책(12월) 등 주요 문화정책 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한윤정기자
yihan@kyunghynews.com

柳문화 '행복한 문학' 첫 방송 진행

10

한국경제

2008년 09월 24일 수요일
A37면 people

柳문화 '행복한 문학' 첫 방송 진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22일 국악방송의 문학 전문 프로그램인 '행복한 문학'의 첫 방송 사회를 맡아 1시간가량 진행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행복한 문학'의 1부 사회자로 나서 이 프로그램의 원래 진행자인 시인 장석주, 소설가 은희경, 시인 이문재씨와 대담을 가졌으며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직접 낭송했다.

그는 "문학은 위대하다. 작가는 소중하다"며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또 장석주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도 참여해 조지훈의 시 '사모'를 낭송했다.

구호는 요란 정책은 재탕

東亞日報

2008년 10월 02일 목요일 A21면 기획

구호는 요란 콘텐츠 코리아 정책은 재탕

콘텐츠 코리아

'5대 콘텐츠 강국' '콘텐츠 코리아' '소프트 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2012년에는 매출 100조 원, 고용 규모 100만 명, 수출 규모 78억 달러의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는 장밋빛 콘텐츠 육성만 내놓을 뿐 정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불투명한 콘텐츠 육성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해 온 문화부의 정책 핵심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 마련과 법정부적인 콘텐츠진흥위원회의 신설 등이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3월 '융합시대'를 선포하는 통합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으로,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출연을 받아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화부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 및 융자 지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보고 후 6개월이 지난지만 콘텐츠진흥기금과 콘텐츠진흥위원회 신설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금과 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기본법'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문화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이 법은 6월 국회에 상정됐어야 했지만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존 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했다가 이에 콘텐츠를 총괄하는 통합법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를 추진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방송위, 지상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보내져 아직 '의견 수렴 중'이다. 이를 위한

콘텐츠 정책 비교

3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9월 8일 국회 보고	9월 22일 대통령 신상장동석 보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콘텐츠진흥기금 신설 (1조5000억 원 규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100년 수평의 길러콘텐츠 개발 방송융합형 콘텐츠, u-러닝 콘텐츠, 차세대 가상세계 콘텐츠 등 융합형 콘텐츠 육성 문화원형 융합한 콘텐츠 소재 발굴 e스포츠 국제협력체 조성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콘텐츠진흥기금 신설 (1조5000억 원 규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100년 수평의 길러 콘텐츠개발을 위한 모데ิร์น 등 활용 방송융합형 콘텐츠, u-러닝콘텐츠, 가상세계 콘텐츠 등 5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문화원형 융합한 콘텐츠소재 발굴 글로벌 e스포츠리그, 국제e스포츠협약체 조성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진흥기금 신설 필요 콘텐츠진흥기금법 신설 필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신설 필요 디지털 가상세계서비스시장 실험 가상현실 콘텐츠개발 방송융합콘텐츠 및 u-러닝콘텐츠 개발 글로벌 게임 허브 구축 100년 전통 길러콘텐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e스포츠를 통한 글로벌 게임문화 창출

문화부, 고부가산업 육성위해 지원 구상 1조5000억 기금마련 법안 상정도 못해 민간 추진위案도 6개월전 내용 되풀이

하고 있는 문화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의견 수렴 기간(9월 30일)이 지난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나 검토안을 보내온 곳은 한 곳도 없다.

문화부는 11월경 '콘텐츠산업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지만 문화부 내에서도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단 기금의 재원이 되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에 대한 부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한 간부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문화부가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의견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발전기금은 방송 콘텐츠 육성을 위해 알아서 쓰면 되지 굳이 문화부가 따로 콘텐츠진흥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통해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현실성 없는 장밋빛 정책

문화부가 발족한 민간 자율기구인 '콘텐츠 코리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KRIIT)에서 대통령 주재 '콘텐츠 산업 신성장동력 보고대회'를 가졌다.

문화부가 위촉한 6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온라인 게임 혁명 주도로 글로벌 게임 허브 구축 △100년 전통 길러 콘텐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보고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교육 의료 등 디지털 가상세계 서비스 환경 구축 △u-러닝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e스포츠대회 및 글로벌 게임 어워드 개최 △글로벌 스토리텔링 및 문화 원형 발굴 등을 꼽았다.

그러나 추진위 보고 내용은 문화부가 이

미 국회에 보고한 콘텐츠 정책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문화부는 지난달 8일 국회에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제목 아래 △100년 수평의 길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 모데ิร์น 등 활용 △방송융합형 콘텐츠, u-러닝 콘텐츠, 가상세계 콘텐츠 등 5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분과 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소재 발굴 △글로벌 e스포츠리그 결성 등을 주요 정책으로 보고했다. 3월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나온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콘텐츠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내용만 놓고 보면 추진위의 대통령 보고대회는 기존에 나온 내용에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이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추진위가 내놓은 정책 제언을 보면 콘텐츠진흥기금 신설, 콘텐츠진흥기금법 제정,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신설 등 문화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그대로 담고 있어 '민간 보고' 형식만 갖췄을 뿐 민간이 주도적으로 내놓은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민간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보고대회를 열고, 이를 해당 부처가 '민간이 주도해 낸 의견'이라며 건의를 수용하는 모습을 띤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추진위가 5월에 구성됐는데 여기에 속한 분들이 전문가여서 정책 조언에 용하기고 해 내용이 비슷하게 된 것 같다"며 "같은 내용이라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skang@donga.com

교과부 - 문화부 '문화교육 활성화' 협약

12

전자신문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024면 인물



교과부-문화부 '문화교육 활성화' 협약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앞줄 왼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감사 지원 사업 및 체육 보조감사 배치,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양부처는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과공부를 통한 지식습득뿐 아니라 문화적 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 등을 고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은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기로 했다.

유럽의 수도 브뤼셀 ‘부처의 미소’에 빠졌다

서울신문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025면 사회

유럽의 수도 브뤼셀 ‘부처의 미소’에 빠졌다

■ 브뤼셀 이종수특별관 ■ 유럽연합(EU) 중심에 한국 문화의 고개가 상륙했다.

한국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한국 문화페스티벌 ‘페이드 인 코리아’가 유럽 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9일(현지시간) 오후 7시 공식 개막됐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를 내년 2월까지 5개월 가까이 선보인다.

개막식을 장식한 한국불교미술 특별전 사회 ‘부처의 미소’를 비롯해 19가지 공연·전시회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아시아 문화라면 중국이나 일본 정도만 알고 있는 유럽인들의 문화 감성을 자극하게 된다.

● 공연·전시·문학의 방 등 다채롭게

축제는 불교미술전에 이어 오는 18일 봉산탈춤 등 중요무형문화재를 망라한 ‘한국의 날’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가 텔레비전으로 열기를 이어간다.

세달 1일에는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첫선을 보여 호평을 받은 ‘불교 오페라’ 격인 태고종 영산재와 김금희의 진혼굿으로 한국종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5일에는 함석영·박원서 등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국 전후문학의 밤’, 24일에는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

12월에는 이창동과 김기덕 감독 등의 영화가 상영되고 내년 1~2월에도 소설가 김영하 등이 참가하는 ‘한국 현대문학의 밤’,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 공연

한국문화페스티벌 개막... 내년 2월까지 19가지 행사



벨기에 브뤼셀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된 한국문화페스티벌의 첫 번째 프로그램 ‘부처의 미소’ 특별전을 찾은 현지 관람객들이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등이 이어진다. 대단원은 무용가 안은미의 ‘바리’와 비보이 공연이 장식한다.

이번 축제는 정우성 전 벨기에 대사가 1년6개월 동안 공을 들인 행사다. 유럽연합 본부와 나토 등 120개 국제기구가 물려

는 유럽의 심장부에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은 지난해 5월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속도를 냈다. 한국 정부가 21억원, 벨기에 정부가 32억원을 지원한 이번 축제의 의의는 한국 최고수준의

문화예술을 장기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소개한다는 데 있다.

● 관람객들 불상·불화 보며 감탄 연발

개막식에는 1200명 남짓한 관람객이 ‘부처의 미소’전이 열리는 보자르 예술센터를 찾았다. 호기심을 잔뜩 안고 찾아온 유럽인들을 가장 먼저 맞은 것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백팔번뇌’와 중앙에 마련된 실물 크기의 석굴암 부처이다. 한국의 첨단 아트와 전통의 은은한 미소에 젖은 관람객들은 한국 불교의 전파 과정을 살펴본 뒤 국보·보물급 불상과 불화를 보며 감탄사를 잇달아 터뜨렸다.

특히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 앞에서 한동안 발길을 멈췄다. 브뤼셀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잔 바스티앵은 “부드러운 곡선 등이 너무 인상적”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전시 컨셉트가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플 뒤자르당 왕립예술관장은 “중국과 일본 문화의 교차점인 한국의 불교는 1400여년 동안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독창성을 간직해 왔다.”면서 “이번 맥락에서 한국문화페스티벌의 시작을 불교미술로 장식한 것은 상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총 문화관광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관람객들은 이 페스티벌에서 지난 6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저력이 그 고유한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ietee@seoul.kr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

14

전자신문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002면 종합 해설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이 24일 세종로 문화부

에서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세계 3대 게임강국 도약”

다지털타임스

2008년 12월 04일 목요일 002면 종합

“세계 3대 게임강국 도약”

2012년까지 3500억 지원… 국내 시장규모 10조원대 성장

문화부 7대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온라인게임 중추국을 넘어서 세계 3대 게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대적인 게임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을 조성하는 등 7대 전략에 국고 2500억원을 포함해 총 3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를 2012년까지 10조원대로 성장시키는 한편 해외수출도 같은 기간 36억달러까지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게임테마 레스토랑 재미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 제2차년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번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 제 2의 게임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규제’보다는 ‘진흥’에, ‘정책’보다는 ‘실행’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유인촌 장관은 브리핑에서 “게임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중장기계획이 단순 정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질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2008년~2012년) 발표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11:00~13:00 장소: 재미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압구정동 소재 게임테마 재미스에서 ‘게임산업진흥 제2차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화부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실행을 위해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미래형 창의 인력 기술 확보 ▲게임문화 가치 창조 ▲유통환경 선진화 ▲세계 e스포츠 선도 ▲융합환경 제도 정책 체계화 등 7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또 7개 추진 전략 하에 20개의 핵심과제와

40개의 일반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다중플랫폼게임, IP TV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게임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700여억원을 투입, 300개의 독립 개발 스튜디오를 육성, 2500억원의 수출과 100여명의 교수인력 및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시장의 전략적 진출을 현재 1개에 불과한 게임

수출 현지 지원 거점을 2012년까지 30개로 늘리고, 2000억원 규모의 게임전문 펀드 유치를 통해 게임 산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게임전문 펀드 조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500억원 규모의 기술 투자에 나서고, 320명의 글로벌 인지도 육성하기로 했다.

한민욱기자 mohan@dt.co.kr

전자신문

2008년 12월 26일 금요일
002면 종합 해설



韓 · 中 · 日 제주선언문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가운데)과
차이우 중국 문화부 부장(왼쪽), 아오키

다모쓰 일본 문화청 장관이 25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제주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20면

“은 국민이 함께 책 읽는 즐거움 누릴 수 있게”

朝鮮日報

2009년 01월 01일 목요일 A27면 특별기획

문화부·조선일보
공동 독서 캠페인

책, 함께 읽자



이명철 기자 mlee@chosun.com
2009 '책, 함께 읽자' 캠페인 조직위원회. 왼쪽부터 이정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김년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김문순 조선일보 발행인·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은 국민이 함께 책 읽는 즐거움 누릴 수 있게”

조직위 첫 모임… 연극배우들 참여 적극 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09 조선일보의 독서 캠페인 ‘책, 함께 읽자 Reading Together’ 조직위원회의 첫 모임에서 “전국적으로 낭독회가 열리게 해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김문순 조선일보 발행인,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년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정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6인 조직위원회 첫 모임에 공동대표로서 참석했다. 유 장관은 “연극배우들이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며 “낭독회와 함께 별도로 글쓰기 지도, 시 이해의 방법 강연 등도 병행해서 더 큰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조선일보가 봄을 잘 조성하면 낭독문화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제가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매일 2시간씩 문학 낭독 프로그램을 하도록 만들었고 첫 방송에 제가 나가서 책을 읽었는데 2009년에는 우리 연극배우들이 이 방송에도 대거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순 조선일보 발행인은 “이 운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럽의 낭독문화 사례를 잘 참고해서 지면을 통해 독

자들에게 낭독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독서 진흥을 위해 저자가 해야 할 일을 조선일보가 만들어줬다”고 말했고, 이정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지금까지 누구나 낭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기 어려웠던 일을 이번에 제대로 하게 됐다”며 반겼다.

김년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낭독문화운동은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며 “우리 협회의 전국 각 지부와 지회에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낭독회에 나갈 배우들을 재교육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낭독회를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현 기자

18
柳문화, 자전거로 새해 첫 출근 “문화로 생동하는 나라 만들자”

한국경제

2009년 01월 03일 토요일
A30면 오피니언



柳문화, 자전거로 새해 첫 출근
“문화로 생동하는 나라 만들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2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자택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한강 잠수교를 거쳐 한남동을 지나 세종로 청사로 출근한 유장관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집에서 출발해 남산을 힘겹게 오를 때 날이 밝아왔다”면서 “출근길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를 정도로 추웠지만 몸과 마음은 땀과 열기로 뜨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현실은 춥지만 미래는 오늘 아침 하늘처럼 맑고, 국민의 위기극복 의지는 자전거로 출근할 때 제마음처럼 뜨거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작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자전거 출퇴근을 했지만 올해는 더 자주 자전거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남사)

국립미술관 '3원 시대' 연다

東亞日報

2009년 01월 16일 금요일 A20면 문화

경복궁 옆 기무사 터에 2012년까지 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 확정

국립미술관 '3원 시대' 연다

(서울·과천·덕수궁)

2012년까지 현재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군기무사령부 터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리모델링 돼 첨단 예술을 아우르는 컨템퍼러리 아트센터로 운영된다. 또 덕수궁 미술관은 국립근대미술관으로, 경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현대미술 위주의 대규모 전시를 비롯해 미술품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종합미술관으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되면 국립미술관이 각각 고유한 역할을 지닌 삼원체제로 운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국군기무사 강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무사 터를 미술계의 오랜 숙원인 현대미술관 서울(本)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술관이) 너무 멀리 있어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다"며

서울, 첨단예술 아우르는 아트센터로
과천, 현대미술 전시·교육·수집 담당
덕수궁, 국립 근대미술관으로 탈바꿈

"(미술관이 생기면) 청와대를 보러 오는 길에 미술관도 들르고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현대사 박물관도 들르고, 이 일대가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국립미술관의 역할 설정 및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서울관은 인근에 밀집한 화랑가와 함께 한국의 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상징 문화플렉스'로 조성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기무사 터에 들어서는 서울관은 약 2만7402㎡(8393평) 규모로, 땅 매입비만 1125억 원이며 전체 예산은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연내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마무리한 뒤 내

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이루어져 이르면 2012년에 개관된다.

본관 건물은 1929년에 건립돼 지난해 근대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만큼 원형은 유지되며 그 밖에 부속 건물은 리모델링 또는 철거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리모델링 등 건축 설계는 국내 건축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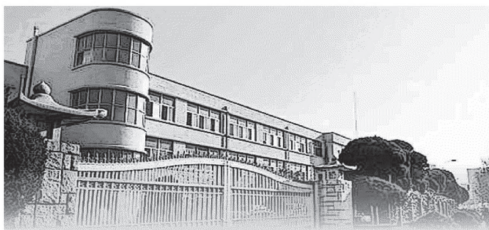
오랜 숙원을 이룬 미술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1986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후 미술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도심 이전 또는 서울관 설치를 요구해 왔다. 미술평론가 정준모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전 정부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무사 터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마침내 국립미술관으로서 위용을 제대로 갖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재순 한국미술협회장은 "그동안 외국에서 미술계 인사가 오면 서울 시내에서 한국 현대 작가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서울관 조성 소식이 반갑고 고맙다"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서울관은 가급적 외국 작가의 기획 전시보다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수궁 미술관은 한국 근대 미술을 위주로 전시하는 근대미술관으로 운영되며, 과천관은 수장고 역할과 미술 교육 기능을 맡게 된다.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3개 국립미술관 운용 계획

장르	성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미술, 사진, 영상, 디자인 뉴미디어 아트, 설치미술 복합장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섬유, 공예
국립근대미술관 덕수궁	순수미술, 사진, 판화, 드로잉, 건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섬유, 공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1세기 현대 미술을 보여주는 작품, 새로운 미술 경향을 선도하는 전시, 국내외 첨단 미술 트렌드 워크숍.
국립근대미술관 덕수궁	19세기 후반~20세기 후반의 한국 근대미술 전시 및 서구 근대미술 소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국내의 미술소장품 상설 전시, 미술수장고 역할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과 전문기 연구 프로그램 운영



수원 못골시장 '장터 방송' 개시

20

朝鮮日報

2009년 01월 20일 화요일 k12면 지방

“전통 시장의 멋과 정을 전합니다”

수원 못골시장 '장터 방송' 개시

“반갑습니다. 라디오 진행을 맡은 DJ 못골 김잡이 이충환입니다. 앞으로 DJ 3명이 상인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못골 라디오 방송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나는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기분을 전환해보시기 바랍니다.”

19일 오전 11시30분 수원시 지동 못골시장. 장터 군데군데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그들 소녀시대의 신나는 노래 소리가 골목시장을 흔들었다. 이날 못골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만드는 방송 '못골 은어'가 개국했다. 못골시장의 변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노래와 상인들의 인터뷰를 들려줬다. 이 방송은 앞으로 매 주 월·목요일에 30분씩 운영될 예정이다.

'못골 은어' 개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수원화성 팔달문 근처에 있는 못골시장은 반찬 등 식재료 전문으로 옛날 골목시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런 전통을 살려 10여원을 지원받아 문화가 숨쉬는 시장으로 차근차근 바뀌어가고 있다. 그 첫 결실을 맺은 셈이다. 상인회는 사무실 한켠에 마이크, 믹서와 앰프, 컴퓨터를 놓아 간이 방송국을 만들었다. '라디오 스타' DJ 3인방도 못골시장 상인들로 프로그램 진행과 대본 작성, 장비 조작 등을 맡는다. 첫날 등장한 건어물 가게 완도상회 이충환(36·DJ 김



19일 '못골 은어' 개국을 맞아 DJ 이충환씨가 마이크 앞에서 첫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고유문화 접목 전통시장 중흥 시도 건어물·순대·분식집 주인이 DJ 맡아

잡이)씨, 신지동순대 김덕원(41·DJ 솔두경김), 워터 분식집 김승일(32·DJ 못골지기)씨가 번갈아 마이크 앞에 앉게 된다.

4대째 못골에서 살고 있는 김승일씨는 '워터지킴이 못골시장'을 맡아 시장통에서 벌어지는 사연들을 전한다. 김덕원씨는 업종에 걸맞게 '김나는 솔뚜껑' 코너를 통해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첫 데이프를 끝낸 이씨는 "긴장도 되지만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 못골시장의 명물로 바꾸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못골시장에서는 점포마다 얇힌 이야기를 책과 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상점 87', 전국의 제철 특산물을 선보이는 '시골벽적 난장', 어린이 문화·경제교육 프로그램 '와글와글 학교'도 선보이게 된다. 이날 예정된 수원부시장이 참석해 방송을 지켜봤다. 21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못골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상욱 상인회장은 "앞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와 번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업엔진...5만개

문화 소외계층, 울겨울은 따뜻했네

문화일보

2009년 02월 12일 목요일 024면 문화

문화 소외계층, 울겨울은 따뜻했네

전국 242곳서 '북주머니 봉사단' 공연 일단락
유인촌문화 "연중 365일 소외지역 찾아갈 것"



10일 '정선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열린 북주머니 문화봉사단의 238번째 행사에서 강릉무용 협회 소속 박선자 무용단이 부채춤을 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춥고 지루한 겨울 자락을 웃음과 미술과 노래로 흥겹고 재밌게 지내게 해 주신 북주머니 봉사단님들, 혜성원 식구들 모두가 정말 감사하고 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웃음과 희망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웃었습니다." (1월17일 ID 프리승화)

"멋진 영화와 공연, 맛있는 간식까지. 정말 열정으로 저희 이용자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동 가득, 웃음 가득, 대한민국 곳곳에 행 '북'이 넘쳐나는 그날까지 봉사단의 봉사여행이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2월3일 ID 싸까지 k2hrbus)

전국의 복지시설과 농산어촌 지역을 찾아가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북주머니 문화봉사단'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win02009>)에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남긴 글을 보면 우리 주변에 문화 소외 계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5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해온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북주머니 문화봉사단과 함께 하는 40일간의 여행) 사업이 오는 13일 제주 행사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으로, 전국 242곳 2만5000여명의 문화 소외 계층이 다양한 공연 관람과 건강검진, 마을 꾸미기 등의 혜택을 받았다. 노일식 문화부 문화정책국 여가정책팀장은 "경제가 어려운 데다 문화 행사가 드문 겨울에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권역별 (도별)로 봉사단이 구성되고 지역 문화예술인 약 2600명이 참여했다.

북주머니 문화봉사단의 방문 대상은 이번 사업을 주관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한국문화복지협의회 등이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 확정했다. 체육진흥추진표공공의사업적립금(토로 적립금) 중 13억 원을 지원받아 이번 사업이 시행된 만큼

1곳당 행사 비용으로 약 500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북주머니 문화봉사단은 ▲웃음북주머니 (마당극·인형극·연극·미술·마임 공연 등) ▲건강북주머니 (요가·생물체조·스포츠댄스·건강검진 등) ▲전통북주머니 (국악·민요·사물놀이·한국무용·한지공예 등) ▲미술북주머니 (미술인화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꾸미기 등) 등의 프로그램 중 각 지역 방문 대상이 원하는 내용 2-3가지를 선정해 행사를 꾸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움직이는 박물관' 버스 2대와 '찾아가는 건강센터', '찾아가는 영화

관' 등 총 4대의 '찾아가는 문화버스'도 북주머니 문화봉사단과 함께 전국을 돌았다.

10일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1급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요양원인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원장 신현만 신부)에서 열린 북주머니 문화봉사단의 238번째 행사를 찾은 유 장관은 '소외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이 사업을 연중 프로그램 바퀴 365일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환기자 ycchoi@munhwa.com

한국일보

2009년 02월 19일 목요일 J16면 지방

“스키를 배우다니 꿈만 같아요”

평창 드림프로그램 개막

“하얀 눈 위에서 스키를 배우다니 꿈만 같아요.”

아프리카 소년 등 평생 처음으로 눈을 본 29개국의 외국 소년 소녀들이 강원 평창에서 스키, 스케이트를 배우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위해 17~26일 '2009 드림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29개국의 청소년, 지도자 등 116명이 참가했다.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 트랙 등 빙상종목은 강릉 실내빙상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알파인파 스노우보드 등 스키종목은 봉평면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컬링, 아이스하키도 추가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주말에는 강릉 고택 등을 찾아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속을 체험한다. 도자기 만들기, 태권도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며 참가국 문화도 소개돼 우의를 다진다.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 청소년들이 스노우보드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이 행사는 올해 6회째로 강원도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해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39개국 578명이 참가했으며 2005년에 참가했던 몰도바의 브라이 일리아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참가하는 등 5개국 9명이 주니어 및 국가대표로 뽑혔다. 행사기간 각국의 IOC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드림프로그램 환영식은 18일 오후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김진선 강원지사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범 강원도 국제스포츠정책관은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동계스포츠에 대한 강원도의 강점을 알리고, 유대와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곽영승기자

대전 '한국의유니버설스튜디오' 꿈꾼다

'서울신문

2009년 02월 27일 금요일 J26면 사회

대전 '한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꿈꾼다

'대전을 영화·드라마 로케이션의 메카로 만든다.'

대전시는 26일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지원 실무팀을 구성했다. 실무팀은 시 문화산업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직원, 5개 구청 문화·관광 담당자, 대덕특구지원본부 등 모두 10명으로 짜여졌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유지하고 숙박 등 각종 지원 업무를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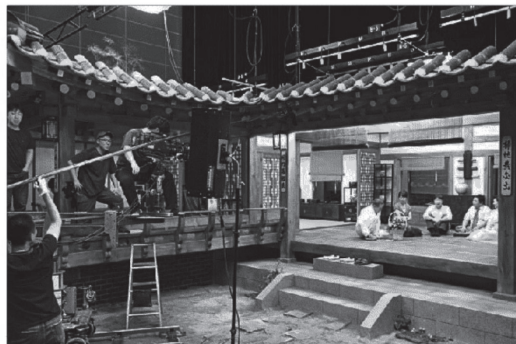
●로케이션 지원 실무팀 구성

시는 다음달 음식점·숙박업소와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의 양해각서 체결을 우선할 계획이다. 촬영때 제작진에게 밥값이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무팀은 벌써 서울 충무로 영화제작사와 각 방송사를 돌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덕특구본부 등 3곳과 영화·드라마 촬영때 장소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KAIST 등 다른 기관, 단체들과도 장소 제공 등과 관련한 협약을 추진 중이다.

대전에서는 최근 400만명이 넘

영화·드라마 제작팀 밥값·숙박료 등 할인
시, 대덕 특구본부 등 촬영장소 제공 협약



2006년 대전시 우암사적공원을 세트장으로 사용한 영화 '이대근, 이대은'의 촬영 모습.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제공

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쌍화점'이 촬영됐다. '조폭마누라2'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가문의 부활' 등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대전에서 많이 찍었다.

1999년 방송된 드라마 '카이스트'는 KAIST 출신인 윤송이 엔씨

소프트 부사장을 모델로 했고, 촬영 작업도 KAIST 교정에서 이뤄졌다. 2006년과 지난해 대전에서 촬영된 영화·드라마는 모두 46편에 이른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고화질(HD) 드라마타운'이 추진되고 있

는 것도 대형 호재다.

부지는 시가 제공하고 2012년까지 국비 1500억~2000억원이 투입된다. 실내·촬영시설을 갖춘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스튜디오로 기대를 모은다.

●엑스포공원 HD드라마 타운 조성

시는 오는 6월까지 조성계획 용역을 마무리해 정부 계획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달 이곳에 드라마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 공원의 활용방법을 고민하던 시의 짐을 일부 덜어줬다.

실무팀의 임재진 대전시 문화콘텐츠산업계장은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대전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면서 "드라마타운에 영화 관련 놀이시설을 끼워넣어 한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CT R&D 투자 확대…세계적 수준으로”

24

디지털타임스

2009년 03월 05일 목요일 003면 종합

“CT R&D 투자 확대…세계적 수준으로”

<문화기술>

유인촌 문화부 장관, 관련업계와 간담회
을 675억원 투입… 신산업 창출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술(CT) 확보를 위한 원년으로 선언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675억원을 투입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4일 국내 CT R&D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CT 분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를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녹색기술과 첨단 컨버전스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말 ‘CT R&D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까지 게임, 영상·뉴미디어, 융·복합 등을 6대 핵심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CT R&D 혁신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총 6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올해에만 전년 404억원에서 67%가 증가한 675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또 “전 세계 경기침체로 업계 전반이 어렵지만, 우리의 강점인 창의적 사고력과 문화자원, 기술이 뒷받침

다면 이른 시일 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결과물은 기기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밀접하게 연계돼 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콘텐츠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일선 업계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 CT R&D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이날 CT업체의 R&D 성과 시연과 활용 사례를 확인하

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게임업체 제이씨엔터테인먼트와 모바일 솔루션업체 디지털리아를 방문한 후,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각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예로서향 및 지원책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백일승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사장, 장덕호 디지털리아 대표, 김영찬 골프존 대표, 권강현 삼성전자 상무 등 분야별 업계 대표 13명을 비롯해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민목기자 mohan@dt.co.kr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모바일 솔루션업체인 디지털리아에서 ‘문화기술(CT) R&D 관련업체 간담회’를 가진 후 이 회사의 모바일용 터치스크린을 시연해 보고 있다. 성남=김동욱기자 gphoto@

예술가는 일자리 얻고 소외계층은 문화 혜택

문화일보

2009년 03월 05일 목요일 025면 문화

예술가는 일자리 얻고 소외계층은 문화 혜택

국악·무용·연극·영화·민화 등 각 분야의 예술가들을 전국의 초·중·고교 등지에 파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강사 제도가 올해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과 규모가 대폭 확대돼 실시된다. 문화부는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인촌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전국 예술강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예술강사제 확대... 학교·복지시설·군부대에서 활동 정명훈·남경주 등 명예교사 17명도 학생들과 만나

■ 이날 발대식에는 올해 전국 초·중·고교 4800여곳과 복지시설 600여곳, 교정·소년원, 군부대 등에서 활동할 예술강사 4000여명 가운데 180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부가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을 갖춰 실시한 예술강사 제도는 전국의 예술가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및 소외계층에 예술교육 등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예술강사 제도 도입 후 이날 처음으

로 개최한 전국 규모의 발대식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 을 위한 문화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문화부와 복지부는 올해 '복지시설 생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문화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교 4800여곳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데 투입되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 전국 예술강사 발대식'에서 국악·무용·연극·영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강사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는 예산은 58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208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예술강사가 파견되는 학교의 비율도 전국 초·중·고교 1만947곳 중 4800여곳으로 43%에 달한다. 유병한 문화부 대변인은 "앞으로 매년 예술강사의 숫자를 늘려 전국의 초·중·고교에 빠짐없이 예술강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을 계기로 마에스트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비롯해 조수미·강수진·은희경씨 등 지난해 10월 문화부와 교과부에 의해 문화예술교육 명예교사로 위촉된 17명의 예술가와 학생들의 만남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가령 정 감독은 6일과 6월19일, 8월11일, 12월29일 등 4차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에서 초등학교생 8000명과 학부모

4000명을 초청, 마에스트로와 함께하는 음악이야기'를 진행한다. 명예교사 운영은 단순 관람형 행사보다는 해설이 있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현장탐방 등과 같이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뮤지컬배우 남경주씨가 4월부터 11월까지 '뮤지컬로 즐거운 생활'이란 제목으로 문화소외지역 학교에서 운영할 뮤지컬 교실이나 문헌속 유니버설발레단장이 오는 5월부터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할 '문헌속의 해설이 있는 발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명예교사 운영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복지부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학생들과 예술강사 파견학교 학생들이며 일반학생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교과부(교육청)를 통해 학교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환기자 ychoi@munhwa.com

적극 권장
자들에게 남독의 중요성을 알리
겠다"고 밝혔다.
배서기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은 "남독회와 함께
지도 시 이해의
병행해서 더 큰
걸 바라겠다"고
"조선일보가
독문화가 제
을 것"이라며
에서 매일
으로 하도
김민
은 "남
이이다
2009년에는
이 이 방송에도
국 각
여할 것
한국인
에 나
리도 제
에게 보
지면을 통해 독
소호
자가
부는 단
발 5개
독 인
40여
사(2인식)·경기
관청을 3만실을
이라고 밝혔다.
국로부는 건축
을 추가 및 교육
제외하고 주택
규를 개정해
그동안 금지되던
건축을 허용해
를 지
의 보
에 이
과 이
"국
연출
변화
숙박
이로
이 불
업엔진...5만개

老배우 “어머니 품 같은 곳 다시 서다니...” 감격

26

朝鮮日報

2009년 04월 08일 수요일 A18면 문화

명동예술극장 34년만에 복원

老배우 “어머니 품 같은 곳 다시 서다니...” 감격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온다. 내가 태어나 뼈가 자라고 연극인으로 완성된 자리다. 내 고향, 어머니의 품 같은 곳에 있으니 목이 댕다. 극장은 잘 보이고 잘 들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 극장이 최고였다.”

34년 만에 복원돼 오는 6월 문을 여는 명동예술극장(옛 국립극장)에서 원로배우 장민호씨가 말했다. 6월 5일 개관작으로 막이 오르는 연극 《맹진사대경사》(오영진 작·이병훈 연출)에서 다시 명동 무대를 밟는 장씨는 “영광스럽다”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있는 힘 다해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명동예술극장이 개관에 앞서 7월 내부를 공개했다. 1934년 일본 건축가가 지었다는 바로크 양식의 우아한 외벽은 그대로였다. 내부공사로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로 뒀고 2~4층에 중극장(국내 기준 400~800석)을 품었다. 무대는 폭 12m, 깊이 10m, 높이가 7m였고, 연출 공간을 상하로 확장할 수 있는 트랩 테이블(trap table) 방식이었다. 말발굽형으로 배치된 객석(552석)과 무대의 거리(1층 최대 13.5m)가 짧았다.

명동예술극장은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대관(貸館) 없는 공연장’을 표방했다. 극단이 아닌 극장이 프로듀서가 돼 기획·제작을 주도하면서 극작가·연출가·배우·스태프의 다양한 결합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구자홍 극장장은 “명품 레퍼토리 제작과 대중성 확보를 통해 ‘명동 브랜드’라는 신용을 쌓을 것”이라며 “표값이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명동은 1970년대까지 한국 공연예술의 1번지였다. 지금의 명동예술극장은 1934년 820석의 명치좌(明治座)로 출발, 해방 후 1961년까지는 시공관(市



정기병 기자 gbbong@chosun.com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 들어선 명동예술극장(사진 위). 1층에 로비와 카페, 5층에는 레스토랑이 있으며 극장 내부는 말발굽형으로 객석이 무대를 감싸는 구조다(사진 아래). www.chosun.com

公館),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국립극장이었다. 유치진 이해람 등 연출가, 김동원 장민호 강계식 배성희 김진규 최무룡 허장강 도금봉 최은희 황정순 같은 배우들이 무대에 청춘을 바쳤다. 1975년 대한투자금융에 매각된 뒤 1994년부터 명동상가번영회와 연극인들이 국립극장 되찾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서명 운동에 처음 서명한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개관작 《맹진사대경사》는 잔치 형식의 희극이다. 무대에는 맹진사 친구

를 비롯해 장민호·전무송·서희송·서상원·장영남 등이 오른다. 원로배우 최은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카메오로 출연한다.

7월에는 박정자의 명연기(은달모)로 기억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최인훈 작·한태숙 연출), 9월에는 임영웅 연출의 《반오로의 긴 여로》(이해람 20주기 추모 공연), 12월엔 이윤택이 현대적으로 해석한 《베니스의 상인》이 이어진다. 개관에 앞서 5월 11일에는 연극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한다. 박준규 기자 coeur@chosun.com

2030은 소통의 장을 원한다

매일경제

2009년 04월 16일 목요일 A35면 스포츠/문화



15일 열린 젊은 문화 포럼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젊은 문화포럼’ 솔직토크 들어보니

2030은 소통의 장을 원한다

유인촌 장관 “젊은 세대 지적 반영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홍익대 앞 상상마당에서 ‘젊은 문화포럼’을 열고 2030세대와 함께 문화에 대해 솔직한 얘기를 나눴다. 이날 포럼에서 2030세대는 ‘젊은이는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언제 감격하는가’ 주제를 놓고 가감 없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유원준 웹진엘리스는 편집장은 “2030세대의 문화코드는 가상화된 문화 속에서 생성된다”면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음악감상, 영화감상, 게임, 오락프로그램 시청 등을 통해 스스로의 유희적 본능을 해소한다”고 지적했다.

유 편집장은 “인생 전체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2030세대에게 있어 현

재의 가상화된 대중문화가 각자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콘텐츠가 탄탄해야 2030세대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가수 김동률 이적 등의 노래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콘텐츠가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대의 2030세대가 지향하는 문화코드의 방향성은 확립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윤경 방송작가는 “성별이나 혼인 여부, 외모를 떠나 2030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직하고 그 목적이 취입이든 꿈이든 연이든 결혼이

든 소통할 때 감격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이들의 소통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집이든 도서관이든 인터넷이든 소통의 집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민아 부산대 외래교수는 “2030 젊은이들은 안정된 직장을 필요로 하고, 자기 자신을 더 꾸밈으로써 신체 자본이라고 불리는 외적 아름다움에 감격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취업과 승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외국어와 자격증을 위한 공부 등 자기계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책을 만들 때 책상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젊은 문화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문화현장에서 나온 젊은 세대의 지적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환 기자

매일경제

2009년 04월 27일 월요일
A01면 종합

DMZ 인접지역 관광벨트로

고성군~웅진군 국토횡단 트레일코스 조성

유인촌장관 매경 대담

비무장지대(DMZ)에 연결한 접경지역을 관광상품화해 평화·생명지대(PLZ·Peace Life Zone)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쪽의 고성군부터 서쪽의 웅진군까지 국토횡단 트레일코스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별로 테마관광 코스로 개발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화·생명지대는 DMZ와 민통선 및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며 “체계적인 관광자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들 지역의 관광상품화는 정부가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생태관광”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우선 한국관광공사와 남측 인접 10개 시·군들과 협조해 ‘평화·생명지대 관광자원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오는 10월 완료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용 등 민감한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해



본격적인 예산 투입은 2011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LZ 개념은 DMZ와 인접지역을 포괄하지만 관광자원 개발은 인접지역에서 이

뤄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 횡단축으로 연결된 천혜의 생태자원 보고이자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역사문화의 교육체험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5월 중 국내 거주 외국 유학생, 국내외 언론인, 여행업체 등이 참여하는 팸투어를 시작으로 온라인 사이트 운영과 이벤트 개최, 홍보간행물 제작·배포를 통해 홍보 조성에 나선다.

접경지역 10개 시·군별 테마 관광자원으로 파주시는 임진각 및 판문점 등 DMZ를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연천군은 선사유적 학습장 △철원군은 세계 철새도래지 △인제군은 만해의 평화사상 △김포시는 한강하구 역사이야기 △웅진군은 접박이 불법 서식지 △강화군은 항쟁의 섬 등이 꼽힌다.

▶관련기사 A34면
윤상환 기자

“땡땡땡”... 명동극장 ‘34년 만의 집들이’

朝鮮日報

2009년 05월 12일 화요일 A30면 사람들

“땡땡땡”... 명동극장 ‘34년 만의 집들이’

재개관에 연극인들 ‘감격’

“땡땡땡땡땡...”

서울 명동예술극장(옛 명동국립극장)에서 34년 만에 집이 다시 올었다. 그 첫소리만큼이나 길고 목직한 박수가 객석에서 터졌다. 붉은 무대막이 오르고 원로배우 장민호가 걸어나왔다.

“내 자랑, 내 명동극장, 오늘은 집들이 하는 날. 오나오나, 이제 죽어도 이 할애비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경사를 살아서 맞이할 줄 뉘 알았는고...”

라이브 연주와 구음(口音)이 흐르고 명동의 옛 추억들이 영상으로 투사됐다. 객석, 계단, 분장실, 무대, 거리, 포스터... 낡은 흑백사진들 속에 이해랑 김동원 등 고인이 된 배우들도 불러 나왔다.

11일 오후 3시 명동예술극장(극장장 구자홍) 분장실. 좁은 공간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가득 찼다. 장민호 백성희 최은희 김길호 오순택 권성덕 강부자 김진태 김벌레 정동환 윤복희... 1934년 명치좌(明治座)로 출발, 해방 후 1961년까지 시공관(市公館) 시절을 거쳐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국립극장이었던 이 공간을 되찾은 배우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이었다. 최은희는 “이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 아팠다”며 “새까맣게 잊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11일 명동예술극장 분장실에 모인 배우 장민호 김금지 백성희 강부자, 극작가 노경식, 배우 김길호(왼쪽부터). 뒷줄은 배우 서희승 정동환. 누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라고 했다. www.chosun.com

데,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연극인들을 초대한 이날 집들이 ‘명동의 추억, 명동의 예술’은 정동환 예술단의 비나리 공연으로 열렸다. 우산을 쓰고 가던 행인들이 통유리 안쪽을 들여다봤다. 연극인들의 ‘나를 취하게 한 명대사’ 릴레이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산불’의 한 토막을 보여준 강부자는 “임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눈물이 나온다. 좋은 날에는 눈물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 무대에서 데뷔한 가수 윤복희는 대사 대신 노래를 불렀다.

“어디 갔나 내 어머니/ 불려도 대답 없네/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그리운, 엄마.”

명동은 1970년대까지 한국 공연예술의 1번지였다. 유치진 이해람 같은 연출가, 김동원 장민호 강계식 백성희 김진규 최무룡 허장강 도금봉 최은희 황정순 같은 배우들이 이 무대를 밟았다. 1975년 대한투자금융에 매각됐고 1990년대 초부터 명동상가번영회와 연극인들의 국립극장 되찾기 운동이 펼쳐졌다.

이날 집들이에는 배우 김인태 박웅 배수련 강태기 서희승 윤석화, 극작가 노경식, 연출가 임영웅 김정옥 손진책 윤호진 김석만 심재찬, 박계배 연극협회 이사장, 최치림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장환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예회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하늘은 곳이라도 오는 걸음은 가 베풀 날”이라며 “우리 연극계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돈규 기자 coeur@chosun.com

“기능성게임 5000억 시장으로 키운다”

30

전자신문

2009년 05월 15일 금요일 001면 종합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능성게임포럼, 전자신문사 공동 주최로 14일 서울 우신초등학교에서 열린 '기능성게임 활성화 전략 보고회'에서 유인촌 장관과 나경원 의원(왼쪽부터)이 위정현 교수(기능성게임포럼 교육분과장)로부터 교육용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정동준기자 dschung@etnews.co.kr

“기능성게임 5000억 시장으로 키운다”

정부, 800억 투입... 활성화 전략 마련

정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정부가 기능성게임의 개발과 보급에 800억원을 투입, 오는 201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14일 기능성게임포럼(위원장 이상희)은 서울 영등포구 우신초등학교에서 '기능성게임 활성화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기능성게임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 관련기획 8면

포럼은 이날 보고회에서 기능성

게임 활성화 전략으로 △창작·연구 활성화 △연구개발 강화 △보급·유통 활성화 △사회인식 제고 및 홍보 확대 △해외진출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 강화의 5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포럼이 내놓은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총 800억원의 예산을 기능성게임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기능성게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블루오션”이라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우신초등학교에서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사회 과목 수업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성게임인 '아이팝매스'도 소개됐다.

기능성게임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능성게임포럼은 문화부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AIST 기능성게임연구소가 공동 주관한다.

문화부와 전자신문이 힘을 합쳐 게임에 순기능을 점목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해 게임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9일 포럼을 발족했다.



기능성게임 = 재미나 즐거움 뿐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게임을 말한다. 교육·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놀이기능과 업무향상 기능을 동시에 추구한다. 교육용 게임이나 군사 시뮬레이션 게임, 메디컬 게임 등이 해당한다.

“콘텐츠산업 동반 성장 호기로”

■ 전자신문

2009년 06월 17일 수요일 031면 기획 시리즈

“콘텐츠산업 동반 성장 호기로”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지난 20여 년을 지속해 왔던 SEK를 포함한 주요 4대 국내 정보기술(IT) 전시회가 통합을 이뤄 글로벌 비즈니스에 교두보 역할을 다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마련된 월드IT쇼(WIS)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IT 분야의 발전은 디지털 세상을 여는 관문이 되었고, 열린 사이버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 세상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사회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의 생활 방식과 습성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업 경제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은 단순히 소비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웹 2.0'이 실 생활에 정착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잘 구축된 IT 및 방송통신 인프라가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찍이 우리 국민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녹아든 드라마와 영화로 온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온라인 게임으로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새로운 오픈 마켓의 등장으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 낸 콘텐츠로도 기업의 콘텐츠 못지않게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체를 갖추나가고 있습니다.

IT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WIS를 통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호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일신문

2009년 06월 17일 수요일 018면 정책



노동부-문화부 사회적일자리 제휴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20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3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기업 '노리단' 공연을 감상했다. **사진 노영희 제공**

예술계 ‘현금’ 대신 ‘시설’ 지원

문화일보

2009년 06월 17일 수요일
002면 종합

예술계 ‘현금’ 대신 ‘시설’ 지원

문화부, 개선방향 발표

문학·공연 사후지원도

■ 내년부터 문화예술계에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공연장·연습실·전시공간 등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나 공연장과 예술단체를 연결해주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또 관객이나 평론가들의 검증을 거친 공연 작품이나 문인을 지원하는 사후지원사업이 처음 도입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사무처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본관 건물(옛 서울대 문리대)은 대학로 일대에 상주하고 있는 120여개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로 예술지원센터’로 조성된다.

오광수 문화예술위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아같은 내용의 ‘2010년 예술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간접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지원사업(100억원)과 공연예술 전용공간 운영지원사업(19억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170억원),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무대 스태프 인력풀 제도(3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 10억원 정도까지 보증금을 지원할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은 제작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장이나 연습실, 전시공간 등을 지원해 제작비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손실도 없애자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공연예술 전용공간 운영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10억원), 전시(9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사후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예술위가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 지원해온 방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사전 지원에 비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로 예술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아르코예술극장도 문화예술위에서 분리된 뒤 대학로예술극장과 통합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진다.

최영형기자 ychoi@

장애인용 관광버스 타보세요

헤럴드경제

2009년 07월 09일 목요일 Y09면 사회



장애인용 관광버스 타보세요

유인촌(왼쪽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부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주최 장애인용 관광버스 시승식에 나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버스에 오르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문화콘텐츠 강국 만들자”

36

디지털타임스

2009년 07월 29일 수요일 003면 종합



“문화콘텐츠 강국 만들자”

▶관련기사 5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와 함께 국내 콘텐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광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첫번째)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세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불법음원근절에 대한 의미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

적극 권장

자들에게 남독의 중요성을 알려
겠다”고 밝혔다.

백성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

“남독회와 함께
지도 시 이해의
병행해서 더 큰
길 바라겠다”고
은 “조선일보가
남독문화가 제
를 것”이라며
오에서 매일
크로스를 하도
방송에 제가 나
2009년에는
이 이 방송에도
할 계획”이라고

장은 “
해야 할
졌다”고 밝혔고, 이종원 한국
판인회의 회장도 “지금까지 누구
나 남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막상 투쟁을 열기
어려웠던 일을 이번에 제대로 한
게 됐다.”

김년
은 “남
이이다.
국 각
여할 것
한국연
에 나
라도 제
에게 보

발표

단지 조성

사물(2만실)·경기
관공로 3만실을
이라고 밝혔다.
면 국토부는 건축
를 주가 및 교육
제외하고 주택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금지되던
건축을 허용해주

무지침’을 개정해
이상의 수도권 재
개발 시 도시개발
설 유치와 배치계
계획이다. 도시개
공시행자가 호텔
이후로 공급할 수
시행방’도 개정
이 불

업엔진...5만개

이 활성화되지 않은
발전 가능성이 높으
[지오.1인 창조기업
추진안이 그릴습니
과 함께 창조기업
활을 떠안아야 할 때

내년 2월 패션위크 정부지원

디자이너 6개팀 소품 열기로

내모라하고 해외에도 이름을 알린 한국 디
자이니 6개 팀이 남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선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업고 세계 패션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 정
식으로 소개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는 김석원 디자이너도 “지난해 2월부터 뉴
욕에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지만 세계 급
업자 이민국 승인이 필요”라며 “그간
30여 팀 중에서 선발됐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한
국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해적이다. 문화부는 한국콘텐츠
진흥원과 함께 2010년 10월 1일부터

특히 첫번째는 현지 패션 관계자와 유력
인사, 영향력 있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모
집인 300명 이상을 초청할 예정이다. 2010

보 마케팅을 주도하는 것 프로젝트인
태다 오픈스 행사가 미국 패션산업
협회(CFDA)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의미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종원
이더의 사신

준비하는 중
주목하고 있다.
자이비들이 가
도하지만 가장
”이라고 밝혔
들이

를 통해 “단
가나라 새로
”면서 “197
처럼 일본
적 가치를 사
라고 기대
하는 열대
확진율위
30%대

지나해 예
늘어난 것이
교의 비율도
중 480여곳
문화부 대변
사의 숫자를
배진없이 예
지원할 계획

4기로 미
강국을 비
들 지난해
1회 문화예술
7명의 예술가
1회 본격적으

8월19일, 8월
김치 세종문
00명과 학부

프로와 함께하
방예교사 운
는 해설이 있
관방 등과 같
한 프로그램

태로 진행을 예정이다.
뮤지컬배우 남경주씨가 4월부터 11
까지 뮤지컬로 출연하는 이란 제
으로 문화소외지역 배교로 운영
지점 교실이나 문운속 유·초·중·고
집이 오는 5월부터 전국 각지를 순

유인촌 장관, 공옥진 여사 병문안

세계일보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028면 사람들

유인촌 장관, 공옥진 여사 병문안

11년째 뇌졸중 투병... “병신춤 마지막 공연 지원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년째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76) 여사를 지난 10일 병문안했다.

유 장관은 공 여사의 두 손을 잡고 “우연히 여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며 “항상 생각을 편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고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고 위로했다.

공 여사는 이에 “고맙다”고 말한 뒤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손도 잡고 춤도 덩실덩실 추면서 공연할 때 예술세계를 느꼈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또 “병신춤을 춘다고 중상모략하는 소리를 들

을 때 가장 힘들었다”며 “곰사등인 조카가 나에게 곰사춤을 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게 됐는데 인기를 끌었고, 이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자신이 병신춤을 추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기운을 차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공연을 한다면 홍보와 마케팅 등 모든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예술연구소 연습실 한쪽 4평짜리 방에서 생활하는 공 여사는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2004년 공연을 마치고 나오다 두 번째 쓰러진 끝에 왼쪽 몸이 마비돼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영광=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오른쪽)이 10일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공옥진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영광=연합뉴스

“국립문화예술단체 법인화 추진”

38

서울경제

2009년 10월 17일 토요일
A01면 종합

“국립문화예술단체 법인화 추진”

유인촌 문화부장관 밝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극단·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문화예술단체의 재정 법인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린 ‘2009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국립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에도 국립무용단의 경우 출출 수 없는 연료한 단원이 버티면서 신분보장 문제 등을 주장해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화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줄

고 사업 수익금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 그동안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예술단체는 창의적인 기획이 필수적인데 공무원들은 실패할 경우 책임소재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예술단체의 법인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물을 영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예술의전당·영화진흥위원회 등에는 관록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법인화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제주=우현석기자 hmskwo@sed.co.kr

‘흥물’ 폐석산이 문화공간 변신

세계일보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K12면 지방종합

‘흥물’ 폐석산이 문화공간 변신

‘포천 아트밸리’ 24일 개장

30년 동안 돌을 캔 뒤 방치됐던 폐석산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오는 24일 개장한다.

경기도 포천시는 총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신북면 기지리 14만743㎡의 폐석산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최근 완료돼 24일 아트밸리 소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개장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 등 1700여명이 참석하며, 제막식과 돌문화 전시장 관람, 모노레일 시승, KBS 7080콘서트 등이 열린다.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병풍처럼 둘러싸인 절벽과 채석과정에서 만들어진 7040㎡ 규모의 인공호수가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는 폐석산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부의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문화예술공간인 아트밸리로 변모한 경기도 포천 폐석산. 포천시 제공

2004년부터 부지를 매입해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벌인 시는 그동안 길이 1.32km, 너비 10m 진입로를 개설하고, 연면적 2184㎡ 규모의 건물 3채를 지어 전시관 등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외공연장 2곳과 이벤트 광장 조성, 호수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도 설치했다. 특히 매표소에서 전시관까지 경사 23도의 420m 주보행로에 45억원을 들여 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친환경 모노레일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다. 포천=박석규 기자

우리금융 아트홀 개관행사

40

헤럴드경제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025면 피플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 꿈과 상상의 터 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피크역도경기장

우리금융 아트홀 개관행사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우리금융아트홀' 개관행사에 참석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아 국회의원, 전병관 선수, 송승환 씨 등 스포츠·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아트홀은 올림피크역도경기장을 새롭게 개조한, 다목적 뮤지컬 전용극장이다.

‘한국 방문의 해’ 개막

한국경제

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A01면 종합



‘한국 방문의 해’ 개막

김윤옥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배우 이병헌씨 등이 1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서울과 함께’ 개막식에서 세계 등 축제를 관람하고 있다.

/김병연 기자 misaeon@hankyung.com

“대형 극장 교차상영 해도 너무해”

42

한겨레
THE HANGYERE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028면 사회



“대형 극장 교차상영 해도 너무해”

‘집행자’ 주연 조재현씨 등 탄원서 문화부 제출

배우 조재현(왼쪽부터)씨와 제작사인 활동사진의 조선묵 대표, 최진호 감독 등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자> 교차상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집행자>가 247개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영관에서 개봉했는데도 개봉 첫 주 개봉작 관객수 1위를 차지했다”며 “장기 흥행 가능성이 있는데도 극장들이 교차상영을 결정해 불공정한 상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 <집행자>는 사형 집행의 부활이라는 논쟁적 주제를 교도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개봉 2주차를 맞아 교차상영 방식으로 상영 횟수를 축소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차상영이란 한 스크린에서 여러 영화를 번갈아 뜨는 것을 말한다.

조씨 등은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유의미한 흥행 성적을 올리고 있는 작품이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치조차 갖지 못한다면, 한국 영화의 제작 시스템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찾아가 유인촌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사진 연합뉴스

“한국패션, 글로벌 무대로”... 뉴욕 상륙작전

東亞日報

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A35면 투데이

“한국패션, 글로벌 무대로”... 뉴욕 상륙작전

내년 2월 패션위크 정부지원
디자이너 6개팀 쇼룸 열기로

박춘무, 엔디&렘(김석원 윤원정), 이도이, 정구호, 정옥준, 홍승환... 국내에서 내로라하고 해외에도 이름을 알린 한국 디자이너 6개 팀이 날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선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패션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 정식 소개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부에서 만난 박춘무 디자이너는 “영광”이라며 한껏 고무돼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 후반 뉴욕 소호에 매장을 열었다가 2001년 9·11테러로 직격탄을 맞아 철수했던 그에게는 제2의 기회가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부인 윤원정 디자이너와 함께 엔디&렘이라는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



한국 패션문화소류 구축 사업 발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 패션문화소류 구축 사업’ 발표회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참여 디자이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홍승환 정구호 정옥준 디자이너, 유 장관, 박춘무 윤원정 이도이 김석원 디자이너(왼쪽부터), 사진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는 김석원 디자이너도 “지난해 2월부터 뉴욕에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지만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군분투하는 디자이너들에게 희망이 되는 기회”라고 밝은 표정을 보였다. 이들 6개 팀은 까다로운 심사 끝에 국내 유명 디자이너 30여 팀 중에서 선발됐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한

국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내년 2월에 열리는 뉴욕패션위크 기간에 맞춰 현지에서 ‘콘셉트 코리아’를 주제로 ‘한국패션문화소류’를 연다. 전시공간인 쇼룸은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마련돼 2월 12일부터 3일간 디자이너들의 패션쇼와 전시로 진행된다.

특히 첫날에는 현지 패션 관계자와 유력 인사, 영향력 있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오프닝 파티를 열어 한국 음식과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한국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직접 홍보 마케팅을 주도하는 첫 프로젝트인데다 오프닝 행사가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CFDA)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현지 큐레이터와 사진가 등으로 팀을 꾸려 쇼룸을 준비하는 등 뉴욕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구호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들이 개별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홍보와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획한 이번 쇼룸이 디자이너들에게 든든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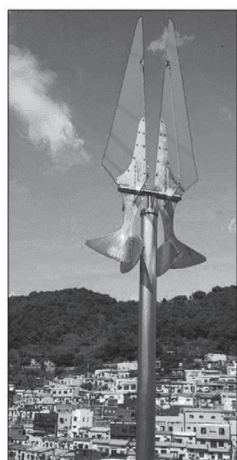
강혜승 기자 lineday@donga.com

東亞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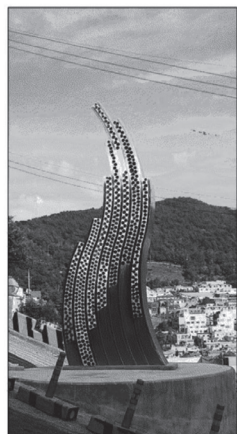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P20면 지방

산동네가 예술마을 됐네

부산 '꿈꾸는 마추픽추' 사업... 태극도 마을에 조형물 10점 설치



'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으로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산복도로에 설치된 작품 '꿈모임'. 사진 제공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작품 '무지개가 피어나는 마을'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및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생활공간 공공미술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된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10개 조형물 설치작업이 끝난 곳은 사하구 감천2동 산복도로 일대 일명 '태극도 마을'. 부산 대표 산동네로 6·25전쟁 당시 모여든 피란민들이 모여 산 곳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서로 배려하며 살을 맞대고 살면서 민속문화 원형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산허리에 계단식으로 형성된 이 마을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26일 찾았다. 공공미술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반응도 들어보려는 취지.

산동네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것은 6월. 전국 공모 9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예술창작문예단체인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대표 진영섭)가 밀그림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원도심 보존과 재생'이 기본 개념.

설치 작품 10개 중 4개는 주민 참여로 제작됐다. 인근 감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채색한 도자기 벽화 '우리가 가꾸는 꽃길'과 우리누리공부방 학생들이 저마다 장래 소망을 그린 '내 마음을 풍선에 담아요' 사람이 희

망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가져다 준 빈병으로 만든 '무지개가 피어나는 마을'과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에는 주민의 소원과 꿈이 담겨 있다.

초록색 2층집 옥상 난간에 놓인 '사람 그림자'와, 푸른빛 조명이 환상적인 '희망의 노래를 담은 풍선', 바람이 불면 여러 마리 잡자리 날개가 돌아가는 '가을여행', 곤충 형태의 노란색 날개가 움직이는 '꿈모임', 버스정류장 벤치를 작품화한 '꿈꾸는 물고기', 웅벽을 꽃동산으로 바꾼 '하늘 계단'은 낙후된 마을을 예술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문화마을로 확 바꿨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현재 이 일대 산복도로와 골목길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보다 기존 공간을 보존하고 되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부산시는 주민을 비롯해 건축가, 미술가, 대학교수 등으로 '살기 좋은 문화마을 조성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내년부터 공동화장실 개선, 마을주차장 조성, 썸지공원 조성, 노후불량주택 개선 등으로 문화가 있는 미술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은 "감천2동 미술프로젝트는 문화공간 가꾸기 사업의 시발점"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부산을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작품 '가을여행'

음·면·리·동까지 문화를 심겠다

매일경제

2009년 12월 08일 화요일 A34면 스포츠/문화

문화예술 희망바이러스 ㉠



음·면·리·동까지 문화를 심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문화 행정이라는 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다. 출중한 연기자, 대학 교수, 극단 대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거쳐 문화행정의 최장에 오른 유인촌 장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은 '문화가 국민 생활 속에 살아 숨쉬게 하겠다'는 평소의 신념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올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문화향유 기회를 나눠주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내년에는 음·면·리·동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를 촘촘히 심겠다는 각오로 문화부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성과는.

▶1년간 15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땅끝마을 해남, 제주, 울릉도, 산간벽지, 복지·교정시설, 군부대 등을 찾아다녔다. 음·면·동·리에 사는 분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만족할 수 없다.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이라는 큰 가치를 실천을 통해 재발견했다. 장기적으로 지역과 계층 고루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발

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내년 문화나눔 사업 계획은.

▶두메산골이라고 해서 가지 없는 문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문화적 소통의 기회가 단절, 차단되어 있다. 그곳까지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올해는 '소외지역 순회공연'이나 '찾아가는 문화버스' 등으로 한정적으로 찾아갔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보다 장기적 안목의 체계를 갖춰가며 좀 더 촘촘하게, 빈번하게 문화의 소통과 나눔을 심화시키겠다. 온 국민 기초생활권인 리·동까지, 구석구석 찾아볼 거리가 있고, 일상적 삶이 문화예술과 근접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민간이나 기업의 문화나눔 참여 확대 방안은.

▶아직은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간대(명예와 보람)를 확산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기업의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 순회사업에 기업 문화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기업 협력을 확대하도록 유

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기부금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사업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체험하는 게 필요하다. 올해는 다문화뮤지컬 '더브 인 아시아' 전국 순회공연을 추진했다. 아리랑TV와 KTV 등과 연계해 이주민 정착 성공사례를 적극 알려 이주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지방문화원 도서관 등 지역문화시설을 활용에 이질적인 문화의 벽을 없애고 문화로 소통하고 나누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 문화 예산이 3조원을 돌파한다. 어디에 집중 투자되나.

▶내년도 우리 경제는 4%대의 성장에 예상되고 있어 위축된 문화부문의 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균형과 문화분야의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문화를 통해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문화서비스가 퍼져 나가도록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윤상환 기자·사진/김효영 기자

“가고싶은 섬 사업 반드시 뒤엎겠다”

『서울신문』

2010년 01월 11일 월요일
029면 사회

“가고싶은 섬 사업 반드시 뒤엎겠다”

유인촌장관 개선의지 강하게 밝혀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돼온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에 대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뒤엎을 생각”이라며 사업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

에 따라 참여정부 때 시작된 '가고싶은 섬' 사업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경남 통영 매물도와 전남 완도 청산도 등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9일 밤 전남 진도군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사업 컨설팅단과 간담회를 갖고 “섬의 특징을 살리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인데 (기존) 접근방법이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고싶은 섬' 사업은 매물도, 청산도, 외연도(충남 보령), 흥도(전남 신안) 4개 섬에 2011년까지 총 458억원(국비 222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유 장관은 “섬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사람 많이 온다고 펜션을 계속 지으면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끊긴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에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포틀러원(F1) 대회 경주장건설현장인 영암을 방문, F1대회 경주장건설사업의 지속 적인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 복제는 NO ... 100% 정품만 쓰지요”

48

중앙일보

2010년 01월 12일 화요일 E15면 경제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 복제는 NO ... 100% 정품만 쓰지요”

정품 SW 우수기관으로 뽑힌 금융자동화기기 회사 'FKM'

금융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인 에프케이엠(FKM)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9년도 정품 소프트웨어(SW)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FKM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SW 불법 복제를 단속하고 100% 정품 업무용 SW를 구매했다. 특히 분기마다 사내 PC 점검과 직원 교육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까지 한다.

불법 SW 복제율이 43%에 달해 '허울 좋은'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FKM은 모범 사례다. 지금도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선 24시간 쉴 새 없이 불법 다운로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공공기관조차 불법 복제 SW를 죄의식 없이 사용하는 실정이다. (2009년 12월 2일자 E1, E9면)

그래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정품 SW 이용 모범 회사로 꼽은 FKM의 사례를 알

아봤다. 이 회사의 경영지원총괄부내사에서 쓰는 SW와 관련된 ▶담당자 ▶관리대상 ▶점검 실적 ▶교육 자료 ▶모니터링 데이터 등의 자료가 비치돼 있다. 담당자는 250여 명의 직원과 2100여 개의 업무용 SW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불법 여부를 점검한다. 이런 정기 점검 직후엔 모든 직원에게 정품 SW 이용에 대한 교육도 한다. 김일성 FKM 경영지원총괄부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피스’는 가장 많이 쓰는 업무용 SW”라며 “현재 사용하는 110여 개의 똑같은 오피스도 모두 정상적으로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정부의 불법 SW 현장 단속에도 끄떡없었다. 단속반이 지난해 상반기 이 회사를 급습했지만 어떤 위반 사실도 찾아내지 못했다. 특히 최근 정부 실사단은 FKM을 정밀 점검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정품 SW 사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FKM의 심재수 사장(오른쪽)이 유인촌 장관과 기념촬영을 했다. [FKM 제공]

모든 SW에 대해 100% 정품 인증을 했다. 이번에 정품 SW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정부가 추천해서다. 심재수 FKM 사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은 저지

르지 말자는 게 회사의 경영철학”이라며 “정품 SW 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도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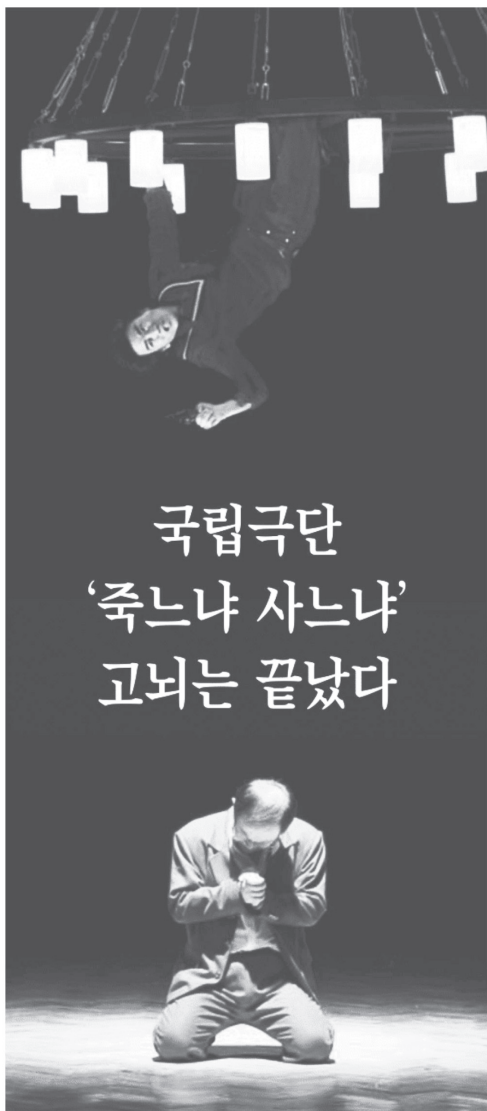
FKM은 일본 후지쓰의 자회사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회사였던 제일정밀공업이 외환위기로 부도가 나면서 후지쓰로 넘어갔다. 심 사장은 “부도 당시에도 회사 직원들이 은행을 찾아가 ATM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후지쓰가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FKM은 30억원이던 매출을 10년 만에 700억원대로 끌어올렸다.

한편 정부가 선정한 2009년도 정품 SW 우수 기관은 FKM을 비롯해 코스콤·한화S&C·대산의료재단·다이이치기업 5곳과 인천시 연수구청, 목포시청, 충주시청, 부산시교육청 등 행정기관 4곳이다. [이원호 기자 ywahn@joongang.co.kr](mailto:ywahn@joongang.co.kr)

국립극단 '죽느냐 사느냐' 고뇌는 끝났다

朝鮮日報

2010년 01월 14일 목요일 A20면 문화



국립극단 '죽느냐 사느냐' 고뇌는 끝났다

국립극단 연극으로는 드물게 유료관객이 많았고 평도 좋았던 《테러리스트 햄릿》(2007년). 전체 객석 중 34%가 판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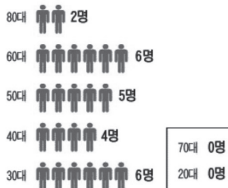
‘무능 단위’ 가치없이 퇴출

국립극단이 대폭 리모델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전속단체에서 올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는 국립극단 단위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11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장민호·백성희 두 원로단원만 종신단원으로 남고 나머지 단위들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재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삼 각형홀로 고령화돼 있는 국립극단을 사실상 해체-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신뢰 상실

현재 국립극단 단위 23명의 평균 연령은 53.2세다. 장민호(86)·백성희(85)를 비롯해 60~80대 단원이 8명(35%)이고 2002년 들어온 이은희(35)가 막내다. 대부분 입단 20~30년이 넘는 단원들이다(그래픽 참조).

국립극단원 연령 분포



국립극단이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2000년대 들어 주목받은 국립극단 연극은 《테러리스트 햄릿》(겨울 해바라기) 등 극소수다.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한 30대 배우는 “눈빛이나 몸이 살아 있지 않은 국립극단 단원을 여럿 봤다”면서 “연륜을 존중하지만 이상적인 국립극단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립극단 물갈이론’은 나온 지 20년 됐지만 말뿐이었다. 2년 전엔 ‘60세 청년제’ 논의가 있었지만 노조(勞組)의 반대로 유야무야됐다.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지낸 연출가 김철리는 “그 동안도 평가를 하긴 했지만 단원을 퇴출시킬 수는 없는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말했다. 연출가 이윤택도 “제한된

배우들이 국립극단을 장기 독점하는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변화하나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연극계의 중론이다. 한 중견 연출가는 “현 단위에게도 똑같이 경쟁할 기회를 주면서 능력을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연극평론가 김윤철은 “1~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 계약을 갱신하는 독일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단원을 선발하면서 상근·비상근, 정단원·준단원·연수단원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

국립극단은 한 해 4~6편의 연극을 50~60회 공연한다. 지난해 국립극단 예산 28억원 중 공연예산은 5억원이

단원 셋중 한 명, 60~80대 ‘청년제’ 등 그동안 말로 그쳐 고령화에 평단·대중 외면... 문화부, 사실상 재구성 결단 계약제 단위 선발 검토도

채 안 됐고 경성비로 대부분을 지출했다. 올해는 법인화 예산을 포함해 50억원을 배정,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치림 예술감독은 “예술 위에 행정이 있는 구조도 바로잡고,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국립극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화는 자생력을 키우라는 요구다. 국립발레단의 경우 2000년 법인화 이후 자리를 잡아 10년 사이에 예산이 4배 늘었다. 지난해 국립극단에서 나온 배우 이상정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문화부의 행정력도 문제였다”라며 “통증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국립극단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갈이도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규 기자 coeun@chosun.com

'서울신문'

2010년 01월 20일 수요일
026면 행정

중앙박물관 앞 '한글박물관'

문광부 2012년 완공키로

한글박물관이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전면에 들어선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9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를 '박물관 복합단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중앙박물관 정문 동측 부지 1만 2000㎡에 한글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12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글박물관은 중앙박물관 경내에 조성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위치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글박물관 건립 자문회의는 정문 동측 부지가 사실상 중앙박물관의 앞마당이자 때문에 해당대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앙박물관은 용산 가족공원과 맞닿은 쪽과 박물관 정면의 담을 허물어 '열린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한국언론진흥재단출범

한국일보

2010년 02월 02일 화요일 A06면 종합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이 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기존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기구다. 왼쪽부터 고홍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성준 이사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형오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상 국회부의장, 김인규 KBS 사장,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연합뉴스

“작가회의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52

경향신문

2010년 02월 13일 토요일 002면 종합

“작가회의 집회불참 확인서 요구 잘못”

유인촌 문화부 장관 밝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작가회의에 ‘집회 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 “방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2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시위를 하거나 반정부적 행위를 할 경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맞지만, 꼭 그렇게 (확인서를 쓰라고) 할 필요는 없었다”며 “나에게 하라고 해도 신경질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에는 맞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한 지붕 두 위원장'체제의 문화예술위 사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재판 (1심에 대한 항고) 중인 사안이라 일부러 조심하고 있다”며 “김정현 위원장이 세상이 바뀐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하니 내가 오히려 더 (가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도 문화계의 어른인데 어른스럽게 기다렸으면 좋겠다”면서 “시간이 지나 서로 진정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고은 기자 freetree@kyunghyang.com

“제주 올레길 같은 ‘스토리관광’ 상품 대폭 늘리겠다”

한국경제

2010년 02월 23일 화요일 A12면 기획

“제주 올레길 같은 ‘스토리 관광’ 상품 대폭 늘리겠다”

보는 관광서 문화·세험으로
관광 패러다임 바뀌어

예술의 전당같은 극장
서울에 3~4곳 더 있어야

“영국은 경제적으로 경직됐을 때 패션, 문학, 영화 등 공방위임 분야에서 창조업을 구축하기 시작해 이제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됐다. 영국은 뛰어난 콘텐츠 수출 바람으로 런던이 아닌 게이트헤드라는 작은 도시에 ‘월드윌리엄스포럼’이라는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각국 문화 리더들이 관련 업종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돈을 들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곳에는 다리가 들려 올라갈 때 원크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크다리, 밑가루 공장을 개조한 현대미술관, 그리고 올레길 등 3개 관광시설문화에 있다. 그러나 올레길에서 레드 나이트(미친 밤) 축제가 열리고 주민들이 밤새 와인을 마시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극장 관광도 볼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월드윌리엄스포럼을 다룬 경험을 소개하며 “문화와 관광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관광산업의 진흥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텔로스피아가 1년 예약이 될 정도로 인기 가 있다”며 “정부는 텔로스피어나 그레코 한국여행 등 한국적인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화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유인촌, 김기현



김기현 회장, 권대중 회장, 김기현 회장, 김기현 회장, 김기현 회장, 김기현 회장, 김기현 회장, 김기현 회장, 김기현 회장, 김기현 회장

유 장관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은 것과 관련 “비즈니스 관광에도 부가할 계획”이라며 “부가가치 산업인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관광산업 중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일컫는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이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유 장관은 지난 14일로 역대 최장기(1년1개월19일) 문화부수장이 됐다. 원래 문화계의 ‘프로’였던 분야에서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우리가 정부정

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유 장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권대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스토리텔링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한다고 본다. ▲유 장관=대표적인 곳이 제주도 올레길이다. 예전의 제주 관광은 공항에 내리서 호텔에 들어가 골프를 치고 저녁엔 포구에서 회를 먹는 게 전부였다. 올레길은 제주도를 전혀 다르게 보여준다. 빨리 걷는 길이다. 그곳에 가려면 제주도와 작은 마을들을 지나가게 된다. 하루 100여명의 순례자들이 마을의 기념품, 해녀가 잡은

해산물 등을 구입해 작은 포구에도 큰 경제 효과를 남긴다. ▲이석 서울문예진흥원 회장=여자에 대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구구려 밖에 등을 재조명해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줘야 한다. 또한 서울의 관광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긴 했지만 아직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 ▲유 장관=서울에선 공공미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실 지자체는 실제가 있는 곳에만 투자하려고 해서 정부의 관광 정책과 맞닿아 부딪힌다. 내년에는 해인사 야외극장 등 문화재 100년을 맞아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에 예술의전당 같은 극장이 3~4개는 더 있어야 한다.

▲유 장관=인구에 비해 서울에 공연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공연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설득이 쉽지 않다. 문화, 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연장을 재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의료관광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도에만 의료관광을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형수술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제주도나 아닌 서울이 목적지다.

▲유 장관=의료관광은 의료 기기의 공동 활용공공성 문제와 결부돼 있어 잘못 접근하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기현 웨어비엔티내셔널 회장=사회통합이 될 때 문화관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치바 테러 등 사회 곳곳에서 사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퍼져 있는 것 같다.

▲유 장관=88서울올림픽처럼 G20를 계기로 한국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G20에서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국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화의에서 서울의 역사와 전통이 드러나도록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김기현 한미파나스 회장=아케오처럼 관광산업 측면에서 카지노를 더 개방할 필요는 없는가.

▲유 장관=카지노는 상당히 다루기 힘든 문제다. 외국인 정상 상계 허가해줄 수 없다. 외국인 출입 카지노는 공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측자를 내는 것은 2곳 뿐이다.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영 연세대 교수=서울에는 인구수에 비해 공연장이 너무 적다. 적어도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기자 room@hankook.com

내일신문

2010년 04월 07일 수요일
017면 정책

문화부, 유치원에도 예술강사 지원

초중고교에 지원돼온 예술강사가 유치원에도 배치되고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나 해외 관광업체에서 종사할 관광분야 해외 인턴도 선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시된 1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이어 예산 절감 39억원과 스포츠 토트 적립금 투입 130억원 등 총 169억원을 통해 예술강사, 관광 해외 인턴 등 신규 일자리 1700여개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로 창출되는 일자리 중 유치원 예술강사는 올해 250명이 500곳에 시범 배치되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항공비와 체재비를 보조하는 관광분야 해외 인턴은 100명이 선발, 파견된다.

이밖에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74명, 초중고 축구리그 지원인력

54명,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인력 80명, 공공기관 청년인턴 288명,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을 지도하는 젊은 체육인 인턴 420명 등도 추가 창출되는 일자리다.

유인촌 장관은 “단순한 일자리라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전공자들이 현장에서 업무경험을 우선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화 일자리는 취업기회를 늘리면서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간접적으로 추가 창출되는 인력도 3D 입체영상 전환 인력 3160명, 관광 분야 1400여명 등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는 ‘문화 일자리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취업 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문화 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문화예술위, 구로동 시대 개막

東亞日報



4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문을 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 구로동 시대 개막

어제 신청사 문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4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청사에서 이전 기념식을 갖고 구로동 시대를 개막했다. 문예위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1976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터를 잡고 출범한 지 34

년 만에 대학로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꾸리게 됐다.

오광수 문예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학로를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예술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 구로로 이전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발신지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단순히 공간이 옮겨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이전을 뜻한다"면서 "1970년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이룬 구로가 21세기에는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라"고 기대했다. 기념식에는 양대웅 구로구청장,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kimjiy@donga.com

매일경제

2010년 05월 07일 금요일 A35면 스포츠/문화

농어촌에 문화향기 전한다

문화부·농식품부 MOU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문화를 심어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농어촌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부와 농식품부는 경북 영덕군과 전남 강진군에 '문화 이모작 시범

사업'을 벌인다. 문화와 여가, 농촌 관광 분야가 통합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문화기획자와 주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대학생 농활 개념을 농촌 '문화' (문화활동)로 전환시켜 지역 간 문화 교류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 20개 농촌마을과 인근 지역 대학생팀을 연계해 대학생이 마을 어르신의 생생한 역사를 구술한

자서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문화가정에서 배운 세계의 동화를 함께 연극으로 만든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문화가 문화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작은 마을까지 촘촘하게 확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도 정비와 통합 지침 마련, 정보 교류와 공동 조사·연구 등과 함께 농촌 정책에 문화적 시각을 집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환 기자**

“‘나홀로 기업’은 차세대 산업엔진…5만개로 늘리겠다”

한국경제

2010년 05월 31일 월요일 A36면 종합

“‘나홀로 기업’은 차세대 산업엔진…5만개로 늘리겠다”

유인촌장관 1인창조기업육성강조



“영화 속의 인물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디지털 기술로 형식화한 사례지요. 이런 창조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마당을 마련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충분히 열어주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인 창조기업 육성론”이다. 그는 “1인 창조기업이야말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차세대 산업군”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가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지난해부터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창작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작 가능성이 높으나 나 혼자 할 일을 한 가지요. 1인 창조기업의 핵심분야인 콘텐츠 산업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민간과 함께 창조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떠안아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문화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사업화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보유자 37명에게 2000만~4000만원씩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0여명, 내년에는 150여명으로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3만7000여개인 1인 창조기업 수를 2014년까지 5만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무자하고 적극적으

로 네트워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두 바퀴 각오를 하고 창제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필요로 했어요. 결과가 금세 안 나오면 비난받겠지만 그것도 감수할 겁니다. 창조기업가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제대로 수월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프로젝트에 무자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요건 중 자본금 1억원 이상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콘텐츠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해 완성보증보험 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은행들이 창조기업에 자금을 무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예이다.

“음악 들어 ‘델 이코노미’가 규정정하면 시 1인 창조기업에 기회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가령 엔터에서 게임등급을 자율화하는 등 규제완화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유 장관은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참여자에게 3대 7로 수익을 분배해준 것은 대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간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 대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간 불공정 거래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 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킹 기술에 대한 연구-개

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산업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불법 복제자를 한두 번 단속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를 잡니다. 콘텐츠 저작권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풍 쓰기 운동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 장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 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전국에 산재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벤치 스튜디오를 구축해 지역별 창조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창조기업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유엔학 기자 yoon@hankook.com

문화부-법무부 손잡고 법교육 기능성 게임 개발

58

디지털타임스

2010년 06월 09일 수요일 005면 정보통신



유인촌 문화부 장관(왼쪽)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부-법무부 손잡고 법교육 기능성 게임 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법무부와 '함께 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부처는 우선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교육용 기능성 게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한다. 게임 소재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나 문화재 보호, 관람 예절 등으로 다음달부터 게임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또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교육 홍보와 문화콘텐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민육기자 mohan@**

국·공립 공연장 초대권 사라진다

朝鮮日報

2010년 06월 10일 목요일 A13면 사회

국·공립 공연장 초대권 사라진다

다양한 할인제도로 대체

국·공립 공연장에서 초대권이 사라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의전당·국립극장·정동극장 등은 7월부터, 명동예술극장 등은 내년 1월부터 초대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와 기업 등에 초대권을 배포해 일반 관객의 관람료에 부담을 주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그 대신 다

양한 형태의 관람료 할인을 확대해 저렴하지만 분명한 값을 치르고 공연을 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공개한 2009년 국·공립 공연기관의 초대권 현황에 따르면 초대권은 전체 객석의 37%(22만여명)에 이르렀다. 예술의전당 음악당은 지난해 공연 총 객석 10만4000여석 가운데 2만8600여명(27%)이 초대 관객이었다. 기관별로는 국립합창단이 66%로 초대 관객 비율이 가장 높았

고, 국립국악원(48%) 국립오페라단(47%) 국립극장(4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관객이 주로 찾는 정동극장은 초대 관객이 8%로 가장 적었다.

문화부 담당자는 “소외 계층을 초청하는 문화나눔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할인율은 현재 20~30%에서 40~50%로 높일 것”이라며 “민간 공연장들의 ‘초대권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든규 기자 coeur@chosun.com

공옥진 14년만에 서울무대 오른다

60

'서울신문

2010년 06월 26일 토요일 025면 사회

공옥진 14년만에 서울무대 오른다

내일 '한국의 명인명무전' 출연

'1인 창무극'의 대가 공옥진(사진·79)씨가 중앙무대에 선다. 1996년 이후 14년 만이다.

동국예술기획은 27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한국의 명인명무전' 21주년 기념공연에 공씨가 출연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씨는 5분간 살풀이춤을 출 예정이다.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마와 싸워온 그는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 침저해 왔다. 교통사고까지 당해 거동이 불편해지자 간헐적으로 해 오던 지방 소극장 공연도 5년 전 중단했다.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는 "이번 공연도 불투명했지만 잠깐이라도 무대에 서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건강상태도 다소 호전돼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왕년의 기량을 그대로 볼 수는 없겠지만 시대를 풍미했던 그의 몸짓을 추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를 생각할 때 마지막 무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동국예술기획은 공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공씨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영광으로 내려가 공씨를 위로한 뒤 무형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올 5월 전라남도는 공씨의 1인 창무극을 도(道)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공연에는 이매방류살풀이춤 보유자인 정명숙을 비롯해 송준영(훈령대장무), 이길주(산조무), 엄옥자(원향살풀이춤), 최선(대강놀이) 등 전통무용 대가들도 출연한다. 3만~10만원. (02)597-5670.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중단된 '예술인센터' 12년만에 다시 착공

문화일보

2010년 07월 19일 월요일 023면 문화



중단된 '예술인센터' 12년만에 다시 착공

공정 53% 진행... 700억 들여 내년 7월 완공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성림·이하 예총)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양원구 목동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옛 목동예술인회관·조감도) 건립공사 현장에서 12년 만에 다시 착공식을 한다.

옛 목동예술인회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1998년부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9년 8월 공사가 중단됐다. 296억원이 투입돼 공정이 53%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된 건립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재원 마련의 여

려움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로 지원된 169억원의 환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말 국회에서 국고 169억원의 환수를 취소하고 다시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지난 4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1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예총이 은행담보대출 등 민자로 조달할 304억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700억원.

예총의 비전 선포식의 의미를 갖는

이날 착공식에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 비롯해 김수용 대한민국예술인 회장,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석철 아카데미건축도시연구원 대표, 김중겸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승유 하나금융투자주 회장, 이상림 예총 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예총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설 대한민국 예술인센터를 서울 서부권의 문화중심지이자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가 레조십 프로젝트를 통한 지방과 수도권 예술인들의

교류는 물론, 중국 베이징(北京) 스튜디오펀터 등과도 교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1~19층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전용면적 33㎡(10평) 이상 되는 100여실의 스튜디오펀터가 조성된다. 스튜디오펀터 내에는 예술정보매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 편집장비를 설치해 언제든지 예술인들이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00여 규모의 컨벤션극장은 프로 시나리오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무대를 만들어 놓는 동시통역 컨벤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녁에는 공연과 콘서트 등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에 실행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자인예술품을 표방한 전시장은 지방과 수도권 예술인들이 서로의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아트페어 형식의 전문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최영환기자 ychoi@**

東亞日報

2010년 08월 18일 수요일
A27면 투데이



국립현대무용단 설립기념식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국립현대무용단 설립기념식이 열렸다. 김하숙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장(왼쪽)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이날 2011년 1월 창단공연, 2011년 6월 흥승업 예술감독 신작 발표 등 향후 계획과 목표도 함께 밝혔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NIE 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 확대

매일경제

2010년 10월 02일 토요일 A28면 스포츠/문화

NIE 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 확대

유인촌 문화부장관, 신문협회 ‘대한민국 NIE 대회’서 강조

이주호 교육부장관 “NIE 통한 분석력 아이들에게 필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0 대한민국 NIE (신문활용교육)대회’를 개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문은 교과서의 딱딱한 지식을 현장의 렌즈로 풀어놓는 더없이 훌륭한 ‘살아 있는 교재’”라며 “이러한 신문이 교육 현장에 접목되어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 현장에서 신문활용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NIE를 통한 탐구력, 분석력과 글쓰기능력의 배양은 이시대 인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신문에 실려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취사선택하고 재미를 느끼며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을 많이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계와 신문업계는 NIE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



유인촌 장관



이주호 장관

록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과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이어 ‘신문사랑 전국 NIE 공모전’과 ‘선거와 민주주의의 패스포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대회장에서는 신문 만들기, 신문 스크랩, 올해의 학교신문, 대학생 에세이 등 NIE 공모전 입상작과 회원 신문사의 NIE 프로그램 등이 전시됐다.

윤상환 기자

T20관광장관회의 개막

64

헤럴드경제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024면 피플

T20관광장관회의 개막

G20 국가의 관광장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T20 관광장관회의'가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사진) 주최로 개막한다. G20 참가국의 관광장관들이 모여 각국의 핵심 성장 동력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



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13~14일에는 'E-Tourism'을 주제로 국제 관광포럼이 열린다.

하는 자리로, 사실상 G20의 서막을 올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사 기간에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가나의 관광안내판 설치

적극 권장
자들에게 남독의 중요성을 알리
졌다"고 밝혔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
장은 "남독회와 함께
지도, 시 이해의
병행해서 더 큰
길 바라겠다"고
"조선일보가
남독문화가 제
를 것"이라며
오에서 매일
크로스를 하도
방송에 제가 나
2009년에는
이 이 방송에도
할 계획"이라고
진 발행인은 "이
사람들이 참여
의 남독문화 사
지면을 통해 독
스호팅
자가 단
부는 단
할 5개
복 인
40여대
와 한
관공호를 3만살을
이라고 밝혔다.
면 국토부는 건축
를 추가 및 교육
제외하고 '주택
원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금지되던
물건축을 허용해주
유 정
을 정
역 포함
에 이
과 예
"외국
연속
반면
속박
외로
이 불
무지침'을 개정해
이상의 수도권 재
개발시 도시개발
설 유지와 배치계
계획이다. 도시개
공시행자가 호텔
이로 공급할 수
설 시행방'도 개정
시는 김서구 미국
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하겠다. 이벤트를
간 대비 필요하고 현재가 다음 때까
지 지원할 필요가 있어. 결과가 긍정적
나오면 비탄만겠지만 그것도 감수할 것
니다. 정부입장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2월 패션위크 정부지원
디자이너 6개팀 소문 얻기로
내모라하고 해외에도 이름을 알린 한국 디
자이니 6개 팀이 남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선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업고 세계 패션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 정
식으로 소개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는 김석원 디자이너도 "지난해 2월부터 뉴
욕에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지만 세계 급
업의 어필과 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
30여 팀 중에서 선발됐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한
국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해적이다. 문화부는 한국콘텐츠
진흥원과 함께 2010년에 열리는 뉴욕
보 마케팅을 주도하는 것 프로젝트인
데다 오픈형 행사가 미국패션디자
협회(CFDA)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의미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렇
이러한 사업이 문화부의 사정
준비하는 것
주목하고 있다
자이니들이 가
도하지만 가장
"이라고 밝혔
들이

2012년까지 수도권 호텔 3만실 확충

문화일보

2010년 11월 02일 화요일 002면 종합

2012년까지 수도권 호텔 3만실 확충

柳문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발표

마곡·서울의료원·한전 부지중 택일 단지 조성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앞으로 호텔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시 관광 숙박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서는 등, 또 도시개발로 조성되는 관광호텔 부지는 민간업자에게 조성 원가나 감정가 이하로 공급되며, 신축 호텔 건물의 용적률과 층수·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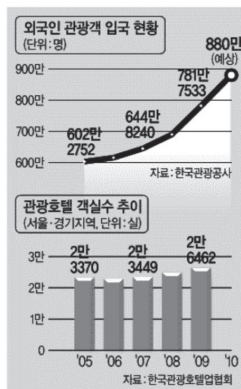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가증되는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법정부 차원에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관광호텔 설립을 지원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서울(2만실)·경기 일원(1만실)에만 관광호텔 3만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법 등을 개정, 호텔을 주거 및 교육 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고 '주거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상업지역에 한해 그동안 금지되던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해 50만㎡(15만여평)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나 신도시 개발시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이 포함되게 할 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시 공공시행자가 호텔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



동의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사업변경 지역이나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과 한국전력부지 중 하나를 택해 대규모 관광복합시설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에 4010실 규모의 호텔을 신규 확충하고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부지를 장기임대 또는 공시지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단기적으로는 신축중인 관광호텔 5개소가 연내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연말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400억원을 특별융자해주고,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인증 우수숙박시설을 연말까지 현재의 281개소(7025실)에서 100개소(2500실)를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과 고급펜션, 유스호스텔, 한옥체험시설 등 50개소(5000실)를 외국인 숙박시설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유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재 서울지역 호텔 객실점유율이 무려 90%수준에 이르러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과 예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매년 100만명 가량씩 폭증하는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외국인 대상 숙박시설은 수년동안 2만5000실 내외로 정체상태를 보여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경일기자 parking@munhwa.com

2010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66

문화일보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027면 인물



2010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2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10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한 성우 고은정, 배우 신구, 희극인 임희춘씨와 시상자로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오른쪽부터).

한빛스

업엔진...5만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착공

'서울신문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015면 종합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착공 김항식(앞줄 왼쪽 세번째) 국무총리와 유인촌(맨 왼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25일 서울 세종로 옛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착공식에 참석, 터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열어

68

朝鮮日報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A31면 사람들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열어

서울 대학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舊)본관이 예술가의 교류 및 창작 지원 공간인 '예술가의 집'으로 탈바꿈해 9일 개관했다. 1930년 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제대, 1946~75년엔 서울대 본부 사용됐으며, 이후 올해 초까지 예술위 사무공간으로 쓰였다.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태어난 '예술가의 집'은 연면적 1634㎡의 3층 건물이다. 1층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관

9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 개관식에서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연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신일수 국립예술자료원 이사장,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강수 대전문화재단 대표, 육원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최치림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이성림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일훈 국립국악원장.

는 예술창작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위한 창작지원센터, 기업과 예술의 만남 장소인 A&B센터, 전시공간, 커뮤니티 룸, 예술인카페 등이 마련됐다. 2층에

는 문예 발전에 업적을 남긴 인사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과 공연예술 자료를 모은 국립예술자료원 대학로본원, 3층에는 세미나실과 다목적홀이

들어섰다. '예술가의 집'은 개관 기념으로 2월 말까지 '한국현대문학 100년-추억의 문인 사진전'을 연다.

박돈규 기자 coeur@chosun.com

‘백성희·장민호 극장’ 문열다

중앙일보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002면 종합

‘80대 현역’ 두 원로 배우 기려 - 국가 지정 첫 실명(實名) 공연장



장민호(오른쪽)씨의 나이가 한 살 위라 ‘장민호·백성희 극장’으로 하려 했다. 하지만 장씨가 ‘레이디 퍼스트다. 연극배우론 내가 후배’라고 해 백씨 이름이 앞에 오게 됐다. 김태성 기자

‘백성희·장민호 극장’ 문열다

두 주인공 개관기념 5분 모노드라마에 객석은 기립박수



때마침 하늘에선 눈이 내렸다. 초록빛 인조잔디 위 빨간색 건물이 한 눈에 들어왔다. “우리 생애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배우 손숙(66)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건 빨간 벽돌 위에 새겨진 선명한 글씨, 바로 백성희(85)·장민호(86)라는 이름 때문이었다.

27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백성희·장민호 극장’ 개관식이 열렸다. 연극 무대에서 웃음이 60여 년을 쏟은 두 원로 배우의 이름을 딴 극장이 생겨난 것이다. 국가 주도로, 그것도 생존 인물을 기념하는 극장이 탄생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연극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왕성한 현역 배우=장민호·백성희 두 배우는 한국 현대연극의 살아 있

는 역사다. 두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춘 작품만도 300편이 넘는다.

장씨는 백씨에 대해 “진짜 마누라보다 내 속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두 배우가 위대한 건 과거에 이름을 떨치다 한물간 배우가 아닌, 80대 중반의 고령에도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현역 배우라는 점이다. 올 초 공연된 ‘동동 나랑동’에서도 녹슬지 않는 연기력을 과시했다. 백씨는

60년 이상 무대 지킨 두 배우

같이 호흡 맞춘 작품 300여 편

아직도 아침마다 요가를 할 정도로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 “고스톱을 칠 때도 깨끗하게 앉아 있다”는 말을 들려 흔히 ‘꽃장승희’로 불린다. 장씨는 출연 배우 중 가장 먼저 대본을 놓아 ‘암기민호’라는 별칭도 얻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기관이나 시설은 국내에선 드물다. 2008년 동국대 안에 건립된 연출가 이해랑

(1916-89) 예술극장이 유일하다. 반면 해외에선 위대한 예술가의 이름을 딴 극장이 흔하다. 러시아엔 푸시킨 기념극장, 막심 고리키 극장, 스타니슬랍스키 극장, 체호프 극장 등이 있다. 영국엔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 올리비에 극장 등이 있다. 문화부 김영산 예술정책관은 “한국 예술이 기록과 축적의 문화를 쌓는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0석 규모 공연장 등 갖춰

“사회 어른 예우하는 첫걸음”

이날 개관식의 하이라이트는 두 배우의 극적인 등장이었다. 그들은 뻗은 인사말 대신 5분짜리 모노드라마를 했다. 장씨는 ‘파우스트’의 한 대목을 읊조리며 노배우의 깊은 회한을 그려냈다. 백씨는 시골 아낙네의 의상을 입고 나와 무대에 털썩 앉은 채 “너무도 무심하네”라며 울음을 쏟아냈다. 객석은 모두 기립했다.



◆“사회 어른이 대접받아야”=백성희·장민호 극장은 본래 기무사(옛 보안사) 수송대 부지에 들어섰다. 최대 400석이 가능한 가변식 공연장이다. 전체 면적은 7600㎡(약 2300평). 백성희·장민호 극장 이외에 소극장 하나와 연습실 두 군데, 국립극단 사무공간 등이 동시에 들어섰다. 리모델링에는 28여억원이 들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중견 배우 우상현씨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했던, 권위주의의 상징이던 군시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백성희·장민호 극장의 건립은 단순히 연극계의 일이 아니다. 너무 급격히 변해 그간 소홀했던 전통을 다시금 반추하는 계기이자 우리 사회의 어른과 원로를 조명하고 대우하는 첫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유인촌 장관, 아테나 촬영장엔 왜?

70

헤럴드경제

2010년 12월 29일 수요일
026면 문화

유인촌 장관, 아테나 촬영장엔 왜?



방한용품 전달 격려

유인촌<왼쪽>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28일 SBS
아테나: 전쟁의 여신> 촬영
장을 방문, 출연 배우와 제
작 스태프에게 목도리와 장
갑 80세트를 전달하고 "촬영
편의를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성 동아방송예술대학 종합촬영소를 둘러 극중 NTS 사무실로 꾸며진 세트장을 둘러보고 "2014년 대전 HD드라마타운이 완공되면 수술실·응급실·비행기 세트장 등이 밀집돼 더 나은 촬영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정우성은 유 장관에게 "자동차 추격신 등을 찍는 도로 촬영에서 배우와 제작진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필요한 혼란에 휩싸이곤 한다. 도로 촬영허가제가 지원되면 제작진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더 좋은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고, 은퇴 경찰관 등이 이 업무를 맡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영화 '포화 속으로' 촬영시 국방부에서 탱크를 지원받았는데 탱크 운전병은 지원받지 못해 결국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고 김종현 태원엔터테인먼트 제작자사도 "정부 기관에서 장비를 빌려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과정이 곧 제작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식객'에 이어 두번째로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한 유 장관은 단역 배우 및 스태프 처우 문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 계약 문제, 드라마 저작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 장관은 "완성도 높은 한국 드라마가 일본 중국 및 동남아를 넘어 미주 유럽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발표

단지 조성

업엔진...5만개

코리아패스 카드 들어 보이는 유인촌 문화부장관

코리아패스 카드 들어 보이는 유인촌 문화부장관

NEWSIS | 기사일력 2011-01-10 12:35



【서울=뉴스시스】 김인철 인턴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열린 '코리아패스 서비스 확대 및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yatoya@newsis.com

2011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 개막 행사

72

2011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 개막 행사

NEWSIS | 기사입력 2011-01-12 20:43



【평창=뉴스시스】박동욱 인턴기자 = 12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 열린 2011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내빈들이 힘차게 개막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인쇄일 _ 2011년 1월

발행일 _ 2011년 1월

디자인제작 _ 원화디앤피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
(2008년 ~ 2010년)

발행처 _ 문화체육관광부

